

濟州道 南濟州郡 城山邑 温平里
現地學術調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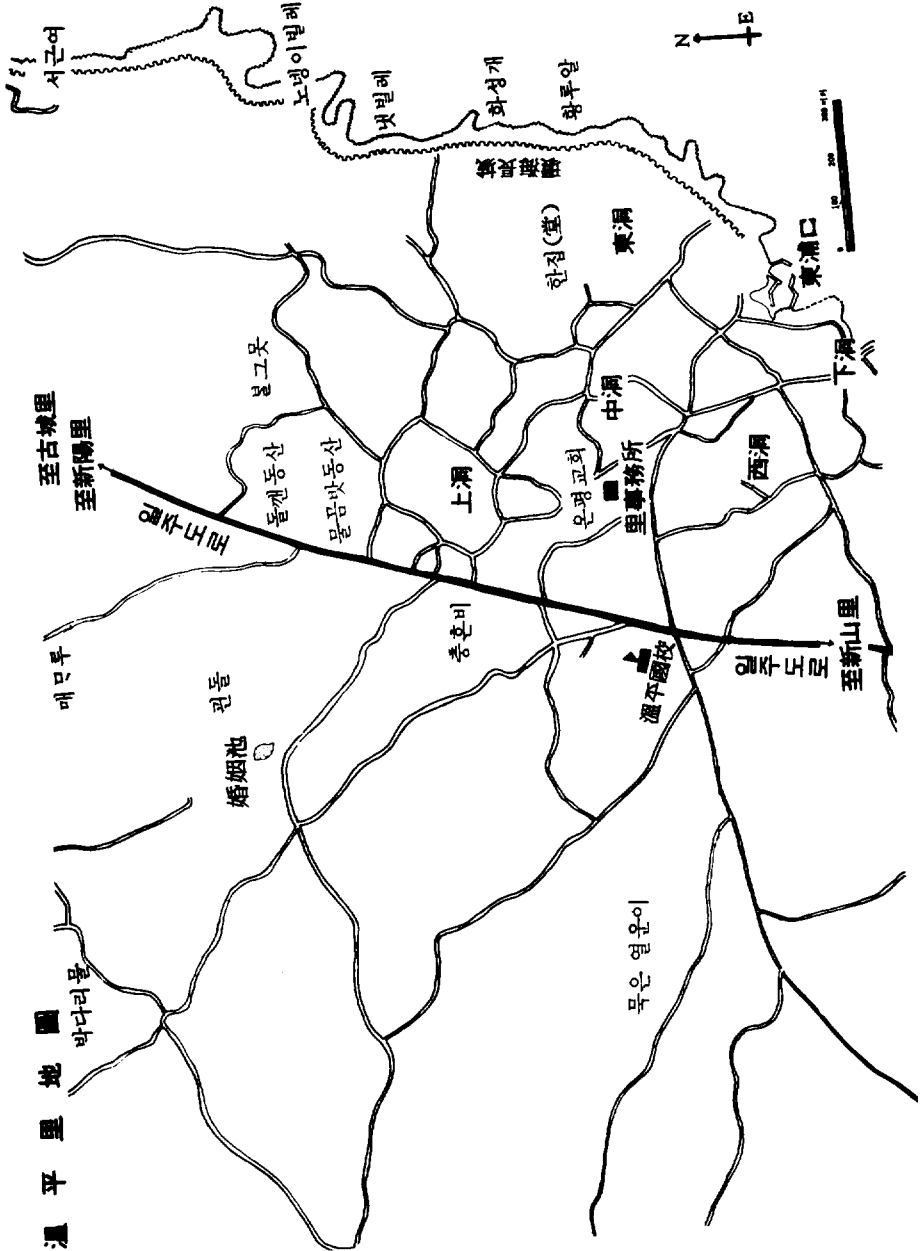
(1986. 7. 28~1986. 7. 31)

1. 조사경위 / 337
2. 마을개황 / 339
3. 방 언 / 350
4. 민 요 / 384
5. 설 화 / 417
6. 신 양 / 441

온평리 전경



溫平里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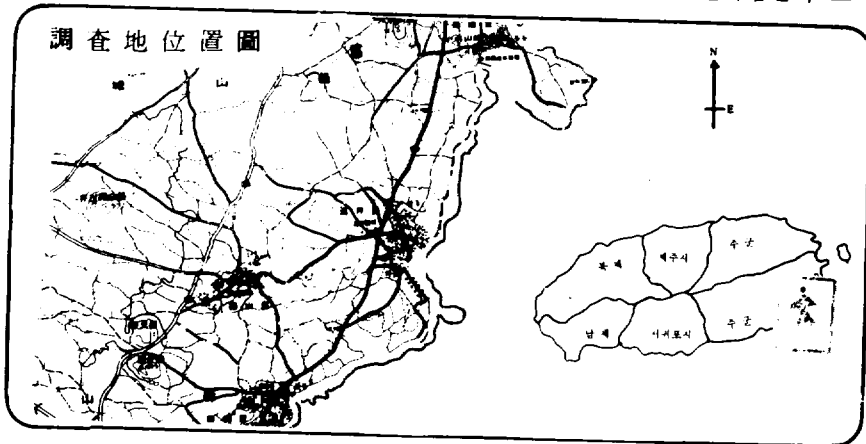


學術調查 經緯

본 학과의 現地 學術調查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응용함으로써 現地 學術調查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게 하고, 方言이나 說話·民謠·信仰 등의 분야를 조사함으로써 국어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또한 조사 참여자들이 서로 돈독히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목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실시되어 왔다. 제12회 現地 學術調查는 1986년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3박 4일동안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에서 조사되었다.

제12회 現地 學術調查地로서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를 선정하게 된 背景은 우선 지금까지 본 학과에서 실시되어 온 학술 조사 지역이 제주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제주도 三姓神話의 연원인 '婚姻池'가 있는 溫平里는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160여명이나 될 정도로 장수 마을이었다는 점 등이 선정의 동기였다.

이번 調查活動에는 教授님들과 國語教育科 在學生 및 同門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活動分野를 보면 梁重海(마을概況), 玄容駿(信仰), 金榮敦(民謠), 梁淳秘(마을概況), 崔圭一(方言), 金泰琨(方言), 尹錫山(說話), 文聖淑(說話) 教授님께서 지도해 주셨고, 金智弘 尹致富 玄丞桓 姜晶植 外에 여러 선배님들이 도와



주셨다. 그리고 調查班團은 다음과 같다. (()은 재학학년)

- 마을概況 : 許珉碩(4), 金明希(4), 元邦弼(3), 金敬心(3), 梁仁瑄(3), 羅榮姬(3),
金侖熙(3), 高利金(1), 趙傲嬉(1)
- 方 言 : 康在成(4), 許允禎(4), 姜洪吉(4), 文盛煥(3), 吳昌桓(3), 吳東植(3),
康祐順(3), 李尙烈(2), 權恩信(2), 張勳(2), 金素英(1), 趙景玉(1)
- 說 話 : 孫禧子(4), 金孟宗(4), 全良淑(4), 宋美羅(3), 宋勝燮(3), 高梅香(3), 吳
賢淑(2), 文愛心(2), 宋昌容(1), 安慧林(1), 夫喜淑(1), 全恩瑛(1)
- 民 謠 : 李性勳(4), 姜仁心(4), 吳永心(4), 金京玉(3), 高弘子(3), 康淑姬(3),
梁泓順(2), 高希仙(2), 高舜子(2), 朴明淑(2), 李旻美(2), 金恩希(2)
- 信 仰 : 任容震(4), 夫良淑(4), 金景贊(3), 姜年熙(3), 崔榮希(3), 夫慶淑(3),
李昌祐(2), 李承姬(2), 李京美(2), 李英旭(2), 金英秀(1), 韓政錫(1)

現地調査의 활동 경과를 보면, 먼저 現地調査에 앞서 각 반장들이 現地調査 方法論을 분담하여 정리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반별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으며, 3회에 걸친 사전 답사로 숙식과 취사, 교통 문제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3박 4일간의 現地調査를 시작했다.

제1일(7월 28일) : 12시에 溫平에 도착, 온평리 마을 회관에 짐을 풀고 里長님으로부터 마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비 조사를 겸한 조사 활동을 폈다.

제2일(7월 29일) : 첫날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펴 나갔다.

제3일(7월 30일) : 전일과 마찬가지로 조사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조사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가졌다.

제4일(7월 31일) : 조사 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평가회에서 제기되었던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고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이번 조사에 도움을 주신 溫平里 里長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여러분들과 城山邑 邑長님, 그리고 후배인 우리들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신 선배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報告書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指導敎授님과 조교 선생님, 그리고 학술 조사 원고를 정리하라 수고가 많았던 각 반장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편집자)

마을 개황

目 次

- | | |
|---------|---------|
| I. 自然環境 | Ⅲ. 人文概況 |
| Ⅱ. 史的背景 | Ⅳ. 產業構造 |

I. 自然環境

溫平里는 행정구역상 南濟州郡 城山邑에 속한다. 溫平里는 城山邑 城山里에서 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자연부락이다. 연평균 기온이 14.8°C이고, 연간 강우량이 1980mm로 비교적 온화한 지역이다.¹⁾

근접 마을로는 북쪽으로 신양리와 고성리, 서쪽으로 수산리와 난산리, 남쪽으로 신산리가 있으며 동쪽으로 바다와 연접해 있다. 총면적은 1156.8ha이며 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5%에도 못 미치는 413.6ha로 타지역에 비해 농업보다 축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가구수는 414가구로, 이 중 345가구가 농가이다. 총인구는 1989명이며 이 중 남자가 946명, 여자는 1043명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여자가 120명으로 전체 160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은 4·3사건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²⁾

해안과 접해 있는 마을이지만 일주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동회선(제주 시→서귀포)이 15분 간격으로 왕래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 이

1) 성산읍사무소 제공(1985.12현재)

2) 강윤수(온평리里長) 제보

러한 교통의 편리로 인하여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오일시장(온평리에서 동쪽으로 약 4km)을 통하여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있다. 오일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동남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마을 內에 내통못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를 뽑아 올려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하수 개발 이전에는 이곳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식수로 썼다고 한다.³⁾

마을 진입로에는 온평리민 일동의 명의로 된 애향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예들의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의지를 말해 주고 있다.

해안은 항구를 이룰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 해산수입은 대부분 해녀 공동어장을 통한 해산물 채취가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녀 조합원은 342명이나 되어, 한 가구당 1명 꼴이며 농업협동조합원 342명과 맞먹는다.

온평리는 바다와 접해 있어서 미역 시세가 높을 때 근접 마을인 신산리, 난산리 주민들과 미역 어장을 놓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마찰은 사라졌다고 한다.

마을은 4동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동에는 4~5개의 반이 있으며, 각 반은 대략 20호 정도로 되어 있다. 각 동에는 동장 1명씩을 두고 있다.

이 마을의 옛 이름은 '열운이'라고 하는데, 마을 이름의 변천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온평리는 '열운이'(현지 발음은 '열룬이'였고, 이를 형태음소적으로 표기하면 '열운이'로 되겠으나, 편의상 '열운이'로 나타내겠다)라고 불리웠다.⁴⁾

3) 강운수 제보

4) 이 이름은 조어상으로 「어휘형태소+문법형태소」의 결합이라 추정된다. 문법형태소 /-이/는 이름을 나타낼 때 쓰이는 형태소이며, '동거문이, 서거문이' 등의 땅 이름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어휘형태소 /열- /은 접두형태소라고도 가정하여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접두형태소는 이 음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없기에 이를 어휘형태소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어휘형태소로 간주한다면 조어상 동사의 어근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열다(開放)'로 추정하는 데, 이 마을의 지형적 특색을 나타내는 다음의 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마을의 地官인 張世良(79세)은 "멀경 열운이" '뽕뽕 하고 든든 더'라고 표현하면서 오름이 없고 지대가 평평하게 열려 있는 특징을 들려 주었다. 이런 지형을 제주에서는 '미여지 벵뒤'라고 말한다. 특

‘열운이’라는 이름이 ‘溫平里’로 바뀌게 된 경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열운이’의 音借表記를 주목해 보는 일이다. ‘열운이’는 列雲里, 烈雲里, 熱雲里 등으로 표기되어 왔다. 이때 熱과 溫 사이의 관련성을 그 단서로 삼으면 熱雲里에서 音借 음절인 熱이 뜻을 보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름이 바뀔 때 溫으로 변하였고, 여기에 평평하다는 의미가 부가되어 溫平으로 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溫은 ‘익다, 익히다’의 뜻을 가졌고(溫故) 熱도 ‘익게 하다(熱物)’는 뜻을 지녔으며, 說文解字에 「熱溫也」라고 풀고 있는 점으로 보아 두 글자 사이에는 의미상의 연관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列雲里(烈雲里 또는 熱雲里)에서 溫平里로 바뀐 시기는 전하는 바 없고, 마을 이름은 倭政때일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Ⅱ. 史 的 背 景

溫平里는 婚姻池(속칭 흰죽)의 전설을 잉태하고 있는 마을인 만큼 그 역사 또한 오래리라고 생각된다. 땅으로부터 솟아 나온 三神人이 벽랑국으로부터 건너 온 세 공주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신방을 차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옛날 혼인지에는 못과 굴이 각각 세 개씩 있었다고 한다. 도중 못들이 합

히 溫平里의 한자에서 坪으로 쓰기보다는 平으로 쓰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마을의 경우는 大坪里, 坪岱里 등에서처럼 땅의 면적을 표시하는 <坪>자를 쓴다. 그러나 溫平里의 경우는 平平하다(오름이 없이 열려 있다)는 뜻의 平을 쓴다. /열-/과 /-이/의 의미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해도 /-운-/ 형태소의 의미 추정도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운-/을 어휘 형태소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운-/을 어휘 형태소로 보면 ‘열이’ ‘운이’와 같은 독립형태소 결합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운이’의 의미 추정이 아주 자의적인 추단에 그칠 위험이 따른다. /-운-/을 문법형태소로 본다면 소위 보조어간의 지위로 추정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 형태를 /-군-/으로 보면, 이는 다시 「구+」의 결합으로 나누게 된다. 결국 ‘열구다’라는 어휘는 구렁 없이 평평하게 열리우다라는 뜻을 지니며, 보조어간 /-구/ (열구다, 담구다 등에서도 보임)는 유음 아래의 환경에서 자음탈락을 경험하여 ‘열우다’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 관형형 어미와 형식명사가 결합되어 「평평하게 열리어 있는 그런 곳」의 뜻을 가지게 된다.

쳐져서 마소용 물통이 되었고, 굴은 항구의 방파제 공사 등에 쓰이어 혼인지 곁에 있는 것만 남아 있다. 지금 이곳은 돌담으로 둘러져 조경도 잘 되어 있다.

혼인지에 대한 전설은 두어 개 정도의 각편이 전해진다.⁵⁾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이 전승을 생생하고 현실성있게 기억한다든지, 또는 구체물을 놓고 현장성을 살린다든지 하는 감흥은 없는 듯했다. 온평리 바닷가에는 '황루알'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그 옛날 전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石函이 떠 올라 왔던 자취와 세 공주를 배필로 맞기 위하여 멀리서 말을 타고 왔던 三神인의 말발자국이 현무암 반석 위에 선연히 나타나 있다. 여기서 혼인지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혼인이 해안으로부터 꽤 떨어진 못가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은 신화학적, 민속학적 흥미를 제공한다.

혼인지를 답사하였던 제주대학교 史學科에서는 곁에 있는 굴에서 여러 석기와 토기 유물들을 수습하여, 이들의 편년을 초기 철기시대로 잡은 바 있다.⁶⁾

노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마을은 대략 세 곳에서 설촌되었던 듯하다. 물론 이때 초기 철기시대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전개되지는 않는다. 묵은 열운이, 판돌, 흰죽(혼인지) 등이 그곳이다. 설촌의 동기를 자연환경 중에서 찾아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곳의 수질은 나쁜 편이며, 토질 또한 여러 군데 넓다란 현무암 암반이 땅위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식수로 쓰이는 관정수가 개발되기 전에는 식수와 용수를 빗물에 의존하였다. 위 설촌 추정지 주변에는 봉천수의 못들이 산재한다. 그 규모는 수십 가호 정도 쓸 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못들이 많은 것에 비례하여, 빌태(암반으로 이루어진 땅)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다. 설촌 초기에는 아주 작은 마을을 형성하였을 것 같다.

묵은 열운이는 혼인지에서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현재의 온평리 중동과 난산리의 중간에 있는 셈이다. 이 일대는 미여지 뱅뒤(아무런 굴곡 없이 평평짐하게 넓은 들판)라고 불릴 만큼 넓은 들판에 속한다. 야트막한 언덕들이 띄엄띄엄 밧들을 둘러 있고, 그 언덕들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다. 이 곳의 밧들에서는 청자와 분청의 파편들과 패각류들을 지표에서 수습할 수 있었다. 근처

5) 설화반 조사 보고서 참조

6) 「濟州島遺跡」 濟州大學校博物館 遺跡調查報告 第2輯, 濟州大學校博物館, 1986. p. 41, 157참조.

에 버디물이라고 하는 못이 있다. 권들은 고인들을 뜻한다(괴다는 고이다의 사투리). 권들이라는 곳 중 특히 엉덕(암반이 무더기 지어진 곳)이 있는 곳은 지금 재일교포 소유의 과수원으로 변해 있다. 그 곳 과수원에서 쉽게 자기 쪼가리들과 패각류 껍질들을 주을 수 있었다. 흰죽에서는 석기와 토기류가 발견되었지만, 자기류도 발견되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참고로 혼인지와 흰죽과의 상관성을 추론해 보면, 우선 /-죽/이라는 요소는 애월읍 어음리 윗쪽의 지명인 '홀죽밭'에서도 찾을 수 있다.⁷⁾ 여기서 '죽'과 '흰'이 서로 결합된 것으로 보자. 삼국시대의 지명 가운데 '죽'과 대응될 후보는 고구려 지명 奴音竹縣이 있다. 奴音竹縣은 신라 경덕왕때 陰竹縣으로 고쳐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陰에 있다. 이는 陰濕한 못과 관련이 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죽'을 못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비로소 婚姻池의 '池'와 서로 같은 의미 영역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수용하면 결국 '흰'과 '혼인'이라는 요소가 남게 된다. 이들의 관계는 이두식 표기로 본다. 이들을 동일시할 때, '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는 당분간 용언의 어간 '회'와 관형형 어미 'ㄴ'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이외의 다른 해답을 줄 수 없다. 다만 어간 '회'가 '호'어근과 '이'보조어간으로도 분석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을 덧붙이기로 하자. 그리고 '죽'을 고구려의 지명과 연계시킨 데 대한 또 다른 방증자료는 谷山康氏 족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주 중시조로부터 2대조(康德喆) 配位의 무덤은 '먼물미'라는 곳에 있다. 족보는 이를 이두식으로 표기하여 馬屹水라고 썼다. 이는 흡사 고구려 지명 표기에서 勿과 水의 대응을 반영해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노인들이 전하는 실존 유래를 재구성하는 방법은 이 마을 大姓들의 족보나 가승을 통해 추정하는 길이다. 현씨, 강씨, 고씨, 송씨 등이 대성에 속한다. 谷山康氏는 이 마을에 들어온 지가 14대째(장손으로만 계산함)이다. 이 윗대의 무덤들이 이웃 마을 난산리 지경에 있는 것으로 보아 멀지 않은 곳에서 이주해 온 듯하다. 延州玄氏(녹주모르파)의 경우도 장손으로만 계산하여 15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 현씨의 윗대는 신천쪽에 살았다고 한다. 耽羅高氏는 12대째

7) 貯水된 못을 가리키는 낱말로 본도에서는 성읍리에서 '방죽'이 쓰인다. '방죽'이 분석 가능한 것인지는 아직 결정할 수 없으나, 물을 나타내는 어휘에 /-죽/이 쓰인 것은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다.

살고 있고, 그 윗대는 표선쪽에 살았다. 禮山宋氏도 12대째이다. 이들은 모두 최소한 10대 이상을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연대로 환산하면 3, 4백년이며, 1600년대에 해당한다. 이 연대는 분청 유물들과 절맞는다. 이로써 대략 17세기 초엽에는 이 마을이 설촌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겠다(다만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耽羅志 등의 문헌 사료에 이 마을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다른 연계 자료도 없이 청자 파편만으로 설촌 연대를 무작정 올린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들 대성들 간에는 서로 긴밀한 혼인 관계가 있었다. 강씨는 고씨 집에 배위를 정한 경우가 많고, 현씨와 고씨는 강씨 집안에서 배필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흥미있는 점은 마을 丙婚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점이다. 이를 해석할 방향은 여러 가지이겠다. 여기서는 물이 어려웠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끼리 긴밀한 공동 운명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부각시키기로 한다. 지금도 친목을 도모하는 계가 많고, 마을 사람끼리 화합이 잘되며, 같은 堂神을 믿는 점과도 그 구조가 동일하다. 아래는 족보에서 長孫들의 配位를 추린 그림이다.

溫平里 大姓 配位圖

康 氏	玄 氏	高 氏	宋 氏
移 住	移 住	移 住	移 住
1대조-김씨	1대조-김씨	1대조-강씨	1대조-현씨
2대조-고씨	2대조-강씨	2대조-한씨	2대조-홍씨
3대조-고씨	3대조-이씨	3대조-이씨	3대조-임/강씨
4대조-고씨	4대조-고/이씨	4대조-강/송씨	4대조-김씨
5대조-한씨	5대조-송씨	5대조-강/현씨	5대조-김씨
6대조-고씨	6대조-강씨	6대조-강씨	6대조-강씨
7대조-현씨	7대조-박씨	7대조-송/김씨	7대조-한씨
8대조-오/송씨	8대조-강씨	8대조-강씨	8대조-조/고씨
9대조-홍씨	9대조-정씨	9대조-부씨	9대조-고씨
10대조-김씨	10대조-홍씨	10대조-김씨	10대조-현씨
11대조-김씨	11대조-강씨	11대조-조씨	11대조-강씨

(各氏族 族譜參照)

내륙에 설촌되었던 마을이 어떤 동기로 점차 해안으로 내려오게 되었을까? 마을 노인들은 해산물 채취 및 수거에 손쉬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였다. 이 마을의 겸농 겸어 겸축의 생산 구조 중 어업에서 해녀 수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수긍되는 점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전 동기도 설촌 동기와 마찬가지로 미지수라고 해 두어야겠다. 해녀 수익원과 이전 동기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가 오랜 마을에서 訓學은 이웃 마을과의 교류와 관리들과의 민원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개별적인 서당을 열었던 훈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는 高啓正(1832~?, 고창현감 및 거제도 호부사 지병), 張世俊 등이었다. 이들은 일제시대까지 살았던 사람들이다. 장세준의 손자 집안에는 다수의 매매문서들과 호구단자, 都許文 등의 고문서가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조금 한학을 했다 하면 꼭 地家書에 관심을 쏟는 점이었는데, 오늘날도 이런 관심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Ⅲ. 人 文 概 況

이 마을은 '열운이'였는데, 지금은 온평리라 불리운다. 마을 이름이 바뀐 시기는 전하는 바 없고 이장이나 마을 어른들에 따르면 막연히 倭政 때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현재 가구수는 414세대에 1989명의 인구가 있어서 비교적 규모가 크다. 이들은 주로 반농반어의 생활로 단조로운 편이다(표1).

〈표1〉 온평리 가구 및 인구

가 구 수			인 구 수		
계	농 가	비 농 가	계	남	여
414	345	69	1,989	946	1,043

('85.12.1 현재, 성산읍사무소 제공)

〈표2〉에서 보면 가호별 성씨 분포는 강씨, 현씨, 송씨, 고씨가 전체 414가호의 절반 이상(275가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가구별 성씨분포

(단위 : 가호)

강	현	송	고	김	이	박	정	오	장	최	임	한	부	문	양	허	라	신	서	안	선
106	63	63	43	29	23	20	15	12	19	4	3	3	3	3	2	2	1	1	1	1	1

('85.12.1 현재, 성산읍사무소 제공)

집들은 일주도로변과 바닷가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체육대회, 공동 작업시에는 각 동별로 단결하여 그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으며 어버이날에 즈음하여 '리민위안의 밤'이 열릴 때에는 각 동민들의 단결된 힘을 더욱 뽐낸다.

주택구조는 거의 개량된 지붕이며 타 농촌의 경우와 같이 반수 이상이 슬레이트이고 현대적 문화 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다.(표3)

<표3> 문화복지 시설현황

(단위 : 가구)

전기시설	급수시설	TV	전화	신문	냉장고	계량변소	승용차
414	414	403	287	38	69	396	10

('85.12.1 현재, 성산읍사무소 제공)

또한 문화 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포장, 전기 시설, 상수도 시설을 들 수 있다. 마을 안길 포장은 1979년도에 성산읍 지원 30%, 재일교포 지원 30%, 리민 부담 40%의 자금으로 단정히 포장되었다.

전기는 1971년도에 군의 지원과 마을주민의 부담으로 해서 설치되고 1972년에는 혼인지 부근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1986년 현재 100%의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졌다. 여기에도 재일교포 부담이 많았다. 여기에서 보면 특이한 것은 문화 사업에 재일교포의 도움이 컸으며 주민의 노력 또한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은 마을 구판장이나 동남 오일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교통이 편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주민의 종교는 거의가 유교이며⁸⁾ 다음으로 불교가 많은데 기독교 신자는 10

8) 특별한 종교가 없어도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유교를 믿는다고 대답한데서 나온 듯함.

여명에 불과하다. 타마을에 비해 기독교 신자가 극히 적은 것도 하나의 흥미거리이다.

〈표4〉 국민학교 학생 현황

(단위 : 명)

학 년 \ 성 별	1	2	3	4	5	6	총 계
남	18	12	12	15	14	12	83
여	13	18	19	12	19	17	98
계	31	30	31	27	33	29	181

('86. 7. 1. 현재, 온평국민학교 제공)

교육기관으로는 1946년도에 세워진 온평국민학교가 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학년이 30명 내외인데, 이는 이촌 현상과 가족계획사업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 들었다고 본다.⁹⁾

학생들은 온평리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유아원을 수료한 학생이 80%에 이르고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으나 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실제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¹⁰⁾

이 학교 출신은 100%가 성산중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마을 기관으로는 공식 단체인 부녀회와 청년회, 어촌계 조합, 청소년회 등이 있다. 비공식 단체로는 각동별로 이루어진 상조계, 친목계가 있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을 청소년회는 유아원 운영, 초·중학생들을 위한 주산 교실, 리민 위안의 밤 보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자금은 군과 리민의 도움으로 마련한 발 800여명에 청소년 회원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얻어지는 수확금으로 이용한다.

새마을 창고는 농협 창고와 어촌계 창고 등 2동이 있는데, 이 중 어촌계 창고 일부는 구관장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물품 구입을 돕고 있다.

마을 회관(복지 회관)은 1975년에 재일교포 李斗厚氏가 전액을 부담하여 지어졌으며 리사무소 운영은 물론 일부는 유아원과 청소년회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9) 온평국교 교감 제보

10) 온평국교 교감 제보

〈표5〉 공공시설물

창 고		복 지 회 관		감 굴 저 장 고	
동 수	평 수	동 수	평 수	동 수	평 수
2 동	75 평	1 동	111 평	20 동	400 평

('85.12.1 현재, 성산읍사무소 제공)

IV. 産 業 構 造

이 마을의 주요 산업은 목축을 겸한 농업이며, 그와 더불어 어업이 병행되고 있다. 목축은 소가 400여두가 있으나 마을 공동 목장이 없어 타마을 공동 목장에서 기르거나 방목을 하고 있으며 농업은 발동사와 과수원이 대부분이고 논농사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 어업은 항구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 발동선은 7척에 불과하며 대부분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가 어업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6〉 토지이용현황

(단위 : ha)

계	경 지 면 적				
	전	과수원	임 야	기 타	대 지
1,156.8	373.9	39.7	489.4	224.3	29.5

('85.12.1 현재, 성산읍사무소 제공)

마을 소득 현황은 농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80%에 가까와 아직도 농업 의존도가 높다. 어업 소득은 전체 소득의 20%에 이르고 있다. 기타 소득은 조그만 가게를 열어 얻어지는 이익금이 대부분인데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업 현황에서 보면 발동선은 1t 이상이 7척이 있고 바람을 이용한 풍선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표7〉 호당소득현황

(단위 : 천원)

연도 \ 소득	'85	'84	'83	'82	'81	'80
계	5,837	5,788	4,314	3,991	3,707	3,171
어업	1,044	1,097	732	718	667	602
농업	4,605	4,391	3,364	3,073	2,928	2,441
기타	188	290	218	200	112	128

('85.12.1 현재, 성산읍사무소 제공)

해녀 복지 시설로는 탈의장이 있는데, 남의 도움 없이 어촌계 조합원들이 손수 지은 것으로 아직 온수 시설 등 편의 시설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곳 또한 해녀의 중독성 약물(뇌선, 사루빈 등)의 복용 문제는 아직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해녀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 밖에 가축 현황을 보면 〈표8〉과 같다.

〈표8〉 가축사육현황

(단위 : 마리)

소	말	돼지	닭	개	산양	꿀벌
404	1	148	5	58	29	-

('85.12.1 현재, 성산읍사무소 제공)

특징으로는 소가 많으나 농기구 보급으로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육용으로 기르고 있다. 변소가 많이 개량되었으나 따로 돼지를 기르고 있다.

〈표9〉에서 보면 농기구는 약 40% 경운기가 보급되어 있어 경작과 수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 대)

경운기	인력분무기	동력분무기	동력절단기	새끼틀
194	111	141	5	2

('85.12.1 현재, 성산읍사무소 제공)

方 言

目 次

- | | |
|----------------|--------------|
| I. 조사경위 및 조사방법 | 4. 맛에 대한 표현 |
| II. 名詞類 | 5. 촉감에 대한 표현 |
| 1. 農業 2. 漁業 | 6. 색깔에 대한 표현 |
| 3. 家事 | IV. 其他 |
| 4. 가옥 | 1. 기움종류 |
| 5. 가축·곤충·새 | 2. 의복 |
| III. 動詞類 | 3. 인체부위 명칭 |
| 1. 기본 동사류 어휘 | 4. 기후 |
| 2. 냄새에 대한 표현 | V. 地名 |
| 3. 모양에 대한 표현 | |

I. 조사경위 및 조사 방법

이번 조사에서 방언반은 名詞類에 있어서 농업, 어업, 집안살림, 가옥, 가축 등에 관련된 어휘를 조사했고, 動詞類에 있어서 일상 생활의 표현과 냄새·모양·맛·촉감·색깔 등에 대한 표현을 조사했다.

조사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자들은 미리 조사의 기본이 될 語彙를 項目別로 정리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질문지는 지금까지 조사되어 온 항목들을 고려하여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 본 것이다. 그리고 조사 항목의 질문

에 대한 반응형을 적는 란 이외에 조사 중 우발적으로 얻어지는 자료를 참고로 적어 넣을 란을 따로 마련했었는데, 이것이 아주 도움이 되었다. 이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본 국어교육과에서 발간해 온 '學術調查報告書'(지금까지 제주도 내에 있는 자연부락 총 12개 지점 조사, 12편), '방언 조사 질문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주 방언 연구'(박용후), '濟州島方言研究 資料篇'(현경효), '嶺東嶺西의 言語分化'(이익섭), '방언학'(이익섭(1984))을 참고하였다.

제보자들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씩 모여 앉게 하여 그들끼리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해 보기도 했지만, 가끔 셋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하여 적당한 제보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분이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았다. 제보자들의 제보는 모두 준비해 간 녹음기에 녹음을 하였고, 동시에 받아적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때그때 적었다.

특히 음운전사를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갖춘 제보자만을 따로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짧은 조사 일정과 조사 대상 언어가 본 조사자들의 母語임을 고려하여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야기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더 노력을 하였다. 제보자의 성별에 대한 선택 문제도 굳이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었지만¹⁾ 조사하다 보니 거의 할머니들에게 편중되었던 것 같다. 어떤 제보자들에게는 가끔 조사자들의 목적이나 조사의 가치 또는 필요성을 알려주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야만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집안 일, 밭 일 등의 생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까다로움 없이 협조해 주어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조사 첫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마을을 답사하여 지리를 파악하고, 우연히 할머니 몇 분을 만나 약간의 조사를 했다. 이튿날은 康忠彦 할아버지를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되어 많은 양의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옥외에서의 조사는 잡음으로 인하여 발음을 정확히 들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 그 후로는 될 수 있으면, 옥내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1) Chambers et a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는 여성을 제보자로 선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여성이 쉽게 언어형태를 환경에 맞추어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다. 나이가 많이 든 여성은 사회풍습상 외부로 자주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보수성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할머니들을 제보자로 하여 조사되었던 것도 보수성의 유지를 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삼일째는 두개 조로 나누어서, 한 조는 地名을 조사했고, 다른 한 조는, 動詞에 대한 조사를 했다. 한편으로 문법 부분을 조사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너무 힘들어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아쉬웠다. 마지막 날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특이하게 느낀 것은 바닷가 마을이어서 그런지 농업보다도 어업에 관한 어휘를 많이 채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색깔에 대한 표현이 다양할 것이라는 우리의 상식으로, 제보자에게 질문으로 유도해 보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말을 얻기엔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님을 절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까지의 조사가 주로 명사에 치중해 온 것을 탈피해 보고자 하여 動詞에 눈을 돌려 보았다. 명사를 조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 현장에서 제보자들의 생생한 억양이 원고지에 문자로 전사됨으로 인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는데, 억양 전사 방법 개발의 시급함을 절감한다.

본고의 전사에서 '외'로 표기된 것은 [we]의 발음을 나타낸다. 초성 자음이 없을 때에는 단모음 '외'와의 구분을 위해 '왜'로 표기하였으나 그외의 경우는 '외'를 살렸다. (예: 쇠牛), 또 '애'와 '에'의 구분도 점차 어휘 의미의 변별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나, 본 표기에서는 그들의 보수성을 살리기 위해 그대로 적었음을 밝혀 둔다.

II. 名 詞 類

1. 農 業

1) 곡류

① 보리 : 술오리, 질오리

· 술 그릇 건 술오리엔 허고, 왕상헌 껌매기 입은 거, 지금 저디서 불리는 건 질오리. 이 질오린 주냉이보리(지냉이보리)엔도 허주.

② 조 : 스숙(서숙)

· 서숙은 천천천 줍쓸방울만씩 현 거라. 모인 줍쓸도 있곡 흐린 줍쓸도 있주.

③ 쌀 : 산디, 나룩

· 산디엔 현 건 논나룩 마라 므른 밧되 가는 거. 쌀은 쌀인디 이름이 산디라고 허주. 나룩은 논에 가는 거라.

④ 콩 : 장콩, 돛비, 강낭콩

· 장 돛그는 콩고라 장콩이엔 허고, 담에 올라가는 건 돛비엔 허여.

⑤ 팥 : 찰팥

⑥ 녹두 : 녹되

⑦ 수수 : 피대축, 강낭대축, 사탕대축

· 사리비 맨드는 건 피대축이고 강낭대축은 열매 열앙 지금 먹는 거라. 이 강낭대축은 강냉이엔도 쏬주. 사탕대축은 낭쟁이 썩엄 먹는 거. 그거 먹으면 막 돌주게.

⑧ 메밀 : 멍물

⑨ 감자 : 지슬, 지슬감저

⑩ 고구마 : 감저

⑪ 피 : 피쌀

· 옛날엔 이것도 밥도 행 먹고 먹도 행 먹어났주. 겐디 이젠 너의 막 잘 살아가난 이거 몬떡 쇠출 허주.

2) 채소(숨키)

① 무우 : 무수, 늬뻬

② 배추 : 배치

③ 상추 : 상치, 부루, 상초.

④ 파 : 패마농

· 집의서 나는 마농

⑤ 마늘 : 콤대산이

⑥ 달래 : 드룻마농

· 드르에서 나난 드룻마농이엔 허여.

⑦ 부추 : 쇠우리

· 정구지랜 말은 이제사 쓰는 말이라.

⑧ 고추 : 고치

- ⑨ 가지 : 가지
 ⑩ 깻잎 : 들깻잎, 옷쌈
 ⑪ 오이 : 왜, 물왜 (※ 춤왜)
 ⑫ 시금치 : 시금추
 ⑬ 버섯 : 톨똥버섯, 용달버섯, 소남버섯, 소남초기
 ⑭ 양애 :
 · 그거 젤 조은 거여. 집 지슬에 뻥허게 돌아가멍 싱경 해 먹는 거. 믱물국
 루 낭 국 썰리민 맛이 좋주.

3) 농기구

- ① 삽 : 갈래죽
 ② 팽이 : 팽이
 ③ 호미 : 골각지, 까꾸리
 ④ 낫 : 호미
 ⑤ 자루 : 멩텅이
 ㄱ) 백은 큰 거. 멩 섬 들이.
 ㄴ) 망텅이 : 멩텅이
 ㄷ) 디렐망텅이 : 어깨에 메는 거
 ⑥ 도끼 : 도치
 ※ 쇠막개 : 망치
 ⑦ 솥들 : 섯들
 ⑧ 삼태기 : 골채
 ⑨ 곡괭이 : 목괭이
 ⑩ 바가지 : 솔박, 속박, 대악세기
 ㄱ) 솔박은 날래 담는 거. 접질 안 밧긴 곡석에 쓰는 거
 ㄴ) 대악세진 접질 밧긴 거 담는 거
 ⑪ 근대 : 날래 저스는 거
 ⑫ 쇠스랑 : 쇠시랑
 ⑬ 끈 : 퉁

2. 漁業

1) 漁船

① 돛 : 뱃대, 돛대

· 배도 처음 난 때는 덕판이 나오랐고. 이젠 앞코지가 어신 배라. 그르 후에 일본 사름덜 왕래허기 시작허니까 싸움판이 나오랐는디 이젠 코지가 이렇게 "돌린 놈이 거든.

② 멧목 : 터배

③ 돛단배 : 풍선

④ 배의 앞부분 : 이물, 이물장

⑤ 배의 뒷부분 : 고물, 고물장

· 배 앞의는 이물장이라고 했고, 배 뒤는 고물장이엔도 허고 뒷꽁무니라고도 허고 치통무니라고도 했주. 치로 배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허는 거.

⑥ 배의 옆부분 : 과락, 슥

· 옆이 영 둘러가지고 부쳐서 요렇게 만든 거. 피기 낚을 땐 나쁜 피긴 과락머배 놓꼭 했주.

⑦ 활대

· 큰 배는 다 삼각코 나게시리 다 줄을 매가지고, 돛대 하나에 뇌개 쇠개를 헌 거. 활대를 아니 헌 것은 풍경돛이라고 해서 활대가 어시 친만 이신 거라.

⑧ 키 : 배치, 치

· 배 운전허는 건 치주, 치.

⑨ 노 : 치

⑩ 상울쪽

· 곳의 들어가민 상울쪽이라고, 배가 다치카 부다고 친친허 들어가게 받는 거.

⑪ 낚시대 : 춤대, 침대

⑫ 미끼 : 니절

※ 뽕들 : 남으로 맨드난 연둘이라고도 허주.

⑬ 닷 : 닷

· 물 소급드레 주는 게 닷이주.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세우는 거. 닷 주어가지고 개말더레 놓고, 바당에 들이친 거 허곡 딱 잡아메인 배가 움직이지 안 허국. 바당이 씨가민 양쪽 거 벌이멘다고 해서 이레도 저레도 못가게 앞의 돌에 영 메는 것 고라 닷줄이엔 허주.

⑭ 그물코

· 피기 어우생 잡는 그물이 이시난에 그물에 요만씩요만씩 구멍 내와 가지고 멱작이 있잔여. 그것이 그물코주. 그 멱작 하나이 그물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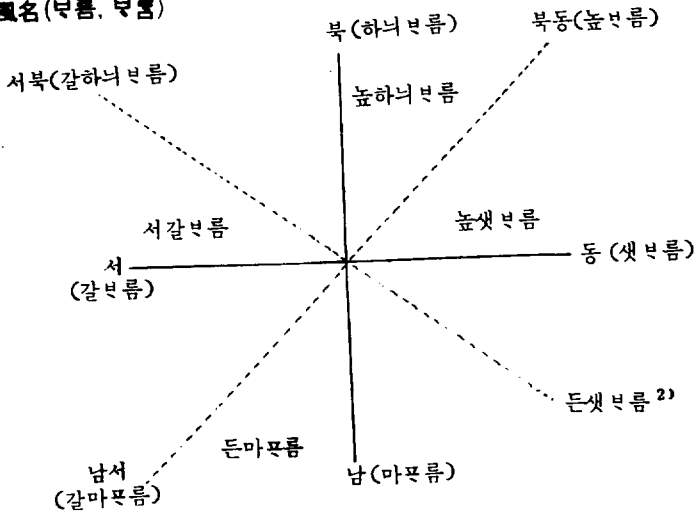
⑮ 용춍줄 : 용뚝줄

· 뚝을 배에다 쫄라매서 뚝을 올렸다 내렸다 허는 것이 용춍줄이고, 용두라고 허는 것은 딱루 도래기 메운 거, 뺄 노아가지고 이렇게 허민 배도 안 닳곡.

⑯ 멱룻줄

· 멱룻줄은 배 우의다 저 대와 이 대 사이에 줄을 걸고 있거든. 그게 멱룻줄, 옷 멱루에 이시난 멱룻줄이엔 허여.

2) 風名 (북풍, 남풍)



2) 늬셋브름 : 일진풍이라고도 한다. 일본쪽에서 들어오는 브름이라고 해서 일진풍이엔도 허주. (동남풍)

3) 조개와 조류

- ① 소라 : 고동, 구쟁이, 구제기
· 애기고동고라 좁쌀쟁정이영도 허주.
- ② 전복 : 전복, 생복, 생복
※ 새끼 - 꺼끄막.
※ 오븐작.
- ③ 성게 : 성기
· 솜은 동고락헌 건디 밤 달은 거. 성기는 검곡 가시가 홀근 건디, 이진 가시도 줄곡 호셀 발가케 헌 거.
- ④ 꺾매기 : 축꺾매기, 생이 꺾매기, 원고매기
· 보말보단 죽은 거. 생이 꺾매긴 진진헌 거고, 원꺾매긴 뚱고망으로 그창 먹는 거.
- ⑤ 보말 : 수드리, 먹보말, 문더깨
· 동꺾못헌 거. 수드린 보말 달은 건디 보말보단 홉곰 큰 거고. 문더쨌 문다깨라 고도 허는디, 둘 모양으로 닥찌 부튼 높은 문더끈다고 열기도 힘들어.
※ 메옹이(메옹이) : 마타스리엔도 허는디, 멍찌릉허고 홀근 높은 맛이 조아. 메옹이 홀근 건 이만이 해영 옛날 바당에 나갈 때 뱃고동으로 썼주.
- ⑥ 게 : 쟁이
· 쟁이도 여라 가지주게. 심방쟁이, 여쟁이, 들쟁이, 뚱쟁이, 돛박쟁이, 출쟁이, 지름쟁이.
※ 박게 : 쫄랑헌 거 벌거저.
※ 게들레기 : 게가 들영 이시난 게들레기엔 허주.
- ⑦ 따개비 : 납짝납짝허게 부뜨는 거
· 벨망>오갈>따개비. (크기에 따른 순서)
- ⑧ 거북손 : 대오살, 대우살, 대어살¹
· 과재기 둘 트멍에 잡혀진 거.
- ⑨ 해삼 : 해섬
· 바당에서 나는 삼이랜 허영 해섬이랜했주. 거 비싼 거라. 몽클락몽클락 허는 거.

- ⑩ 조개 : 모살조개, 가마귀조개
 · 영여는 건 조개랜 허주. 헤영현 조개엔 모살조개엔 허고, 검은 건 가마귀조개.
- ⑪ 말미잘 : 물문주리
- ⑫ 불가사리 : 가마귀뭉게
 · 옛날엔 가마귀 뭉개랜 했주. 심술부린다고 해서 가마귀뭉게랜 해서. 약으로도
 뜯는 거주.
- ⑬ 천초 : 빨간 풀
- ⑭ 김 : 짐
- ⑮ 한천 : 우미
- ⑯ 미역 : 메역
 · 감텐 메역허고 비슷한 모양인디 불그스름헌 거고, 메역보단 역센 거.
- ⑰ 툇 : 툇
 · 옛날엔 툇도 밥 헤영 먹어났저.
- ⑱ 파래 : 푸래, 춤푸래, 물푸래
 · 짐 달마도 푸린 거. 푸래도 먹는 거 싯곡 안 먹는 거 싯고, 옛날엔 푸래도 밥
 행 먹어서. 춤푸래 먹는 거고, 물푸래 도야지 해당 주곡.
- ⑲ 청각 : 정각, 쇠정각, 물정각
 · 쇠정각은 뭉클락헌 거고, 물정각은 진 거.
- ⑳ 가스리 : 마카스리, 대롱가스리, 가시리
 · 풀도 쭈곡 먹기도 허곡허는 게 가스리, 5월 장마에 나는 건 마카스리랜 허고,
 대롱가시린 풀도 쭈곡 국도 쪼렝 먹주.
- ㉑ 깨궤도리
 · 성목이연도 허곡 바당에서 나는 건디, 몰라 가지고 풀 쭈는 거라.
- ㉒ 다시마 : 넌메역
 · 넌메역고라 다시마랜 허주. 자막사리엔 현 바당풀도 이신디, 이젠 몰리지 안해
 영 받아가주.
- ㉓ 뎡뎡 : 뎡뎡, 패뎡뎡, 실경뎡뎡, 고지기
 · 바당의서 나는 건디 걸름허는 거라. 그거 허젠 허민 옛날엔 훈 닷 발쭈헌 낮
 울 뎡뎡 텡배 탕으네 뇌 저성 가났주. 노랑쟁이나 슬경뎡뎡이나 고지기도 다
 ㄱ튼 건디 일름만 딸른 거. 실경뎡뎡이 쪼 지픈 디서 나는 거라.

㉔ 도박 : 도박, 진도바리, 멩지도박

· 감태모냥 풀 허는 거고, 진도바리가 춤도박이라.

㉕ 패 : 넙패, 패

· 넙패는 사름이 먹는 거. 나불나불 허게시리 나는 건디 술망 먹는 거. 패는 밧디 걸름허젠 깈는 거. 꺾질 꺾질해서 외대로 올라가는 거.

㉖ 물말 : 뭍

㉗ 지층 :

· 궂는궂는 현 거. 이것도 걸름허는 거. 넙패 밧디 있는 계주. 이만씩 지는 거곡. 틀 밧디 그계 하영 이서. 까실까실현 거. 불가사리 달문 저라.

4) 魚類

① 고등어 : 고등에

② 멸치 : 멸

· 아주 존 거. 이루쭈 맨드는 건 밤멸이라고 했주.

③ 복어 : 복쟁이, 복다리

④ 문어 : 문게, 문게

⑤ 솔래기

⑥ 우럭

⑦ 쿡쟁이

· 꺾꼴라현 거.

⑧ 물뚝

· 크곡, 가축도 질기곡 도막도막 갈라진 건디 꺾멍허고 영영 골 그서 진 거. 매가 리가 도야지 대맹이 달문 저라. 막 맛 좋주.

⑨ 눈쟁이

· 그릇 그서진 거, 빨강현 건디, 꺾가 신 거라 그거.

⑩ 꺾주리

⑪ 오징어 : 오징에

· 민마구린 먹만 담아쥬 쥬진현 거. 오징엔 꺾그만현 꺾 이신 거고 멩마구린 속에 큰 꺾이 담아진 거쭈.

- ⑫ 어랭이
 ⑬ 맥진다리
 · 천천천 피기. 꺾여서 잡아지는 거.
 ⑭ 조력
 ⑮ 북바리 : 벌경헌 피기
 ⑯ 구릿 : 꺼멍헌 피기
 ⑰ 가쁜 돔
 · 이것도 구릿 종류나 꺾든 거.
 ※ 아가미 : 알가미, 어우생이, 코생이.
 ※ 지느러미 : 피기 놀개.

5) 潛女道具

- ① 고무옷 : 줍수복
 · 옛날엔 속옷 입꼭 수건 쓰꼭.
 ② 비창 : 생복 잡는 거
 ③ 골째기, 골각지
 ④ 문에 까구리
 ⑤ 성게 까구리 (성기 까구리)
 ⑥ 손장갑도 찌꼭
 ⑦ 오리발 : 발에 신는 거
 ⑧ 망사리 : 고동 잡아 놓는 거
 ⑨ 눈 : 물안경
 ⑩ 소살 : 피기 잡는 거
 ⑪ 태왁
 · 사름 지끄고 땡기는 거. 줍수덜 지경으네 바당에 강 물질허는 거.
 ※ 죽두렁박 : 옛날엔 땅에 심경으네 지봉 우의 열뿤 막 익영 이만씩헌 거 해영 해났
 주만은 이젠 그런 게 어서. 집의서 싱글 때엔 죽 심끔째, 영 허꼭, 커그네 바당에
 가점갈 맨 죽두렁박이엔 허주.

3. 家事

1) 음식

- ① 무우 : 무시늬물
- ② 배추 : 당배치
- ③ 춤늬물
- ④ 미숫가루 : 개역
 - 보리 풀잎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거.
- ⑤ 통조림 : 간지미
- ⑥ 반찬 : 출래
 - 옛날에 생복 찹메기 이만한 거 큰 거에 2짜 먹어나고, 그것에 자리 2튼 거, 벨컷 2튼 거 지정 먹어났주. 저장해 놔당 피기가 귀한 때 지정 먹는 거. 짬짜롱 현 거.
- ⑦ 김치 : 짐치
 - 배치짐치, 늬삐짐치(깍메기짐치), 마농짐치, 쇠우리짐치, 애기늬물짐치.
- ⑧ 감주 : 감지
 - 보리로 꿀을 놔서 꿀물을 팔려서 그늬이 든물이 일어나민 먹는 거.
- ⑨ 싼다리
 - 밥 쉬민 싼다리 맨들엉 먹었주.
- ⑩ 수제비 : 죄배기
- ⑪ 무우생채 : 늬삐채
- ⑫ 콩나물 : 콩지름
 - 요샌 콩나물이랭 허지마는 옛날엔 콩지름이랭 허였주. 제스 돌아왔저, 콩지름 놔사 험 걸.
- ⑬ 누룽지 : 누랭이
 - 밥 허당 솟되 늘엉 이신 거.
- ⑭ 송늬 : 누랭이물, 송늬
- ⑮ 찬밥 : 식은 밥

⑯ 죽 : 못죽, 콩죽, 흰죽, 식은 죽

⑰ 꿀

· 옛은 좁쌀하고 홀고루 짜서 달린 거. 청은 벌거지로 바낸 거.

⑱ 떡종류

ㄱ) 친떡 : 좁쌀친떡, 곤쌀친떡.

· 시리에 놔 친 떡.

ㄴ) 조친떡 : 좁쌀로 친 거.

ㄷ) 제편 : 솟되서 쟁 칼로 그창으네 반에 하나씩 놓는 거.

ㄹ) 솔벤 : 소랑현 건 솔벤.

ㅁ) 절벤 : 영영 맨들엉 절벤 본으로 똑똑 누리든 거.

ㅂ) 쫄개솔벤 : 송편식으로 맨든 건디 송편보단 큰 거.

ㅅ) 만디떡 : 밀만디떡, 멥쌀만디떡.

· 이 만디떡 소굽에 무수나 풋을 놔났주.

ㅇ) 과질 : 밀꺾루를 밀엉 지정 쏘 피왕 옛 미청 부친 거.

ㅈ) 정기 : 빙떡.

ㅊ) 지름떡.

ㅋ) 증괘.

ㆁ) 약괘.

ㆂ) 상괘떡, 묵, 보릿꺾루떡, 좁쌀떡……

2) 세탁, 바느질

① 빨래 : 세담, 서담

② 다리미 : 다리배

③ 인두 : 윤더

④ 다듬잇돌 : 안반, 세담뚱배

⑤ 다듬이 방망이 : 세담마깨, 다듬이마깨

· 세담마깨 뇌개라.

⑥ 빨랫방망이 : 물마깨

⑦ 비누 : 사분

· 옛날엔 사분이 엇곡, 양젯물로 해났주.

- ⑧ 바지랑대 : 활대
· 빨랫줄 바트는 거. 옷덜 등기지 말라고 바트는 거.
- ⑨ 옷감
가) 헝겊 : 헝벅.
나) 멍명.
c) 미녕(회고 너비가 좁은 거).
리) 광묵.
m) 청묵 : 꺼멍헌 물 들인 거.
b) 베 : 베일름도 여라 가지라. 개랑뻔 막 알룬알룬헌 거. 모기장이나 헝직한 거라.
광페베도 싣고 마페도 이서. 마펜 이제사 집의서 손으로 짜는 거라.
s) 명주 : 멍지.
o) 모시.
- ⑩ 구멍가게 : 전땡
- ⑪ 가위 : ㄱ새
- ⑫ 골무 : 손골매, 손골미
- ⑬ 재봉틀 : 바눔클, 바눔클
- ⑭ 바늘꽃이 : 바눔절래
· 바눔질해낭 바눔 짚렁 노아 두는 건 바눔 절래.
- ⑮ 바늘 : 바눔, 바눔
- ⑯ 바느질 : 바눔질

4. 가옥

1) 가옥구조

- ① 밧집
② 안집
③ 굴묵

* 굴묵 지든다 : 겨울에 쇠똥이영 똥똥 주서당 방 딱뚝하게 허는 거.

- ④ 집 울담 : 집 지슬
- ⑤ 광 : 고평
- ⑥ 마루 : 상방, 상방마리
· 옛날엔 상방 가운데 돌로 화로를 파 가지고, 거기서 불 솟아서 불 초아났주.
- ⑦ 방 : 구들, 작은 구들, 큰 구들
- ⑧ 뒹마루 : 뒹마리, 낭간
- ⑨ 방바닥 : 구들바닥
- ⑩ 디딤돌 : 잇돌, 광돌
· 신 벗어지게 하나만 이신 건 광돌이고, 뒹마리 옷터레 올라사지게 허젠 돌아가 멩 쪽 논 건 잇돌.
- ⑪ 뒤주 : 두지
· 옛날엔 부잣집이나 재사가 집백원 어섯주. 보통사름덜은 항에 쌀 노아나서.
- ⑫ 장계
· 상방에 노양 그릇도 놓곡, 신도 담아놓곡 했주.
- ⑬ 툇
· 공장에 걸지 못하는 물건, 이런 나무를 썰러서 맥이나 멩탱이 걸어 노아난 거.
- ⑭ 지붕
※ 새끼 : 노꼬시, 호랭이로 즐 빈다.
- ⑮ 기와집 : 지에집
- ⑯ 초가집 : 초집
- ⑰ 상마루 : 지붕에서 겹 높은 디
· 상마루 끝엔일 강냥이랜 허여.
- ⑱ 처마 : 집가제
- ⑲ 고드름 : 동곳

2) 문

- ① 올렛문
※ 올레 : 집터레 들어가는 길.
- ② 문지방
· 옷대방은 우릿 거, 지방은 아랫 건더, 문이 이레 가게 저레 가게도 아니허게 흙지와 가지고 현 거. 백선은 문이 더꺼지게 옆터레 세우는 거.

③ 문고리 : 걸세

④ 문 : 문, 밀문, 셋문, 창문, 쌀문

· 열악더겨허는 문은 문이엔허고, 밀곡 통기고 허는 문은 밀문이주. 또 상방으로 들어간 구들로 들어가는 건 셋문.

⑤ 문구멍 : 문꼬망

3) 부엌

① 부엌 : 정지

② 부엌문 : 정짓문, 뒷문

· 마당쪽으로 난 건 정짓문이런 허고, 안으로 난 건 안뒷문이라고도 허고, 뒷문이라고도 허주.

③ 찬장 : 살래

· 사발도 옆으곡, 솥갈도 놓곡, 출래도 먹당 노아두곡 허는 걸 살래랜 했주.

④ 아궁이 : 솥떡

· 돌 식걸 놓았는데, 이걸 삼떡이런 했주. 정지안을 조왕간이런 했고, 집안의서는 조왕할망이 으뜸이엿 허주.

⑤ 굴뚝 : 내통

· 이 내통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주. 옛날엔 내통이 이성 오월 장마 맨 내로 정지가 콧콧해연.

⑥ 연기 : 내

· 내가 하영 올라오라 가민 시커멍케 먹 모양으로 내가 모야진 걸 꼬시렁이런 했주.

⑦ 부지땡이

⑧ 빗자루 : 정짓 비차락, 방비

⑨ 나무 : 남구

· 검부센 때는 남구.

⑩ 재 : 불치

· 불 태와난 것고라 불치엔 했주. 헌더 그것도 구별이 따지. 상방에 솥불 살라나 가지고 솥불 탄 것은 재라고 허고, 검질 숨아난 건 불치. 그건 빛의 담아다가 농사할 때 뿌리기도 허고, 이 재물로 옷을 빨기도 허고.

- ⑪ 성냥 : 화각, 불괵
- ⑫ 부삽 : 부삽
- ⑬ 솔뚜껑 : 솥뚜껑
- ⑭ 장독뚜껑 : 장태
- ⑮ 설겜이통 : 사발 씻는 장태
- ⑯ 밥주걱 : 밥자
· 밥 푸는 걸 밥자였 허곡, 밥이 익어신가 설어신가 영 젓어 보는 걸 남죽이였
허여.

4) 부속건물

- ① 변소 : 통시
- ② 외양간 : 쇠막, 돌막
· 쇠막은 쇠 메는 띵.
- ③ 여물통 : 구시
- ④ 텃밭 : 우연(우영)
· 우연내는 느물도 꼴아 먹곡, 유채도 꼴국 했주.
※ 조팓, 대왓, 감저팓, 울왓.
- ⑤ 보리날가리 : 보릿눌

5. 가축·곤충·새

1) 가축명

- ① 마소 : 마시(마쉬)
- ② 말 : 물 (웅매, 즈매)
· 나이에 따라 이름이 뜩나. 금승똥생이, 이수똥생이, 삼수똥생이, 스수똥생이,
다숫설 난 물.
- ③ 소 : 쇠
· 금승송애기, 다간송애기, 사릅송애기, 나릅송애기, 다습송애기.

- ④ 송아지 : 송애기(숫송아지 : 부랭이, 암송아지 : 암 송애기)
- ⑤ 망아지 : 똥생이(숫망아지 : 웅매 똥생이, 암망아지 : 즈매 똥생이)
- ⑥ 강아지 : 강생이(숫강아지 : 수강생이, 암강아지 : 암강생이)
- ⑦ 토끼 : 퇴끼, 퇴끼새끼
- ⑧ 닭 : 득

※ 달걀 : 득새기.

- ⑨ 병아리 : 비애기, 빙애기, 비앵이
- ⑩ 오리 : 오리

· 집의서 질르는 거. 오리도 바당오리 따고, 육깃오리 따.

※ 바당올랭이(물올랭이) : 집의 안 살꼭 가을때 되민 문에 올랑 뒤 주서 먹어, 다리 진진허고.

- ⑪ 염소 : 염송애기

· 검은 염소도 있곡, 흰 염소도 있곡, 붉은 것도 있곡, 색색이 다 따주.

- ⑫ 돼지 : 똥, 도새기, 암토새기, 숫토새기

- ⑬ 고양이 : 고냥이

※ 쥐 : 쨍이.

※ 사슴 : 강늑.

· 뿔 있는 게 강늑이지. 사슴 늑은 것가 강늑이여.

※ 노루 : 노리.

· 노리도 처음은 뿔이 요만이 했다가 늑어가민 뿔이 이렇게 내돈앙 그것도 늑용으로 풀아먹는 거라.

※ 거북이 : 거북이.

※ 자라 : 자래.

· 거북이, 자래가 밧 천년씩 사는 늑 아니라게.

2) 곤충·파충명

- ① 매미 : 뫏자리, 왕자리, 고작자리

· 매미도 분별이 따. '지……' 허게 우는 것고라 뫏자리엔 허고, '왕……' 허게 소리나는 건 왕자리, '꺽지직 꺽지직' 허당 '지지징……' 허는 건 꺽자리.

- ② 파리 : 파리
- ③ 지네 : 주병이
- ④ 메뚜기 : 말죽
· 옛날엔 몰말죽이엔 해신디 탁탁허멍 느는 거.
- ⑤ 여치 : 공중이
· 배 뽳룩허곡, 놀지 못하는 놈을 공중이라고 허는디, 밤의 고요한 때에 '췌췌...
...췌' 허는 거. 이진 무리고, 등어리가 북구 놀개 이서도 약간 이성 혼어서 놀지 못하는 거주.
- ⑥ 귀뚜라미 : 귀뚜래미
· 이진 ㄹ술에 귀똥귀똥 허는 거.
- ⑦ 모기 : 모기
- ⑧ 꼭다기
· 이놈은 모기 달은 건디 모기보단 독헌 거고 나무 그늘에 이신 거라. 혼번 물민 이렇게 튀어 나주. 아주 흩어.
- ⑨ 개미 : 개염지
· 개염지도 놀개 돌은 놈이 신디, 걸 왕상개염지라고 허여.
- ⑩ 반딧불 : 불환뒤, 불란지
· 밤이 되민 불 신 디 놀아드는 걸 불란지랜 허여. 불 이신 뒤 가민 그놈은 아주 튀주. 즈름에 베롱허게 불 싸지는 거.
- ⑪ 달팽이 : 돌팽이
· 이렇게 문직으민 똥그랑허는 거. 그걸 돌팽이랜 허여.
- ⑫ 구더기 : 구데기
· 구데기 그거 건드리민 냄새가 역해여. 주병이 모양으로 꺼멍헌 거. 이걸 노래기 영도 허곡 구데기영도 허곡. 초가집의 마 저가민 그거 하영 나오주. 이진 불라도 죽지 아니허여. 그렇게 죽아도이.
- ⑬ 벌 : 벌, 청벌
· 꿀 맨드는 벌은 청벌이엔 허주.
- ⑭ 두꺼비 : 두께비
· 이놈은 물에 안 살고 므른 디서 가롤래비 모양으로 허는 거.
- ⑮ 개구리 : 개롤래비, 가롤래비, 가개비

⑮ 멧꿩이 : 멧마구리가개비

⑯ 올챙이 : 2노리

· 개구리 아니 된 때는 이놈이 쪼리 돌은 건디 오래가민 쪼리가 짧어지고 발 들고 해서 개구리가 되여.

⑰ 하막

· 그전 저 산에 가민 볼근 점 찍어지곡 꼭 개콜래비 달은 건디 약 허는 거. 사름이 쪽뽕이 난 때 그놈 해다가 딸려 먹는 거.

⑱ 하루살이 : 누니누니

· 건 브름 췌어가겐 허민 사름 눈에 막 둘러드는 거.

⑳ 진드기 : 진득

· 쇠에 붙는 거. 진득도 잇곡, 부그리도 이신디, 진득이 흙으민 부그리가 되여. 사름 2트민 니 닳은 겐디, 쇠에도 사름 2추룩 니가 이서. 니 허고는 딱주마는. 그게 잘 먹으민 요만씩 현 게 이만씩 허여. 지금 막 발생할 때주.

㉑ 쇠파리 : 쇠프리

· 그놈은 또 사름프리 보단 독허주.

㉒ 파리 : 프리

㉓ 뱀 : 배미, 배염

· 배미도 여러 가지 있지.

ㄱ) 물패기라고 독사. 사름 잘 문다는 거 물패기주. 그놈은 물민 사름이 깃떡허민 죽는 거주게. 그 놈은 머리뺨이 넘썩허주. 제일 독헌 거라 그전.

ㄴ) 돛줄래는 퍼렁헌 놈. 막작막작 그릇 굶어진 거.

ㄷ) 셋뱀은 노르스름헌 거. 죽은 거라 그전.

ㄹ) 마카래빈 가개비 닳은 건디 마지젠 허민 저 멧계냥 우의 올라강 짹짹짹하는 거.

ㅁ) 장콜래빈 배미 닳은 거. 발 영 이신 거.

ㅂ) 흰배미나 황배민 보기 힘들어. 그거 하나 잡으민 옛날엔 큰 부계되던 해서. 그 사름 팔계 고쳐서. 황배민 곧 지나갈 때 만나민 이 향깃내가 삭-허주. 옛날 소 향을 맨들어서 어린 애기덜 설사나 급증이 나민 그거 맥이민 직접 도망간다는 디, 그제 비싸저든.

㉔ 구렁이 : 구렁이

·그건 막 큰 걸 보고 구렁이런 허주. 이것도 흰 구렁이가 있구, 검은 구렁이가 있고, 또 저 까뭇까뭇 직어져서 깨모양으로 점 직어진 놈 있고, 황구렁이가 있주.

3) 새 이름

① 새 : 생이

② 제비 : 제비새

· 이디선 제빌 제비새영 허주.

③ 참새

· 참새도 여라 가지주. 밥주리새가 잇곡, 또 그놈의 새는 하늘 옷트레 올라가멍 손 부비면서 '하느님, 날 살려줍서, 날 살려줍서' 허당으네 내려올 땐 짹 내려오멍 '나 또꾸망 활라 먹으라' 허는 새가 이신디, 그 생이 일름은 뜬내지 못허큰게. 또 총대기도 있주.

④ 올빼미 : 오뺨

· 밤의는 눈이 붉곡, 낮원 눈이 어둑곡 귀가 붉곡 허는 걸 오뺨이라고 해여. 건 아지민 똑 고냉이 담나, 고냉이.

⑤ 비둘기 : 비둘귀

⑥ 까마귀 : 가마귀

· 제주엔 가마귀가 잇곡 육지엔 깐치가 이신디 깐친 흰 놀개가 잇곡.

⑦ 독수리 : 똥스르기

⑧ 매 : 춤매

· 춤매라고 허는 놈은 꿩 때려서 잡아 먹는 거라. 독수리허곡 비슷허지. 근디 독수리는 입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춤맨 발로 뭇 걸러다가 공중에서 놀면서 이르케 뜬어 먹곡, 담 우의서 이렇게 잡아먹는 거라.

⑨ 꿩 : 장꿩, 솟꿩, 암꿩

· 솟놈은 장꿩이엔도 허곡, 암꿩은 또 즈치라고도 허는 건디 육지서는 까투리엔 허는 거.

⑩ 찌꾸리생이

· 이진 생이 피쟁이엔 허는 거주. 생이 잡앙 먹는 거.

Ⅲ. 動詞類³⁾

1. 기본 동사류 어휘

- ① 익다 : 익다 (익엄시네, 익곡, 익어도, 익엉, 익으민, 익으난)
· 지슬 다 익어시나 뵙 오라.
- ② 꺾다 : 꺾끄다 (꺾꺾찌, 꺾꺾서라, 꺾꺾곡, 꺾꺾도, 꺾꺾, 꺾꺾민, 꺾꺾난, 꺾꺾라)
· 저 고장 강 꺾꺾 오라.
- ③ 엮다 : 예피다
· 저 느람지 재기 예피라.
- ④ 같다 : 담따, ㄱ트다 (ㄱ따라, ㄱ따도, ㄱ땅, ㄱ뜨민, ㄱ뜨난)
· 이것광 저건 똑 담따.
- ⑤ 날다 : 놀다 (놀암찌, 놀아라, 놀아도, 놀앙, 놀라)
· 저 생인 잘도 놀암찌.
- ⑥ 열다 : 열다 (언다, 열려도, 열리진, 열러브난)
· 물은 거려단 저더 노난에 눈 오란 팽팡 열러비었저.
- ⑦ 숨다 : 곱다 (곱암찌, 곱아라, 곱곡, 곱아도, 곱앙, 곱으민, 곱으난, 곱으라)
· 우리 이레 곱제.
- ⑧ 예쁘다 : 곱닥허다 (곱닥해라(고와라), 곱닥허곡, 곱닥해도, 곱닥해연, 곱닥허민, 곱닥허난)
· 야, 느 그 곱닥헌 옷 어디시난 입언디?
- ⑨ 입다 : 입다 (입엄찌, 입어라, 입곡, 입어도, 입으난, 입으민, 입으라)
· 야, 그 옷 재기 입으라.
- ⑩ (~하고) 싶다 : ~구정허다, ~허고프다 (허구정해라, 허구정해도, 허구정해연, 허구정허민, 허구정허난)

3) 각 語幹에 語尾 '-ㄴ(는)다, -더라, -고, -아도, -아서, -아서, -으면, -으니까, -아라'를 統合시켜 調査한 것이다.
여기서 '動詞類'라 함은 종전의 동사·형용사를 모두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 그 수박 과삭 먹구정허다. 거 나 호셀 해다 드라.
- 나도 밧되 가구정허다.
- 목 물랑 물 먹고프다.

⑪ (병이) 낫다.:(환특허게, 관직허게) 낫다 (낫나, 낫아라, 낫아도, 낫건, 낫으
난, 낫으라)

- 야 느 그뻬 경 아팠단 이젠 환특허게 나사시나?

⑫ (옷이) 젖다:젖다 (젖엉, 젖이난)

- 어디 강 경 적정오란디?
- 우산 썩 가궤, 아무 것도 안 썩 간, 옷은 다 젖었구나.

⑬ 젖다:젖으다 (젖엉, 젖어도, 젖으건, 젖으난, 젖으라)

- 죽이 되염적허다. 물 호셀 낭 잘 젖으라.

⑭ 쫓다:다울리다 (다울림쨌, 다울려라, 다울리고, 다울려도, 다울련, 다울리민,
다울리난, 다울리라)

- 저 고냉이 확 다울리라.

⑮ 잡다:심다 (심어라, 심곡, 심어도, 심엉, 심으민, 심으난, 심으라)

- 저 고냉이 강 재기 심엉 오라.

⑯ 앗다:안지다, 앗다 (앗암시베, 앗아라, 앗곡, 앗아도, 앗앙, 앗이민, 앗이난,
앗이랴)

⑰ 팬찮다:어평 아너다 (어평 아니허다)

- 나 이젠 어평 아니허다.

⑱ 뛰다:뜬다(뜬암시베, 뜬아라, 뜬곡, 뜬으난, 뜬으랴)

- 저 도둑놈 드르멍 강 심으랴.
- 재기 드르랴.

⑲ 찢다:치다 (침서라, 치곡, 쳐도, 칭, 치민, 치난, 치랴)

- 이 지슬 칭 먹게, 저 솟더레 낭 치랴.

⑳ 꺾다:쨌락지다 (쨌락져라, 쨌락지곡, 쨌락정, 쨌락져도, 쨌락지민)

- 이 감은 쨌락정 잘 못 먹키여.

㉑ 엷다:웃다, 엷다 (엷어라, 엷곡, 엷어도, 엷이민, 엷이난)

- 우리 집의 ㄱ새 웃다. (엷다).

㉒ 있다:잇다, 잇다, 이시다

· 이디 2새 싶저.

㉓ 바쁘다 : 급허다, 저르 엇다 (저르 엇어라, 급허곡, 급해도, 저르 엇언, 저르 엇이민, 저르 엇이난)

· 나도 저르 엇언 느네 집의 못 가키여.

㉔ (담배) 피우다 : 먹다(먹어라, 먹곡, 먹지, 먹어도, 먹으난, 먹영)

· 야, 느 그 담배 조그마니 먹으라.

㉕ (불을) 피우다 : 살르다 (살르곡, 살라도, 살랑, 살르민, 살르난, 살르라)

· 열다, 이제 불 살르라.

㉖ 마시다 : 먹다, 들이싸다

· 물 강 거러오라. 먹키여.

· 술 먹으라.

· 멘도롱 딱뚫헌 때 들이싸라.

㉗ 깨다 : 벨르다 (벌르다, 벌러비엿저, 벨르곡, 벌런, 벌르민, 벌르난, 벨르라)

· 그 접시 파싹허게 벌러비엿저.

㉘ (가슴을) 펴다 : 꿔우다 (꿔우다, 꿔왕, 꿔와도, 꿔우라)

· 웅키지 말앙, 수죽이나 꿔왕 멩기라.

㉙ (되를) 되다 : 되다 (되영, 되민, 되난에, 되라)

· 되도 되난에, 여나몬 되나 되어라.

㉚ 무섭다 : 모습다 (모수와라, 모습곡, 모수와도, 모수왕, 모수우민)

· 아이구, 야, 저 하르방 막 모습다. 우리 어디레 곱게.

㉛ 다르다 : 툐나다(툐나라, 툐나곡, 툐나도, 툐낭, 툐나민)

· 이것광 저전 잘도 툐나다이.

㉜ (산나물이) 쇠다 : 세다, 찢기다 (세어라, 세곡, 세영)

· 양애 지금은 세어 부러실저여.

㉝ 볏다 : 보끄다 (보깜쩌, 보깜서라, 보까라, 보끄곡, 보깡, 보끄민, 보끄난, 보끄라)

· 우리 이 콩 보깡 먹게.

㉞ 죽다 : 죽다 (죽영, 죽으민, 죽으난, 죽으라)

· 늑몰은 싱경 놔두난 호나토 엇이 다 죽어 비엿저.

㉟ 가물다 : 2물다 (2물앗저, 2물고, 2물아도, 2물아부난, 2물민, 2물난)

- 아이고, 날새가 불이 나게 땅땅 꺾물암쩌.
- ③6 무겁다 : 버치다, 뻔뻔히다 (버쳐라, 버치곡, 버쳐도, 버컨, 버치결랑, 버치난)
 · 그 짐은 뻔뻔 해연, 호마 죽어지커라라.
 · 그건 막 비칩데다.
- ③7 (머리) 빗다 : 빗다 (빗어도, 빗엉, 빗곡, 빗으민, 빗으난, 빗으라)
 · 그 머리 췌빗으로 잘 빗으라.
- ③8 귀찮다 : 진치않다, 진찮다, 진치 아니다 (진차너라, 진치아니고, 진치아너도, 진차난, 진치아너거들랑, 진치안으난)
 · 이거 무사 영 사름 진치 아니게 해염시니?
- ③9 곱다 : 알리다 (알렘쩌, 알려라, 알려도, 알런, 알리민, 알리난)
 · 아이구 야 무시거로 손 찢렁 손 막 알렘쩌.
- ④0 잃다 : 일러먹다. 일러비었저, 일러먹었저 (일러먹곡, 일러먹어도, 일러먹엉)
 · 아이고 나 시젠 일러비었저게.
- ④1 짧다 : 졸르다 (졸라라, 졸르고, 졸라도, 졸랑, 졸르결랑, 졸르난)
 · 줄은 졸란 아니되켜, 이서야 되켜.
- ④2 아프다 : 아프다 (아파라, 아프곡, 아파도, 아판, 아프민, 아프난)
 · 아이고 칼 문직단 손가괵이 그쳐부난 막 아프다게.
- ④3 먹다 : 먹다 (먹어라, 먹곡, 먹어도, 먹엉, 먹으난, 먹으민, 먹으라)
 · 밥 하영 먹으라.
- ④4 다듬다 : 꺾콜이 꼴리우다
 · 그 솜키 꼴리우라. 구진 것덜 들게 말앙.
- ④5 춥다 : 칩다, 얼다, 파쌍 얼다 (얼어라, 얼다, 얼어도, 얼엉, 얼민, 어난)
 · 아이고 파쌍 얼다, 저 물체나 호나 더 입으라.
- ④6 씻다 : 시시다, 씻다 (시섬서라, 시셔도, 시시민, 시스난, 시스라)
 · 저레 강 뇷 시스라.
 · 나 솜키 시시레 감쩌.
- ④7 부끄럽다 : 비체롭다, 부처롭다, 비치롭다 (비치롭곡, 비치로와도, 비치로왕, 비치롭결랑, 비치로우난)

- ④8 싫다 : 실프다 (실퍼라, 실프곡, 실퍼도, 실프민, 실프난)
 · 난 가기 실프다. 나 아니 가키여.
 · 나 먹기 실프다. 나 아니 먹키여.
- ④9 슬프다 : 실프다, 을큰허다
- ⑤0 (반지) 끼다 : 찌다 (찌서라, 찌도, 찌, 찌민, 찌난, 찌라).
 · 느도 까락지 허나 상 찌라.
- ⑤1 깨끗하다 : ㄹ꼴허다
- ⑤2 타다 : 카다 (칸다, 카곡, 카도, 캡, 카민, 카난)
 · 이저 무싱저 막 카는 내 남찌.
 · 오래 앓정 내블민 물 다 보땅 다 카분다.
- ⑤3 더럽다 : 치접허다, 추접허다, 데롭다
 · 이저 먹도 못허켜, 데롭다.
- ⑤4 만지다 : 문직다, 거찌다
- ⑤5 나쁘다 : 굿다(굿어라, 굿곡, 굿어도, 굿이난, 굿이민)
- ⑤6 꼬집다 : 줍아톨르다
 · 그 쟁이 잡당 손 줍아톨라 비여.
 · 야, 무사 그 아이 경 줍아톨랍다?
- ⑤7 (벌을) 찍다 : 불춘다
- ⑤8 (벌을) 주다 : 척헌다
- ⑤9 아깝다, 안타깝다 : 아사롭다
- ⑥0 움켜잡다 : 안주다

2. 냄새에 대한 표현

- ① 풀 냄새 나다 : 풀내 나다
 · 호박늪 데울 댜 풀내 나지 말게 데우라.
- ② 고소하다 : 코시롱허다
 · 이 촌웬 잘 익어신ㄹ라 코시롱헌 내 남찌.
- ③ 고기 변한 냄새 : ㄹ랑내가 팡팡.
 · 그 피진 해당 노난에 ㄹ랑내가 팡팡.

- ④ 타는 냄새 : 그끄렁내
· 야, 밥 칸 생이여, 그끄렁내 남찌.
- ⑤ 식초 냄새 : 친내(чит내)
· 아이고, 이 국엔 친내만 광광 남다.
- ⑥ 장마때 나는 냄새 : 맛내
· 아이고, 세답은 빨앙 너난에 곰팡이 피언 맛내만 광광 남찌.
- ⑦ 발냄새 : 아움내
· 발 잘 씻엉 오라. 발에서 아움내가 광광 남찌.
- ⑧ 바닷냄새(갯내음) : 갯물내, 갯물내
· 갯물내가 광광 올라오람찌.
- ⑨ 밥이 잘 익어가는 냄새 : 마신내
· 마신내 남찌.
- ⑩ 외양간에서 나는 냄새 : 쇠똥내
· 쇠왕에 가난 쇠똥내만 광광 나라.

3. 모양에 대한 표현

- ① 담고냥은 비릉비릉
· 들은 보난 엉글랑당글랑. (왕글랑당글랑)
- ② 왕시랑허다, 왕상허다. (가시덤불이나 머리가 흐트러진 모양)
· 구쟁이 딱살 왕시랑헌 게 느 손 필른다. 문직지 말라.
- ③ 범벅졌저, 범블래기졌저, 범뎡이졌저 (엉기다, 엉키다)
- ④ 여믄여믄 (열매가 실속있게 꽉 찬 모양)
· 밧되 강 보난 콩은 여믄여믄 해서라.
- ⑤ 너팍너팍
· 콩섰만 너팍너팍해서라.
- ⑥ 지락지락 (열매가 많이 달린 모양)
· 밧되 강 보난 콩은 지락지락 열아서라.

4. 맛에 대한 표현

- ① 맵다 : 하허다
· 매운 고치 먹으면 하허에. 먹지 말라.
- ② 짜다 : 짤짤허다
· 이 국은 무사 열 짤짤허니?
- ③ 쓰다 : 칼칼씨다, 카카씨다, 카카쓰다.
· 약은 딸령 먹으면 카카쓴만 허다.
- ④ 싱겁다 : 심심허다
· 야, 이 국 근장은 죽게 되시나? 심심허다.
- ⑤ 달다 : 돌홉허다, 들큰허다
· 그 사탕 먹으면 돌홉허다.
- ⑥ 차다 : 뇌가 실리다
· 아이고, 얼음 먹으면 뇌가 실리완 못살켜.
- ⑦ 뜨겁다 : 파싹 데불다
· 아이고 파싹 데벼라.
- ⑧ 시다 : 독허다
· 아이고 짐치도 독헌독헌헌게.
- ⑨ 뻘다 : 찌락지다, 찌락찌락허다
· 그 감 먹으면 찌락찌락헌 게 못먹키여
- ⑩ 느끼하다 : 닝크랑허다, 늘크랑허다
· 지름 이신 거 먹으면 막 닝크랑허다.
- ⑪ 살코기 먹을 때 : 또락또락허다
· 요 괴진 또락또락헌 게 먹음직허다.
- ⑫ बे지근허다
· 이 돔피기 먹으면 बे지근허다.
- ⑬ 먹을 만허다
· 이 상초 쌈 싸먹으면 먹을 만허다.
- ⑭ 코시롱허다
· 이 국 먹어보난 코시롱허다. 마싯져.

5. 촉감에 대한 표현

- ① 시원하다 : 씨원허다
·야, 덥다. 물에 들어가난 씨원허냐?
- ② 차갑다 : 실리다
·이 물은 실련 오래 앓지 못허쿠다.
- ③ 산드룩허다
·몸 곱안 오난 산드룩허다.
- ④ 보들보들하다 : 문지락허다
·요저 문직으난 문지락헌 게 춤 좋다.
- ⑤ 부드럽다 : 복쌉허다
·요 소겐 문직으난 복쌉허다.
- ⑥ 뜨겁다 : 데어불다. 파쌉 데어불다
·아이고 데어불다게, 그 불 즈그마니 숨으라.
- ⑦ 미끄럽다 : 밍끄릅다, 닝끼리다
·눈 외부난 질렌 막 밍끄러울 거라 게.
·질이 막 닝끼리우난 멍싹행 걸라이.
- ⑧ 끈적끈적하다 : 비살비잘허다, 삐작삐작허다
·그 청 문직으난 손에 비잘비잘허다야.
·청이 손에 삐작삐작 붙었저.
- ⑨ 치락치락허다
·땀이 나난 몸이 치락치락허다. 몸곰아시민 좋켜.
- ⑩ 가렵다 : ㄹ릅다
·몸이 막 ㄹ릅다.
- ⑪ 찻다 : 파쌉 얼다
- ⑫ (마루가) 거칠다 : 꺼칠꺼칠허다
·이 마리가 꺼칠꺼칠허다. 잘 닦아사켜.
- ⑬ 매끈하다 : 민지락허다
- ⑭ 따뜻하다 : 멘 드롱허다

6. 색깔에 대한 표현

① 빨간색 계통

· 붉은 색 / 벌겍하다 / 불꽃하다 / 바알강하다 / 빨강현 색 / 불그롱하다 / 불그롱하다 / 분홍색

② 노란색 계통

· 노랑색 / 놀랑현 색 / 느린 색 / 느리롱하다 / 누렁하다 / 느리스룩하다 / 느리수롱하다.

③ 흰색 : 허영하다.

④ 파랑색 계통

· 퍼렁하다 / 푸린 색 / 푸르릉하다.

⑤ 검은색

· 검은색 / 거무롱하다

⑥ 보라색 : 가지색

⑦ 자주색 : 즈지색

IV. 其 他

1. 기음 종류 (검질 종내기)

콩풀 / 진풀 / 부뜨롱풀 / 재완지 / 마라지 / 쇠비늬 / 춤비늬 / 비늬남 / 매막굴 / 해바래기 / 독자굴 / 버꿀래기 검질 / 고치풀 / 쇠터럭 / 울리 / 두래기낭.

2. 의복

1) 옷옷

① 적삼 : 안 아니 노양 행 입는 거

② 저구리 : 안 노양 행 입는 거

③ 물체 : 저구리 우튀 입는 것고라 물체랜 현다

2) 아래옷

- ① 중이 : 아래옷, 훈착 가달에 네쪽씩 붙여 입었주
 ② 굴징이(굴중이)
 ③ 치메 : 미령을 으덥쪽 붙여 입으면 막 누람지 치메 ㄱ치 이만은 벌려진
 다게

3) 발

- ① 버선 : 보선
 ② 양말 : 대비
 ③ 신발
 ㄱ) 초신(산디 칩신) : 뱃 난 날은 산디칩으로 삼앙 산디 칩신을 신곡.
 ㄴ) 남신 : 저울에나 비 온 날은 낭으로 맨든 남신을 신곡.
 ㄷ) 창신 : 부제나 높은 사름덜은 고무신 님은 신에 발창에 준지(단추) ㄱ치 바롱바
 롱허게서리 박은 창신을 신었주.
 ㄹ) 조리 : 게따 ㄱ치 조리도 삼앙 신어나서.

3. 인체부위 명칭

- ① 손가락
 어금 손가락 / 안주왜기 손가락 · 상 손가락 / 노니애기 손가락 / 생끼 손가
 락
 ② 손마디 : 손막작
 ③ 팔목 · 손목 : 흘목
 ④ 발목 : 발귀마리, 발꾸마리
 ⑤ 무릎 : 무렵, 돛무렵
 ⑥ 발뒤축 : 발치기
 ⑦ 허벅다리 : 엉치
 ⑧ 허리 : 허리

- ⑨ 어깨 : 득지 · 어깨 득지
- ⑩ 멧얼판 · 멧에판
- ⑪ 겨드랑이 : 즈깁이 알
- ⑫ 팔굽 : 폴굽이
- ⑬ 컷볼 : 컷봉
- ⑭ 눈썹 위 : 눈우뚜께 , 눈뚜께위
- ⑮ 이마 : 이멧이, 이멧판
- ⑯ 머리 : 대가리
- ⑰ 볼 : 얼굴볼치, 양지
- ⑱ 뒷고개 : 뒷야가지
- ⑲ 목 : 야가지
- ⑳ 인중 : 임중
- ㉑ 턱 : 아쿨탁
- ㉒ 목젓 : 목꾸레
- ㉓ 다리 : 가달

4. 기후

- ① 무지개 : 황고지
 - 어둑어갈 때 황고지가 나오면 뒷날 날이 존덴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딱 끈어진 전 목 빈 황고지라고 했주.
- ② 구름 : 번 구름, 검은 구름
 - 번 구름은 절로 영 올라오는 헤영현 구름이고, 검은 구름은 거무롱현 구름.
- ③ 파도
 - 누>나부리>파도.
 - 브름부난 누도 썬영.

V. 地 名⁴⁾

1. 감백이물(甘朴水) : 2554임 일대.
2. 갑지물 : 1401-1임 일대.
3. 강다랏동산 : 2113-1전 일대.
4. 江達 : 2464-4전 일대.
5. 개나물 : 2738임 일대.
6. 개미동산 : (蟻童山) : 229전 일대.
7. 巨頭員 : 1110-1대 일대.
8. 고치곶동산 : 1103임 일대.
9. 골미당 : 2517-1임 일대.
10. 곰베물 : 2408전 일대.
11. 官田 : 561전 일대.
12. 廣堂池 : 1444-2임 일대.
13. 廣白童山 : 1514-1임 일대.
14. 구진물통 : 2075-2임 일대.
15. 굼벵이동산 : 187묘 일대.
16. 관돌(塊因峯) : 1777-1전 일대.
17. 광이물 : 1305전 일대.
18. 낭근이왓 : 144임 일대.
19. 내통(川桶員) : 844-1전 일대.
20. 냇빌레 : 660-1임 일대.
21. 너벽동산 : 1381전 일대.
22. 노맹이빌레 : 182-1임 일대.
23. 다려물동산 : 76-1임 일대.
24. 담단이 : 2633임 일대.
25. 담단이동산 : 612전 일대.
26. 당빌레(唐飛來) : 659-1전 일대.
27. 도깨비통 : 497-1전 일대.
28. 도는물 : 92-2전 일대.
29. 도시수물 : 2812임 일대.
30. 돌개쇠왓 : 1321전 일대.
31. 돌개침 : 683대 일대.
32. 돌갠동산 : 440-2묘 일대.
33. 돌혹(石或) : 1560-1임 일대.
34. 돤베남밭(畝南田) : 1407-4임 일대.
35. 동개얏(東浦) : 743임 앞.
36. 덧냉이동산 : 1546-1전 일대.
37. 두려물(斗與水) : 427묘 일대.
38. 뒷갯개 : 80임 앞.
39. 馬政臥 : 2535전 일대.
40. 매므루 : 1809-3전 일대.
41. 먹돌개 : 678-1임 일대.
42. 먹병디 : 751-2대 일대.
43. 메괴伊谷 : 1622-3담 일대.
44. 明池水 : 459-1전 일대.
45. 모낭개(某南塊) : 2652임 일대.
46. 므른조동산 : 1695-2임 일대.
47. 某恩條 : 1912임 일대.
48. 묵은열운이 : 2357전 일대.
49. 물곰밭동산 : 604묘 일대.
50. 박각이(박교지) : 1231임 앞.
51. 박다리물 : 2639묘 일대.
52. 朴水勿 : 2611임 일대.
53. 拜口池 : 1606-2임 일대.
54. 白童山 : 1192대 일대.
55. 배래기통 : 1851-1묘 일대.
56. 빈비골 : 2698임 일대.

4) 漢字表記는 溫平里 사무소에 보관된 토지대장에 따른 것임. 배열은 가나다순이며 地番은 남제주군청의 세원조사도에 표시된 것을 이용한 것이다.

57. 빌레왓 : 764-1전 일대.
58. 볼그못 : 133-2묘 일대.
59. 산물통(生水桶) : 2010-1전 일대.
60. 上畚員 : 537대 일대.
61. 상덕동산(鄉都童山) : 941-1대 일대.
62. 생빛드르(成賓員) : 1530전 일대.
63. 생이물 : 2487-3임 일대.
64. 西根塊 : 2067-1임 일대.
65. 서근여 : 10임 일대.
66. 西川谷 : 776-1전 일대.
67. 서천목(西川木) : 666-2전 일대.
68. 설피기 : 2237전 일대.
69. 섯골(西谷) : 1474-1묘 일대.
70. 세커리 : 783-1전 일대.
71. 췌동산 : 1196전 일대.
72. 솔따리(率達伊) : 1753-1전 일대.
73. 수늘 : 1949임 일대.
74. 수성마지 : 1229전 앞.
75. 시령통버디물 : 2309전 일대.
76. 신종지 : 1867임 일대.
77. 심돌뱅뒤 : 2282전 일대.
78. 안캐머리 : 1116대 앞.
79. 알강달(內江達) : 2152임 일대.
80. 알빠르 : 1220-1임 앞.
81. 애기죽은놀 : 1298전 앞.
82. 억캐왓(億海員) : 351임 일대.
83. 영불턱 : 738전 앞
84. 여마진개 : 1200전 일대.
85. 力始笭 : 2287임 일대.
86. 연더(봉화대) : 1140-1전 일대
87. 연더드르(烟始笭) : 1347-2임 일대.
88. 연더못(烟始池) : 1329전 일대.
89. 연수물(連水) : 2591임 일대.
90. 용머리 : 1118-2전 앞.
91. 우논못 : 579-2대 일대.
92. 웃가왕리(上加貢伊) : 2077-2전 일대.
93. 장남드르(當南月伊) : 507-3전 일대.
94. 장수물(長水勿) : 2267-1전 일대.
95. 長旨 : 2401전 일대.
96. 장지드르(長歸月) : 1424전 일대.
97. 제석동산(祭石童山) : 1634전 일대.
98. 地畚 : 1502-2임 일대.
99. 진동산 : 685임 일대.
100. 진물 : 2503-1임 일대.
101. 진생이(陳生伊) : 2292전 일대.
102. 채선동산 : 2669임 일대.
103. 큰남밭 : 2482-1전 일대.
104. 풀망머르 : 1210-1임 일대.
105. 풀못 : 1222-2전 일대.
106. 下廣童山 : 1159전 일대.
107. 漢池勿 : 2563임 일대.
108. 船頭員 : 1076전 일대.
109. 婚姻池 : 1978전 일대.
110. 火空台下 : 1309-2전 일대.
111. 화성개 : 691-2임 앞.
112. 황루알 : 737-2전 앞.

〈提 報 者〉

- 양송백 · (81 · 女)
- 康忠彦 · (80 · 男)
- 현재옥 · (73 · 女)
- 김유생 · (68 · 女)
- 강안봉 · (57 · 女)

民 謠

目 次

I. 勞動謠

1. 맷돌노래
2. 방아노래
3. 연자매노래
4. 흙덩이 바수는 노래
5. 밭 밟는 노래
6. 김매는 노래
7. 타작노래
8. 보리 훑는 노래
9. 해너노래

II. 唱民謠

1. 서우젯소리
2. 산천조목

III. 童謠

1. 動植物謠
2. 天體氣象謠
3. 諷笑謠
4. 遊戲謠
5. 語戲謠
6. 자장가

이번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 민요 조사에서는 勞動謠·唱民謠·童謠에 걸쳐 그 전승여부를 확인, 채록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그리고 전승여부를 확인하는 도중, 회귀하게 전승되는 〈보리 훑는 노래〉와 〈흙덩이 바수는 노래〉를 채록할 수 있었음은 이번 조사의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요 채록에서 나타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노년층에서는 動植物謠와 天體氣象謠가 주를 이루는 반면, 어린이들에게서는 遊戲謠와 諷刺的 要素를 담고 있는 語戲謠가 유행되고 있다는 데서 사회 변화의 재미있는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양송백 할머니의 무궁무진한 민요의 口演, 현회주 할머니댁에서 반원 전체가 한바탕 어울렸던 마당판의 흥겨움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짧은 조사 기

간이었지만, 이만큼의 민요들을 채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제보자들의 협조가 컸음을 밝히면서 뜨겁게 감사드린다.

너무 단조롭거나 사실 자체가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경우는 제외했으며 표기는 제보자 발음에 따라 제주어표기법시안에 충실하도록 노력했고, 어린이들이 부르는 童謠인 경우에는 대체로 표준어에 준했다. 지면 관계로 現場論의 調查方法에 따른 口演狀況, 提報者 解說, 辭說 註解를 明記하지 못하고 사실 소개에 그치게 됨을 안타깝게 여긴다.

I. 勞 動 謠

1. 멧돌노래

- | | |
|----------|---------|
| A. 이여이여 | 이여여동 하라 |
| B. 이연이연 | 이여동 하라 |
| A. 이여방에 | 고들베 짱영 |
| B. 이여방에라 | 고들베 짱영 |
| A. 즈냐이나 | 붉은때 하라 |
| B. 즈냐이나 | 붉은때 하라 |
| A. 본디즈냐 | 어둡는집의 |
| B. 본디즈냐 | 어둡는집의 |
| A. 오늘이영 | 붉은때 하라 |
| B. 오늘이영 | 붉은때 하라 |

(A : 송금철, 여·71, B : 현희주, 여·72,
현재옥, 여·73)

2. 방아노래

2-1.

- | | |
|------|--------|
| 이여이여 | 이여동 하라 |
| 이여방에 | 이여동 하라 |

이여방에	고들베 짱영
즈냐이나	붉은때 하라
본디즈냐	어둡는집의
오놀이영	붉은때 하라
가시오름	강당장침의
식쿨방에	새글럼서라
우리성젠	삼성제드난
으섯쿨도	새맛암서라
고랑좁술	늑엇이먹영
[칭취불능]	
가시어멍	문어랜밭디
가시덤불	짓어라 혼다
눔의어멍	말엇이난
다슴어멍	말엇이난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현희주, 여·72)

3. 연자매노래

이여사	이여사
밀리라	동기라
이여사	이여사
어가농창	가는차는
정심참도	늘어진다
어서밀리라	어서동기라
돌궤도	재개밀어사
시간바삐	굴아진다

이여도사나

밀리라동기라 밀리라동기라

물궤도 재계안동기민

시간천추 [청취불능]

밀리라동기라 이여도사나
(양송백, 여·81)

4. 흙덩이 바수는 노래

요놈의병명이 깨어나지라
 이야도곰베

요놈의풀덩거리 깨어나지라
 이야도곰베

요놈의곰베 깨어지라

요놈의곰베 흑병명이깨라
 어기야차 어기야차

 어가홍아 어가홍

(양송백, 여·81)

5. 발 밟는 노래

어러러러로 호호호호 열렬렬렬 외랑 몰아들라 몰아들라 안테레 몰아들라
어허허허 허흥 어러 오료료료 열렬렬렬 어이효 월렬렬렬 외랑 어러러어러
러호호 열렬렬렬 외랑 돌아나오라 워러러 어기야디야 하 월렬렬렬 외랑

(현희주, 여·72)

6. 김매는 노래

6-1

어야디야 방아로고나

훈저덜메라 훈저메라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흔저메라	정심참도
정심참이	늘어나진다
재계메라	
어야디야	방아로고나
어서나메자	어서나메자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요렇게호민	사름도살전마는
청천하늘엔	준별도많다
요내가슴엔	수심도많다
시냇가엔	자갈도많다
어야디야	방에로다
노세노세	끓어나노세
늪어지민	몬노누니
어서메자	어서나메자
능죽낭죽	벌어진풀을
양곳문착	퀘영노라
아이구기어	몬호키여
종에도아프고	풀도아프고
요렇게호민	천년을살것가
요리호민	만년을살것가
천년이나	만년이나살민
좋지마는	잘살앙봐야
단팔십이여	

어아디아 방아로고나
 놀아놀아 젊은때놀아
 늙어지민 몬노는다

어서메라 어서나메라
 일락서산에다 해떨어진다
 어서메라 즈냐이나
 붉은때 하게 훈저나메라

우리어멍 날날적원
 공부도 안시켜주곡
 요런검질만 메렌나시라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좋안디긋언디
 대롱대단 열두폭치메가
 울울이 찢어져 다나감네다
 (양송백, 여·81)

6-2.

- A. 검질짓곡 골너븐밧되
- B. 어기야도리 방에로고나
- A. 굴근국작 메여나보자
- B. 어기야도리 방에로고나
- A.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 B.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 A.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 B.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 A. 앞발로랑 허우치멍
- B. 앞발로랑 허우치멍

- | | |
|----------|--------|
| A. 뒷발로랑 | 거두치멍 |
| B. 뒷발로랑 | 거두치멍 |
| A. 스랑스랑 | 내스랑이나 |
| B. 스랑스랑 | 내스랑이나 |
| A. 좁쌀ㄱ찌 | 노린스랑 |
| B. 좁쌀ㄱ찌 | 노린스랑 |
| A. 피쌀ㄱ찌 | 좁진스랑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큰쌀ㄱ찌 | 능근스랑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새는족아도 | [칭취불농]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쥐는족아도 | 궁기만친다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황새ㄱ찌 | 노픈눔아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노픈산에 | 눈놀이멍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여튼산에 | 재놀이듯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역수장마에 | 비퍼붓듯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대천바탕 | 물밀어오듯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우리적군 | 근실도흐다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은을잇엉 | 은을주멍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금을잇엉 | 금을주랴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 | |
|----------|-------|
| A. 혼번가민 | 몬오는인생 |
| B. 산때미영 | 눔이나퀘라 |
| A.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B. 벵툼불곡 | 비울줄알민 |
| A. 어떤잡년 | 빨래질가멍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어기야어용 | 사테로다 |
| B. 어기야디야 | 검질을메자 |
| A. 사테불령 | 검질을메자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 A. 검질버친 | 노래로고나 |
| B. 어기야도리 | 방에로고나 |

(A : 송금칠, 여·71, B : 현희주, 여·72)

7. 타작노래

7-1.

어야홍아어어	어야도홍야
노픈동산	누게나앞고
설문정베	앞이로고나
어야홍아어어	어야도홍야

전성곳언	구월에나난
구월꽃도	벗이러라
어야도홍야어어	어야도홍야

모로치멍	두드리자
어야도홍야어어	어야도홍야

노픈동산의	누게나앞고
-------	-------

설문정네	앞이로고나	
모를심엉	두드리자	
어야도 할야어어		어야도 할야어어
어가홍		어가홍

(양송백, 여·81)

7-2.

A. 어야홍	B. 어야도하야
설문정네	어야도하야
앞이로다	어야도하야
어서 할자	어야도하야
올로요래	어야도하야
따려보자	어야도하야
올로요래	어야도하야
모드들라	어야도하야
모로들령	어야도하야
따려보자	어야도하야

(A : 송금철, 여·71, B : 현희주, 여·72)

8. 보리 훑는 노래

명칭ㄴ뜨	하늘님아
날이나	좋아줍서
오늘도	비가오고
보린훑타	봐노민
이삭이	나는구나
명칭ㄴ뜨	하늘님아
벤티나	나줍서
요보리	훑타노난
보린점점	이삭만나고
날은아니	좋암구나

(양송백, 여·81)

9. 해녀노래

9-1.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흔믄루랑	늘고가고
흔믄루랑	쉬고가자
쳐라	어기어디야

이팔청춘	요네나에
중착이사	놈을준덜
상착이사	놈을주랴
쳐라	

하네심은	선주님아
[청취불능]	발라주소
적가래로	몰아간다
쳐라	쳐라박이여

눈이붉은	선왕님아
물건좋은	여꿏들로
득달흙서	

생복좋은	등믄을로
메역좋은	여꿏들로
흔물거레	삼천냥씩
두물거레	육천냥씩
쳐라	쳐라박아라
어기야쳐라	

(송금철, 여·71)

9-2.

이어도사나어허	어어도사나어
우리베는	잘도나간다
솔솔가는	소나무베야
잘잘가는	잣나무베라
어가농창	가는베야
정심참도	늘어진다하
어허라가자	이여사나

대동강이	변홀으로
우리임은	아니변홀줄
알았는데	그럴수가없구나

어서가자	어서가자
어서가서	우논애기
젓을주고	즈나밤을
붉은때짙영	먹자구
흔저어서	재게지라
이어도사나	이어서이어서

청청 혼하늘엔	준별도많고야
요베나가슴엔	수심도많더라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좁수나전성	가련하다
아침일찍	집을나가
하루종일	번것은
기가뻑히고	몬살것베
저라희	이어도사나희
쳐라쳐라차	재게가자

하루종일	벌어도
번것은	기가백혀
어서나가자	어서가자
어서나젓엉	어서가서
즈냐이나	붉은때호자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어사	
쳐라쳐라	이어사

(양송백, 여·81)

9-3.

이여사나	이여사나
물이남찌	어서히라
이여도사나	
물이간다	쓴물이간다
동바당테레간다	이여도사나
든물나건	서바당타게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물이난다	
쓴물나건	동바당타게
든물나건	서바당타꼭
이여도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양송백, 여·81)

9-4.

이여도사나어허	이여도사나
벼롬불엉	절개날깃느냐
벼롬부난	파도가세다

어서젓엉	어서나가자
즈냐이나	붉은때 흥영
어린애기	젓을주라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양송백, 여·81)

9-5.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우리베에	선왕님이
만선을	시껏구나
고맙수다	고맙수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어서젓엉	어서가진
우는애기	젓을주게
즈냐이나	붉은때 흥게

오늘은	만스망일언
선왕님이	만선시껏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고맙수다	고맙수다
선왕님아	오늘은
만스망일언	많이 흥고
천금만금	벌어시메
기십 좋게	네젓이라
어서가자	어서가자
쳐라쳐라	쳐라쳐라

(양송백, 여·81)

Ⅱ. 唱 民 謠

1. 서우젯소리

1-1.

어야디야	방아로고나
노세노세	짧어나노세
늪어지민	몬노는다
전싱굿언	구월에나난
구월꽃도	벗이여마는
어야디야	방아로고나
쓴물은나민	동바당타곡
든물랑나진	서바당타자
귀경가자	귀경가자
산천경기	귀경가난
폭포도	아닐러라
산천경기가	여기로고나
어야디야	방아로고나
노세노세	짧어나노세
늪어지민	몬노는다
어야디야	방아로고나
바당의가민	쓴물나진
동바당타곡	
든물랑나진	서바당타자
어서가자	어서가자
물때점점	늘어진다

(양송백, 여·81)

1-2.

A. 혼므루랑 놀고가고

- 훈긋루랑 자고가지
- B. 아하하아양 어허양허어어요
- A. 이물에랑 이사공아
 고물에랑 고사공아
- B. 아하하아양 어허양허어어요
- A. 허릿떠밧되 화장눔아
 물때점점 늦어간다
- B. 아하하아양 어허양허어어요
- A. 서른닷발 닷을돌고
 스물닷발은 돛을돌앙
- B. 아하하아양 어허양허어어요
- A. 열닷발은 치를잡고
 들물나민 동의와당
- B. 아하하아양 어허양허어어요
- A. 쓸물흐민 서의와당
 흥창망창울 흐고가지
- B. 아하하아양 어허양허어어요
- A. 눈이붉은 선왕님아
 앞발로랑 허우치멍
- B. 아하하아양 어허양허어어요
- A. 뒷발로랑 거두치멍
 메역좋은 여곳들로
- B. 아하하아양 어허양허어어요
- A. 혼물거래 삼천냥씩
 두물거래 육천냥씩
- B. 아하하아양 어허양허어어요
- (A : 송금철, 여·71, B : 현희주, 여·72,
 현재욱, 여·73)

2. 산천초목

귀경가세 귀경가세

산천초목	귀경가세
귀경가자	귀경을가자
산천경기	귀경을가자
귀경가난	꼭포도아니고
산천경기가	여기로그나

(양송백, 여·81)

Ⅲ. 童 謠

1. 動植物謠 .

1-1. 꿩노래

꿩 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소?
 남신착에서 콩 보까 먹으멍 살았소
 (양송백, 여·81)

1-2. 뱀노래

앞बाट	장게가라
뒷बाट	장게가라
아니 돌아나민	목을 쫄라 죽인다

(양송백, 여·81)

1-3. 까마귀노래

가마귀야 가마귀야 어디가 오란디?
 뒷집 할망침의 불담으레 가오고라
 무시거 먹으멍 살암서니?
 남신착에 콩 보까 먹으멍 살암서라
 (양송백, 여·81)

1-4. 술개(똥소레기)노래

뱅뱅 돌라	빙아리 주마
뱅뱅 돌라	빙아리 주마

(양송백, 여·81)

1-5. 참새(밥주리)노래

밥주리	육은간에도
아이 못인	구물에 든다
남선비	육은간에도
노일제대귀일의달	홀림에 든다

(양송백, 여·81)

1-6. 방아깨비(핑크이)노래

청산데레 절하라	곤밥 주마
할락산데레 절하라	곤밥 주마
꼬박꼬박 절하라	꼬박꼬박 절하라
주무망데레 절하라	곤밥 주마
종달레레 절하라	곤밥 주마

(양송백, 여·81)

1-7. 매미(왕재열)노래

우리 연이	잘 논다
너네 연은	못 논다
싸움 혼자	싸움 혼자
우리 왕젤	잘 논다
우리 왕젤	잘 논다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왕이다
이기는 건	왕이다
못하는 건	빙신이어

(양송백, 여·81)

1-8. 계(김이)노래

밥하라	국하라
밥하라	국하라
훈저 먹게	훈저 먹게
재계 하라	재계 하라
바각바각	바각바각
밥하라	죽하라
밥하라	죽하라
재계 하라	훈저 먹게
재계 하라	훈저 먹게
재계 하라	재계 하라
바각바각	바각바각

(양송백, 여·81)

1-9. 달팽이노래

창문 올라	곤밥 주마
동문 올라	곤밥 주마

(양송백, 여·81)

1-10. 쇠비늘노래

앞집의	장계 가라
-----	-------

뒷집의 장게가라
 앞밭의 가라 뒷밭의 가라
 앞집의 가라 뒷집의 가라
 (양송백, 여·81)

2. 天體氣象謠

· 비올 때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우리 언니 씨집감چه
 우리 언니 씨집감چه
 비 오지 말라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장통밭의 물 넘어 감چه
 장통밭의 물 넘어 감چه
 비 오지 말라
 (양송백, 여·81)

3. 諷笑謠

3-1. 울던 아이를 놀리며

울던 장클레비 장 혼사발 도라
 뒷집 할망신의 장 혼사발 빌어오라
 (양송백, 여·81)

3-2. 오줌싸개를 놀리며

오줌싸기 똥싸기 뒷집 할망신의 강 소금이나 빌어 오라

오줌싸기 동쌌기 소금 빌레 가라

(양송백, 여·81)

3-3. 머리 깎은 애를 놀리며

애이고 몽키머리조광

애이고 몽키머리어

(양송백, 여·81)

3-4. 이 빠진 애를 놀리며

새×한단 앞정물 래기

우리 앞담 머리전

(양송백, 여·81)

4. 遊戲謠

(1) 원님놀이할 때

훈개 인개 거청개

어어 장장 신자 노자 버문개

(양송백, 여·81)

(2) 공놀이할 때

(2)-1.

시작하는 일학년 일학년도 싫어서 일만일천봉

시작하는 이학년 이학년도 싫어서 이만이천봉

시작하는 삼학년 삼학년도 싫어서 삼만삼천봉

시작하는 사학년 사학년도 싫어서 사만사천봉

시작하는 오학년 오학년도 싫어서 오만오천봉
 시작하는 육학년 육학년도 싫어서 육만육천봉
 시작하는 칠학년 칠학년도 싫어서 칠만칠천봉
 시작하는 팔학년 팔학년도 싫어서 팔만팔천봉
 시작하는 구학년 구학년도 싫어서 구만구천봉
 시작하는 십학년 십학년도 싫어서 십만십천봉
 (송은경, 여·13외 11인)

(2)-2.

할미꽃 마을에 고개 숙이고요
 오늘도 먹을 것을 걱정하시나요
 고개너머 시집간 막내동이 아가씨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궁금하데요
 하-데-요

(송은경, 여·13외 11인)

(2)-3.

꽃피는 동산에 방방곡곡에는
 대한의 아가야 우리 아가야
 손과 손에 맞잡고
 손과 손에 맞잡고
 꽃피는 동산에 산과 들로 갈까요

(송은경, 여·13외 11인)

(3) 고무줄놀이할 때

(3)-1.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바퀴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조수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여기는 서울역 내려주세요
운전수 아저씨 고맙습니다

(송은경, 여·13외 11인)

(3)-2.

장난감 기차가 칩칩 달려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 방에 있는 우리 아가한테
갖다주러 갑니다.

(송은경, 여·13외 11인)

(3)-3.

콩나물 사세요 콩나물
콩나물 사세요 콩나물
아저씨가 사다주신 콩나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콩나물이에요

(송은경, 여·13외 11인)

(3)-4.

선아 선아 김영선아
너의 엄마 어디 가셨니
너의 엄마 배를 타고
압록강에 놀러가셨지

(송은경, 여·13외 11인)

(3)-5.

떡다구리 구리 마이너스
마이너스케키가 맛좋아
인도 인도 인도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오렌지 클피스

(송은경, 여·13외 11인)

(3)-6.

울챙이가 배가 불러서

앞다리가 쪼

뒷다리가 쪼

(송은경, 여·13외 11인)

(3)-7.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가셨나요

불쌍한 저를 버리고 어디 가셨나요

비가 오면은 기다리고요

엄마 아빠 보고싶어 울었답니다.

(송은경, 여·13외 11인)

(3)-8.

가랑잎 데굴데굴 어디를 가느냐

벌거벗은 이 몸이 춥고 추워서

따뜻한 봄날을 찾아갑니다.

(송은경, 여·13외 11인)

(3)-9.

월계 화계 수수 목단 금단 초단 일

(송은경, 여·13외 11인)

(3)-10.

심심 간다 간다 우리 오빠는

전장에 나가 이겨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겨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신다

어머니 아버지 기다리신다

(송은경, 여·13외 11인)

(3)-11.

정월이요 이월이요 삼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와

이땅에도 새 봄이 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송은경, 여·13외 11인)

(4) 줄놀이할 때

(4)-1.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송은경, 여·13외 11인)

(4)-2.

할망 들어온다

두부장수 들어온다

색씨 들어온다

너구리 들어온다

할망 나가

두부장수 나가

색씨 나가

너구리 나가

(송은경, 여·13외 11인)

(4)-3.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모자 벗고 들어갑시다

무얼 할까요

밥상 치워라

엎어졌어요

요강 치워라

깨어졌어요

애기 보아라

죽었어요

이놈 죽일놈 잡아먹을 놈

(송은경, 여·13외 11인)

(4)-4.

A. 어머니

학교

선생님

몇점

어머니

빵점

어머니

학교

선생님

몇점

어머니

오십점

B. 무사

가라

무사

빵점

무사

공부 잘 해라

무사

가라

무사

오십점

무사

공부 잘 해라

어머니	무사
학교	가라
선생님	무사
몇점	백점
어머니	무사
백점	나가 놀아라

(송은경, 여·13외 11인)

(4)-5

김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가위 바위 보

(송은경, 여·13외 11인)

(5) 손놀이할 때

(5)-1.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드래요
 샴파샴파 하이샴파 얼마나 울었을까요
 샴파샴파 하이샴파 천 구백 팔십 육년도

(송은경, 여·13외 11인)

(5)-2.

감자가 싹이 나서 잎파리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송은경, 여·13외 11인)

(5)-3.

잼 먹고 잼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오무라이 뽀뽀 오무라이 뽀뽀
시냇가에 나가보니 개미 한 마리
(송은경, 여·13외 11인)

(5)-4.

빈데 빈데 빈데 뽀
가나다라마바사
우리 우리 우리는
주먹 뽀 가위 뽀 바닥 뽀
(송은경, 여·13외 11인)

(5)-5.

옹해야 종해야 도시라코 예
도시라코 코코 도시라코 예
도시라코 빠이빠이 도시라코 예
도시라코 안녕 도시라코 예
(송은경, 여·13외 11인)

(5)-6.

꽃사세요 꽃사세요 장미꽃을 사세요
장미꽃을 안사려면 국화꽃을 사세요
엄마엄마 나죽결랑 앞산에도 묻지마
뒷산에도 묻지말고 양지쪽에 묻어줘
비가오면 덜어주고 눈이오면 쓸어주
내친구가 찾아오면 죽었다말 하지마
(송은경, 여·13외 11인)

(5)-7.

오란다빵 사라다빵 앙꼬빵 찌빵 만두빵

목마를 땀 목장우유 오렌지쥬스 코카콜라
밀짚모자 눌러쓰고 그대와 윙크할 때면
나도 살짝 그대에게 사랑의 윙크하지요

(송은경, 여·13외 11인)

(6) 줄을 지어 놀이할 때

동동 동대문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 남대문을 열어라

(송은경, 여·13외 11인)

5. 語戲謠

5-1. 꼬리따기

왕숭이 똥꼬망은 빨강
빨강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건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 건 바다
바다는 짜다
짠 건 소금
소금은 희다

흰 건 토끼
 토끼는 뛰다
 뛰는 건 공
 공은 둥글다
 둥근 건 지구

(송은경, 여·13외 11인)

5-2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세수한다
 멧장이
 밥먹는다
 무슨 반찬에
 개구리 반찬에
 산거 죽은거
 산거 (또는) 죽은거

(송은경, 여·13외 11인)

5-3

수학시간엔 심형래 잘 모르겠는데요.
 냉장고 속엔 박세민 냉장고를 녹이는 남자
 지하실 속엔 전영록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냇가 옆에는 김병조 쪼개 깔쩍지근하다.
 전쟁터에는 김형곤 무서워
 엄마 품속엔 최병서 좋아 좋아
 감옥소에는 윤시내 벗어나고파

(송은경, 여·13외 11인)

6. 자장가

6-1.

왕이자랑	곰양자랑
자랑자랑	어서자라
부모에랑	효심 땡이
나라에랑	충신 땡이
동네방상	인물 땡이
일가방상	화목 땡이
왕이자랑	왕이자랑
물아래랑	옥돌ㄴ찌
제비새랑	알라구리ㄴ뜬
내즌식아	
왕이자랑	곰양자랑

(송금칠, 여·71)

6-2.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어서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돌아오는	새별땡은애기야
흔저	누엇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저자라
가마귀	놀아가는
놀개ㄴ뜬	애기야
흔저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저자라

자다그네	어멍오전
젓먹으라	훈저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왕이	왕이자랑
은즈동아	금즈동아
물아레랑	옥돌ㄹ든
얘기야	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가마귀	준늘개ㄹ뜬아기야
훈저자라	훈저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산천초목	속입난디
귀경가게	귀경가게
넙덜에랑	화목동아
동네레랑	화목동아
훈저자라	훈저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돌아오는	새별ㄹ뜬
나아기야	
훈저자라	훈저자라

(양송백, 여·81)

6-3.

자랑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기	자는소리
금동개도	자는소리
서동개도	자는소리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애기	안재와주민

늑에미영	늑에비영
걸려당	천지소에
드리칭으네	웁이자랑

(현희주, 여·72)

6-4.

자랑자랑	웁이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은즈동아	금즈동아
물아래랑	옥즈동아
웁이자랑	곱앙자랑
곱앙해영	자랑호곡
물아래랑	옥돌ㄱ든내새끼
가마귀랑	존늘개ㄱ찌
부모에랑	효심똥이
나라에랑	충신똥이
일가방상	화목똥이
동네방상	인물똥이
웁이자랑	곱앙자랑
금동개야	서동개야
드리척	내척
총총베로	걸려당
지폰지폰	천지소에
드리치곡	내치곡
웁이자랑	웁이자랑
곱앙해영	자랑호자

(송금철, 여·71)

6-5.

웁이자랑	자랑자랑
------	------

자랑자랑	어서자라
자는것은	좁이로다
노는것은	높이로다
어서자라	자라자라
어진할망쯔손	어서자라
자라자라	우리애기

(현재옥, 여·73)



(밤아노래 구연의 한 장면)

說 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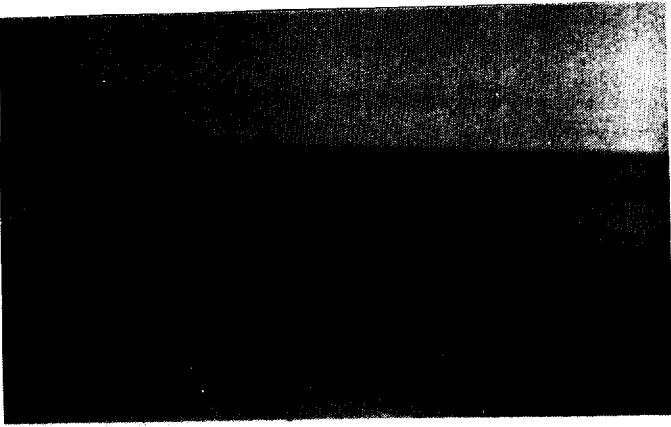
目 次

- | | |
|----------------|-------------------|
| 1. 혼인지 이야기 | 9. 사람의 죽음과 까마귀 |
| 2. 온평리 개국신 | 10. 효자 이야기 |
| 3. 사굴 이야기 | 11. 양자 들이는 이야기(1) |
| 4. 자청비 | 12. 양자 들이는 이야기(2) |
| 5. 콩떡이와 풋떡이(1) | 13. 처와 첩의 제사 |
| 6. 힘센 며느리 이야기 | 14. 효부 이야기 |
| 7. 고려장 이야기 | 15. 콩떡이와 풋떡이(2) |
| 8. 허운 애기 | 16. 남선비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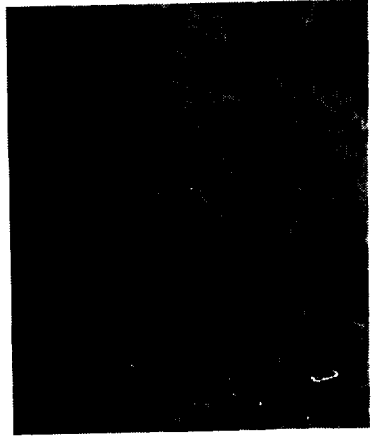
1. 혼인지 이야기

- 성산읍 온평리. 1986. 7. 30. 조사
- 제보자 : 高麗三(남·66세, 성산읍 온평리 983)

옛날엔 사람들이 전부 동굴생활을 한 건 틀림없는다. 그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동굴생활을 하면서 과실도 따먹고 짐승도 잡아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일기도 좋고 하니까 해변가로 내려온 모퉁이야. 거기서 동쪽을 바라보니까 무슨 상자, 케라고도 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을 봐가지고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디, 여기 지금도 잇는 황루알이라고 하는 곳에 닿으니까, 가서 그것을 올려서 보니까, 거기에 오곡 종자와 예쁜 공주가 떠올라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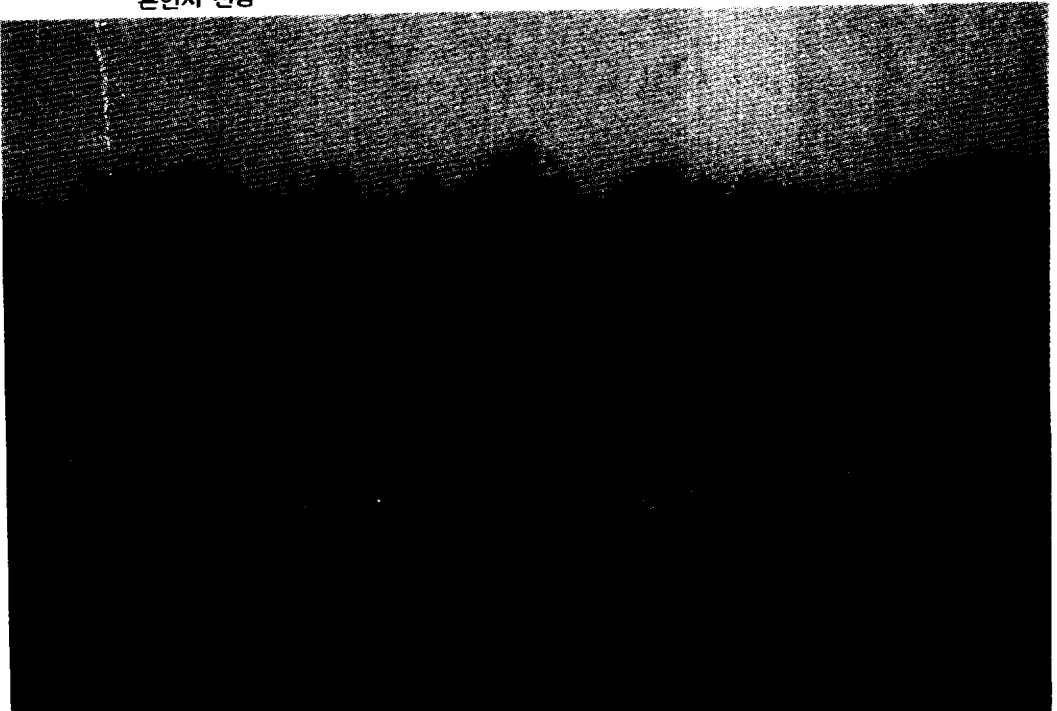


은평리 해안



해안가의 말밭굽

흔인지 전경



한라산에는 옛날부터 약초가 많이 이섯는다, 지금도 성읍리 저쪽으로 가면 백약봉이 있는데, 왜 이름이 백약봉이냐면 백 가지 약초가 그 산과 주위에만 있다고 해서 백약봉이런 허여. 오름도 흔어서 크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약 혼 백미터 정도의 산인데, 그때 진시황이 불로초를 캐오라고 하니까, 그때는 한라산이 아니고 삼신산이라고 했는디, 확실한 이름은 어섯지. 그 공주들이 무슨 말을 하시고 하니까, 틀림어서 약초 캐러 갔다가 낙오된 사람이 잇을 거라고 하면서, 그 배우자를 지어주기 위해서 거기(일본)로 가서 보냈다 이거여. 경허난 어떻게 된 일이나 허민 약초 캐러 간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큰 욕심을 가지고 그만 일본으로 가부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결국은 임금이 댕다는 설도 있고, 좌우간 정치의 빛을 헛댄 허기도 허여. 그런데 그때 간 일행에서 조사해보니까 세 사람의 낙오자가 이섯다는 거여. 그러니까 공주 세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낸 것이 결국은 동쪽 해안으로 제일 먼저 닿은 것이 지금 온평리 황루알로 온 것이여. 그런데, 그때 그 얘기는 일본이라 하지 않고 월랑국(月浪國)이런 해서. 그래서 거기 혼인지에서 목욕도 허고 해서 혼례를 치렀다 해서 혼인지런 허여. 방언으로는 '웬죽'이라고도 허여. 옛날 할아버지들이 혼인지를 '웬죽' '웬죽' 헛댄 허여. 그래서 제주도도 개벽이 댕었다는 이야기여.

2. 온평리 개국신

- 성산읍 온평리. 1986. 7. 30. 조사
- 제보자 : 高麗三(남·66세, 성산읍 온평리 983)

옛날에 한라산에서 잇다가 차츰 내려오는디, 한 할아버지는 김녕으로 내려가고, 한 할아버지는 저쪽 남원으로 내려가고, 한 할아버지는 송당 메뚜기무루라고 혼는 디로 내려왔는디 각 부락을 향해서 내려가서.

저기 개암 용머리가 잇는디, 거기 할아버지가 빠져서 물 속에서도 일주일 살고 물 밖에서도 일주일 살았는디, 나올 때 한 손에는 유리잔, 한 손에는 유리병을 가지고 나왔덴 허여. 옛날에는 유리잔과 유리병이 이섯다고 하는디, 지금은 없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갈 데를 찾아서 헤매다 신산으로도 가볼려고 하다가 온평리가 제일 좋다고 하여 결국은 거기에 머물렀주. 그래서 지금도 그 할아버

지를 모시는데, 보통 아이 아파도 가서 기도 드리고 푸닥거리도 하며 주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매월 칠일날액도 막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주. 그러니까 온평리에서는 말하자면 개국신이니까, 온평리 사람들은 전부 그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모두 보살펴 준다고 하는 거여.

3. 사굴 이야기

· 성산읍 온평리. 1986. 7. 30. 조사

· 제보자: 高麗三(남·66세, 성산읍 온평리 983)

사굴은 뱀굴이라고 해서 머리가 아주 큰 뱀이 살았는디 일년에 한 번은 꼭 희생을 해서 올리지 않으면 막 나와서 민가에도 피해를 주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쁜 처녀를 희생으로 해서 도야지를 잡고 해서 제물을 올리고 해서 일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다.

어떤 목사가 와서 보니까 그런 풍습이 이서 가지고 목사가 알게 뻘지. 그래서 목사가 직접 알아보니까 틀림어서 그렇게 하는데, 처녀를 꼭 한 사람 희생시키고 그 외로 도야지니 제물이니 해서 삼일동안 굶을 하면서 기도를 드려가며는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대사가 나와 가지고 처녀도 들러 먹고 제물이영 먹는다. 이렇게 해서 허니까. 그러면 좋다 나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겠다고 해서 목사가 좋은 물 한필과 부하 몇 사람을 데리고 가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제물로 처녀를 올려 놓고 여러 가지 음식을 올려 놓고 굶을 하는데, 마지막 날 삼일째 굶을 하는데 언제 나오느냐 허니까 이렇게 굶을 해가민, 시간이 되민 나 온덴 허연.

멀리서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큰, 세상 안봐난 그런 큰 뱀이 나오는다, 몸뚱이가 크며 머리는 몸뚱이 보다 크고 현 것이 딱 나와 가지고 거기에 올려 잇는 것을 전부 먹어서. 또 안으로 들어 갈라고 하는 무렵에 목사가 활을 준비해서 간 모양이여. 활을 멀리서 쏘았는데, 대사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은 못했지만 쏘아두고 자기 근무지로 돌아왔는디, 와 보니까 피가 옷에 단 한방울 묻어 이섯던 거여. 피로 인해서 독이 많이 이섯던 모양이여. 그때 뱀이 죽진 죽었는디, 그런데 목사마저 독으로 해서 죽었다는 거여.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뱀이 죽었으니까. 제사도 안지내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대사를 퇴치했엔 허여.

4. 자청비

- 성산읍 온평리. 1986. 7. 30. 조사
- 제보자 : 高麗三(남·66세, 성산읍 온평리 983)

아주 옛날에 자청비가 이섯는디, 자청비가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모양이여. 얼굴도 미너고 머리도 아주 영리했어. 근데, 문수문장 문도령하고 공부를 갖어. 좋은 선생을 찾아서 공부를 허레 갖는디, 거기서 글도 배우고 무예도 배우고 허는디, 선생이 당최 자청비를 당해낼 수가 어섯어. 하날 가르치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치면 세 개, 네 개를 알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굉장히 비상헌디 문수문장 문도령도 머리가 비상하고 허지만 도저히 자청비하고는 상대가 안뵈서. 연 삼년을 같이 공부를 허는디도 자청비가 여잔 여잔디. 삼년 이상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은 방에서 공부를 허고 허는디,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니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집으로 오는디, 아마 공부 허는디가 집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모양이여. 그러니까, 한 며칠 걸어서 오고 허면서 밤들민 같이 누워서 자고 허는디, 자청비가 하루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문수문장 문도령이 어떻게나 바본지 원, 자기가 그래도 여잔 여잔디 모른다는 것이 너무 이상허다 이거여. 자기 신분을 밝혀 줘야 뵈겟다 해서 하루는 “우리 내기나 허자.”고 제안해서, “무슨 내기를 하겠느냐”고 문수문장 문도령이 하니까, “나는 소변을 봐서 기왓집 열 개를 넘길 자신이 잇으니까 그것이 뵈겟느냐”고 문수문장 문도령보고 허니까, “아! 글썽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자신잇냐고 하니까 자신잇다고. 그래서 문수문장 문도령 보고 자청비가 먼저 하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가 먼저 해라. 내기 건 사람이 먼저 허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할 수 없다”고 해서. 경허난 자청비가 “제안자는 나중에 허는 것이지 너부터 먼저 해라. 너하는 거 보면서 나도 헌다.” 이렇게 해서. 경헌디 문수문장 문도령은 막상 해보니까, 해봐야 하나 두 개도 이제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서 소변을 해도 도저히 넘길 수가 어서. 그래서 자청비가 “내가 이제는 헌다.”고 해서 올라가서 소변을 보는디,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그때 기와집을 열한 개를 넘기면서 “너는 아주 바보다. 내가 여자로서 같이 공부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해도 지금까지 여자

남자 구별도 못하는 바보다”고 허멍 문수문장 문도령을 막 냉기러부렸어. 그래서 문수문장 문도령은 막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남자에게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이제 달음박질 내기라도 한번 해보자.”고 하자, “아! 좋다.”고 해서 달음박질을 해서. 서로 뛰어도 역시 자청비한테 떨어져.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과거시험이라도 한 번 같이 가서 보자.”고 하니까, “아! 거 좋다. 그럼 우리 가자.”고 해서 과거시험을 봐도 문수문장 문도령은 떨어져부러. 아, 그러니 “나가 이만큼 자신 있게 모든 걸 했는데 자청비 한티는 도저히 당해내지를 못하겠다”며 문수문장 문도령은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막 탄식을 하니까, 부모님이 “아, 그렇게 해서야 뉘겠느냐? 또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무예도 열심히 닦고 해서 집에 잊지 말고 나가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문수문장 문도령은 “글공비도 가옵니다. 활공비도 가옵니다.”며 동네 사람한테도 선전하면서 또 가서 무예를 다끄고 공부를 해도 자청비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어섯다 허는 얘기에. 그렇게 자청비는 머리로 비상하고 재주도 뛰어났면 허여.

5. 콩뵈이와 쫓뵈이(1)

· 성산읍 온평리. 1986. 7. 30. 조사

· 제보자: 高麗三(남·66세, 성산읍 온평리 983)

옛날에 부부가 서로 살다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부러서.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아버지 혼자만은 살 수 없어서. 딸이 혼난디 딸 혼나 데린 다슴어멍을 데려오라서. 경헨 데리고 온 딸은 쫓뵈이고, 본래 아버지 밑에 잇는 아이는 콩뵈이이라. 그래서 이제 2째 생활을 해 가는데 모든 생활이라는 것이 남자가 보통 일을 허듯이 남편만 일허라니 드르 나가민 콩뵈이를 막 못살게 구는 거라. 자기 데려 온 딸은 일도 통 안시키고. 없는 일도 잇는 것 모양 꾸며가지고 구박하고 콩뵈이는 남편이 들어오면 콩뵈이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말도 잘 안듣다, 일도 잘 안듣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콩뵈이는 자기는 암만 열심히 별 걸 해봐도 매일 욱듣는 건 자기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매일 눈물로 살아가는디, 하루는 향아리에다 물을 길어 노랜. 경헨디 그 향아리가 아래가 터져분 향아리라. 경헨난 거기 물을 채울 수가 이서? 만날 질어 노른 새어불고 허영. 그러니까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막 학대를 해서. 그런데 조금 이시난 생이가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채울 수가 있다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이제 채와 노니까 이제는 못채울 걸로 봤는데 이것이 콩떡이가 채와 놔서. 그런데 그 새가 어머니의 혼이라는 얘기도 이서.

또 하루는 일허래 나가랜 허연 콩떡이가 일허래 가부렀는데, 자리에다 쥐를 가죽 벗기고 해서 죽여가지고 거기 묻어서.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콩떡이가 어디 가서 임신해 와가지고 유산시켜 놔다고 실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했더니 허니까 아버지도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년을 그대로 뒀서는 안돼겠다”해서 죽일라고 제락을 꾸며가지고 죽일려고 산천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혼으로 나타났더라. 무엇이 나타났는고 하니 새끼 도야지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도야지가 가는 사람 길을 자꾸 막아가지고 허니까,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도야지 새끼 혼 머리를 잡아가지고 마누라 보고 “지금 있는 것이 이런 종류가 아니냐?” 이렇게 애길 했던 모양이여.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허면서도 결국은 여자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도 그때부터 새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자꾸 의심을 갖는데, 또 하루는 콩떡이를 죽이려고 제락을 꾸며가는 거라. 제락을 꾸미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모함해서 자꾸 나쁜 일만 하니까 이제 그대로 두어서는 안돼겠다고 아버지더러 딸을 처치해 버리라고 그렇게 했어. 경험 딸을 데리고 깊은 연못으로 갖는데 그 연못에 보니까 마침 사자가 뭔가가 있는데, 아버지가 딸을 밀려고 허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물젠 허난 부녀가 막 도망간 또 못죽여서. 하루는 콩떡이가 막 울면서 가다 보니까 들판에 고운 신이 있어. “아! 이상하다” 하면서 콩떡이가 그 신을 신으려고 가져왔는데, 하루는 신 임재가 신을 찾으려고 나와서, 경험디 그건 아마도 그 신에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젠 현저라. 아주 높은 집 아들인데. 그 신이 그 집에 가니까 신이 있다고 해서. 그 집에 가니까 콩떡이가 자기 신이라고 해서 신어보니까, 이렇게 보니 너무 커. 신이 콩떡이에게 너무 큰거라. 그래서 콩떡이에게 신어보라고 허니까 딱 발에 맞아. 그래서 콩떡이를 데려다가 살았다고 하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여.

6. 힘센 며느리 이야기

- 성산읍 온평리. 1986. 7. 30. 조사
- 제보자 : 高麗三(남·66세, 성산읍 온평리 983)

옛날에는 어린 때 일곱·여덟살 때 장개 보내는디, 부모들은 장개 보내는 들에 간 일허고 오란 보니까, 아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울엄서. ‘아 이상허다 어멍허영 아이가 지붕 우서 울엄신고?’ 해신디, 아이가 왜 울고 잇냐하며는 시어멍 시아방이 들밭에 일허레 나가멍 “너는 새 각시니까 집에서 집안 일이나 허염시라.” 허난, 시어멍 시아방 올 사이에 집안 일이라도 해알 건디, 자꾸 마누라를 못전디게 졸름멍 귀찮게 구니까 그만 지붕 우터레 던져 부러서. 경험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허고 우는디, 아버지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거라. 쯤쯤해영 가까이 가서 “너 무엇하고 잇느냐?” 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욱아가지고 “큰 호박을 딸까 작은 호박을 딸까” 하더라고. 뭐냐하면 ‘각시가 던져 버렸다고 하면 각시가 욱을 들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연 호박을 어느 것 딸거냐고 하니까, 익은 것 딸 거라고 하자 익은 것을 따서 내려 왔다는 거라.

7. 고려장 이야기

-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조사
- 제보자 : 梁松栢(여·81세, 성산읍 온평리 869-2)

훈 사람의 어멍이 이젠 막 다 늙언, 다 늙으나내, “아이고, 우리 어멍은 다 늙은디, 나가 이 어멍을 고려장을 안허민 법에서 알앙 우릴 다 잡아가고 우릴 못살게 험거난 고려장을 강 해알 건디” 말만 허멍 이 날 허져 저 날 허져 허멍 어멍 고려장을 못해서이. 허문 그 어멍을 고려장을 허젠 지영 가서이, 지영 가는디 밥그릇 옷 문딱 지게에 낱 지영 가. 가난 손지가 “아바지 나도 훈디 가쿠다. 할머니 고려장 허는 디.” “느 무시거허래 울티?” 아방이, “오지 말라.나만 강 해 됴 오키여.” “어수다. 나도 훈디 가쿠다.” 가내 이젠 어멍을 구덩이에 막 천지소 ㅈㅈ 파거베이, 옛날은 그디 강 다 자리 켜우고 먹던 그릇 다 놓고 훈 메틀 먹을 걸 놔 됴 행 오는 거라. 이젠 그 지영 간 지게도 메겨불고 경험 됴 오는 건디, 가만히 보던 손지가 바래단, 이젠 아방은 다 해된 돌아

산 오라가난, “아버지, 저 지게 아상 같지 아니?”. “엇다 고려장 해난 지젠 데껴부는 지여. 안아상 가는 거여.” “아버지도 나이 칠십만 꺾민 저 지제로 지어당 이츠크 할마니 꺾 고려장할 거 아니?” 경허난 이젠 가슴이 금착해서 그젠 다시 어멍을 파내서이, 파내여네 다시 지언 오라서. 할망을 지엄 오라노 나네 관가에서가이, “왜 칠십 넘은 할망을 고려장을 안허느냐?” 영허나네, 이제 약시약시켄 이츠크 허난, 우리 어린 아들이 꺾 갖다네 할망을 해가난 하도 섭허난, 난 지겔 데껴 된 오난, 이 지게 아상 갖당에 아버지도 지어당 문을 거 아니? 원 생각해 보난 다시 글 후젠 그냥 지어 오랏수다. 허난 글로부 턴 여든이 나도 고려장을 안헛던 허여.

8. 허운 애기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조사

·제보자: 梁松栢(여·81세, 성산읍 온평리 869-2)

죽은 사름은 밤인 가그네 애기를 오랑 보고 낮인 강 저싱에 사는다, 춤 그런 법이 옛날엔 이서서. 거난 젊은 사름이 애기를 두어 개 낳아 된 저승 처서가 완 드라가비여서. 드라가부나네 밤인 강, 애기를 밤 오랜 보내주고 낮인 안보내주고, 밤인 구신으로 강 보랜 허는거라. 아, 경허난 이젠 혼문 오란 보난 서방 사는 것도 막 험악하게 살고이, 이젠 그 아들들도 사는 걸 보난 애기들도 아주 섭제 살고.

‘나가 이젠 저승에 가불른 영 허는걸 오늘랑 나가 곱아그네 가지 말젠’ 가지 말젠 이젠 곱아비여서. 이젠 삼 처서가 들어완 이름은 허운 애기라 “허운 애기 어디 가시니?” 아방광 애기들은 갓수맨, 어멍을 곱져비어 된 갓수맨 허난, “응 가시냐, 이놈의 새끼덜 거짓말을 해시메 너희들 어멍은 놆 똥 가는다 혼은 우리가 빵 간다.” 경허난 이젠 혼만 빵 가불른 사람은 고만 구들에 셔도 죽는 거 아니? 경헨 혼을 죽이는 법을 내왔다는 거라. 경허난 그것도 곱앗다가 혼을 뺀 가부난 죽으면 아주 죽는 거라.

9. 사람의 죽음과 까마귀

-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조사
- 제보자: 梁松栢(여·81세, 성산읍 온평리 869-2)

또 저승처서가 저승처서 같이 사름 잡아가는 까매귀신더레 아으랑 잡아 오지 말곡 늙은이만 강 잡앙 오랜. 심바람을 시켜서. 심바람시키난 까매귀가 오단 물 잡암시난 들어강 물 배술 흥술 얻어 먹젠 허단 그만 잊어버여서. 잊어부난 이젠 간 “까악, 아으도 읊센 험디다. 까악, 어른도 읊센 험디다. 까악” 해부난 이젠 아으도 죽어불곡, 어른도 쉬어정 죽어비엿던 헤여.

10. 효자 이야기

-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조사
- 제보자: 梁松栢(여·81세, 성산읍 온평리 869-2)

어떻헌 옛날에 효자가 나와신고 함민 우리 집의 나의 큰시아방이 저 두린 때 어머은 죽어비여서. 저 별방이다. 어머은 죽어부나네, 아들은 하나 나뉜. 아방은 “나가 아들 하나만 잇을 수가 시냐. 나가 각실 하나 할망을 하나 해영 애기 하날 더 낱아사키여.” 아들궤라 말허난, 아버지 몸대로 각실 얻음센해서. 저 김녕에 간, 할망을 하나 얻어 오난 애기를 못나비여서. 애길 못나는 할망을 얻어 오난. 어딜 강 각시를 얻어신고 하나네 소섬엘 간 각시를 얻어서. 우리 시할망을 얻으난 시아바님네 성제를 나서. 경호난 가이가 열두 살이 되어서. 어머 죽어분 애기가. 가인 별방에 살아서. 별방에 살림이 다 시어브난. 하르방, 각신 옆 소섬에 간 살고. 아방신더로 가젠 허문 배가 어선 토우(나무로 엮은 배)만 탕 멩겨서. 옛날은 거만 탕 멩기멍 허단 혼번은 토우 탄, 간 뇌 됴 아방신디 열두 살에 좃아간 보나네, 아방이 아덜덜 성제난, 어머은 물에 들레 갓 것월 가불고. 아방은 아광으네 그냥 막 죽을 지경이라. 막 죽어잠서, 간 보난. 개난 가이가, 이젠 약이 시냐, 의원이 시냐, 병원장이 시냐, 홀 수가 어서. 바램밖에 못헐거라. 이제 곱으민 피주사 맞허문 죽어가는 사름덜 뵈롱허듯이 옛날에 그런 말을 아이가 들엇던궤라 열손가락을 울로(손가락을 가리키며) 그찬

아방의 설을 빼영 댁여서. 손가락채 입더래. 손가락은 그찬 댁겨비어뉼 댁연. 아방이 살아나서. 아방이 살아나난 이젠 동네 사름이 이젓 아이들도 열두 살 난 아이라 손가락 그찬 느네 아방 댁이랭 허민 겁나 아니 헐져. 이젠 법에서 알아서 서주한문이 내려오나네 야이가 이젠 별방집의 큰 집에 잇거든. 어멍 살아난 큰집도 잇고, 할망덜도 잇고. 허난 아방 살려놔뉼 또 별방에 간 사는데, 열여섯 나는 해엔 토우 탄 소섬에 보리 식그래 오단 그만 불러난 죽어비여서. 브름 췌민 토우가 살겨가게. 저 바당더래 불령 놀아나부러주. 죽어부나네 손가락 하나만 형겼으로 잘 썬 물어서. 무덤을 훔 거 아니가게, 무덤을. 나 요작이 보난 요만이 물어서라. 아으 무덤만이 문언. 경헌디 우리 사아비님네도 성님 죽어도 생각을 안허고 할으방도 늙은 어른이난 죽어불고. 그 서주한문 나 온 게 요만한 함에 툽툽하게 개연 놔서라.

우리 집의 시아방도 시연 죽고, 족은시아방도 시연 죽고, 우리 큰시아지방도 죽고, 우리 영감도 죽곡 해도 그걸 발표를 안해서. 함에 딱 담안 내뉼. 발표를 안허난 우리 아덜이 우리 시아바님 죽언 제살 말을 사름이 어선 제살 말 아오젠허난 팽풍 허나 허고 우리 족은 시아지방이 췌상 허나 허고 그 함, 서주한문 담은, 하날 췌서, 우리 아덜이 오란 을안보난 필요허지 았을겨냐게. 옛날 임금 도장도 찍혀 잇으니까, 윈 우리 할아버님 대영 우리 아바님 대영 어멍헐 이걸 문형 놔시고. 대대로 느려 오는 양 자꾸 관가에더래 나라에 고하는 거라. 서주한문 내려온 걸 즈손덜이 그 집 즈손이영 이제까지 다 발표허는 거라. 우리 아덜이 작년에 그걸 을아보난 신문에 간 탁 사진 간 다 새로 치고, 신문에 다 내어서. 그리고 나의 큰시아방 비를 세왓저. 경허난 우리 시아방 이름덜은 고 수경이, 고 예경이라도 나의 큰 시아방 이름은 난 몰라. 우리 아덜덜은 알아도.

11. 양자 들이는 이야기(1)

· 성산읍 온평리. 1986. 7. 30. 조사

· 제보자 : 高麗三(남·66세, 성산읍 온평리 983)

옛날 뉼만 셋, 아덜 못 낳은 하르방이 서서. 돈은 많이 이서. “아이고, 야야, 양젼 하나 돌아사키여.” 할망은 죽어불고. 하르방이라 뉼덜 궂는 말이 “아

바지 양젼 돌지 맙세. 아버지 경 번 돈을 양젼 줄 턱이 이수짜? 우리 세 성제
 가 갈라 마탕 우리가 허민 아바질 잘 모시쿠다” 경허난 이젠 아방은 그럴듯 해
 배거든. 아맹해도 놈의 집 양젼 집의 강 놈신디 얻어먹음 보다는 나 난 나
 똥이난 똥한티 먹는 게 좋주. 똥들 굶는 양 양젼 안돌아서. 안둔디. 어멍헐티
 허난 “큰성님신디 강 혼 돌 살민 샐성신디 강 혼 돌 살꼭 또 샐성신디 강 혼 돌
 살민” 죽은똥 굶는 말이 “나신디 왕 혼 돌 샐서, 경헐 험서.” 경허난 경허켄 험거
 라. 양재 돌젠 허단. 양젼 돌아단 양재 돌 아인 가곡. 말은 해 번 돌양 사는
 디, 그 양젼 즈들환 똥들이 들언 못들게 해배서. 양재 돈 아들 오란 아들까지
 흥나 난 양재를 똥들이 들언 못살게 해배서. 것들은 그만 나가배서. 양젼 오랏
 던 사람들은 아주 돈도 엇고 아무것도 어신 집의 아일 돌아서. 아일 드난 나가랜
 해원 큰성신디 간 혼 돌 닷새를 사난 큰똥 굶는 말이 “아바지 샐아시신디 잡쎌
 제. 우리집서 닷새 더 먹어수다.” 경허난 이런 옛날 고사가 이서서 이젠 양재
 돌암쎌. 이제 양재 드는 사름은 이 생각허멍 돌암서이. 다시 샐성 신디 간 혼
 이틀 넘으난 “아바지, 죽은 아시신디 강 먹읍세.” 아바지먹는 거 아까완 현 거
 라. 겐, 이젠 아바진 이삼년동안 살아가난 아주 아니꼬거든, 하르방이. 하르방
 속으론 양재 오랏던 아덜 좃겐. 똥덜신더래 “느네 나 옷을 잘 해도라 나 입엿
 어디 강 놀당 오키여.” 경허난 밥수발 허기 실편 막 조안덜 옷을 다 헐 입전 노
 난, 굶어전 가서. 암만 맹겨도 아덜 하나 낳고 헐 나간 양재 아덜을 못 좃안.
 못 좃으난 어딜 가단 보난 눈에 막 모를 심는 사름들이 오란 점심들을 먹젠 허
 는 거라. 경허난 그 점심 먹든 디로 하르방이 못넘어가난 저만이 점심 먹는디
 요만이 완, 하르방이 논두둑에 곱안 앉아서, 그 사름네 점심 다 먹으면 넘어가
 쎌. 계난 그디 모 심으래 간 양재 매누리가 그 하르방을 뵈래봐서. 그 여자가
 간 논 입재덜 밥해 간 사름신더래, 옛날엔 막 도당 모 안 심그느냐 밥을
 혼 사발 주민 저기 오는 하르방 앓당 안내켄 허난, 더런 앓당 안내렌 혼사람,
 경헐것이나 혼사람. 경 안허느냐, 밥을 혼 사발 빌어 간 이밥을 먹읍쎌 허난, 보
 난 며누리거든. 계난 나가 미안허면. “미안헐거 이수짜? 아바지, 아바지 잘못
 은 하나도 어시난 이 밥 먹영 우리영 꺾지 우리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 행. 살암
 수다. 읍쎌, 집에 가계양.” 계건 가켄 험거라, 하르방이 그 밥 먹고 매누리가
 돌아간 잘 지네 집이 모사서. 모산 사난, 혼 메틀 살아가난 베락 천둥허멍 비
 가 오기를 그냥 막 오라. 하늘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아무 죄도 엇는디 이 하

르방이 죄가 있다고. 양재 돌아간 자식들, 애기들을 뵈이지 말젠 뿔덜 말을 들
 언 내보낸 걸 보나 이 하르방이 죄가 잇젠. 또 일반으로 생각허민 하르방도 죄
 가 엇젠. 뿔들의 죄엔. 너 아무 날 아무 시엔 이 하르방을 잘 모시라고. 이것만
 이 이 하르방을 잘 모시라고. 높은 디서, 하늘에서 말이 나. 이 하르방을 너네
 가 잘 모시민 아무 날 아무 시에민 느네 먹을 걸 들어올거매 그때랑 그 먹을 것
 들어오진, 잘 돈이영 몬딱 하늘에서 내리올거매 이 하르방을 잘 모시랜. 사름
 은 엇고 베락 천둥허멍 비 오멍 경 말은 하늘에서 곤는디, 말은 알아 들어도 사
 람은 못봐. 이젠 그 비가, 제일 잘 사는 집이 강 그냥 베락 천둥 허멍 막 비가
 오라서, 잘 사는 부자집의 강. 아이고 비가 오멍 곤는 말이 너네가 너무 욕심
 이 세연 엇는 돈을 많이 거두완 살암시너 이제 아무 날 아무 시에는 췌에, 물
 에 해영. 너희들 나룩쫄 뵈 가마에 실으고 돈(엽전) 췌에 실으곡, 우리 시대에
 도 밍사젠 허난 엽전 노끈 꿩어 지어다 췌 사낫췌. 경허난 아무 날 아무 시에
 너네 고향에 낵 잠근 돈 췌에 시끄곡 물에 시끄곡 쫄 시끄곡 돈 시끄곡 허
 영 강 아무디 아무디 가민 그 집이 시매 그디 앳다 주랜. 하늘에서 경 영을 내
 려서. 경 안허민 하늘에서 너넬 잡아 간다, 돈 한집 임췌 잡아 간다. 아이구
 경허쿠면. 우리가 그 날엔 쫄이영. 돈이영. 막 다 그 집에 아따 주쿠면. 오 경
 허랜 허연 천둥도 개고 비도 몬딱 개여서. 그 날 돌아와가난 그 부갯집에서
 그냥 췌 내반 머슴들 ㄹ라 돈 시끄라 쫄 시끄라 막해연 그 집에 시켄 들어 가
 서. 그 하르방 신 집의 시켄 들어 간. 아무개네 집이우짜? 하늘에서 ㄹ른대로
 기엔 허난, 꺾꺾 놀래서. 그 사름들은 돈집이영 쫄집이영 막 지영 들어 가서.
 막 지영 들어 가난 좋아내 천하 부자되영 잘 살앗젠. 겨난 몫 좋은 아이 사름
 복을 준다. 겨난 그 뿔들은 못살고, 그 양재 멩기던 아들, 나가랜 허난. 어린
 때 양재 들언 두린 때 돌아단 살단 나가랜 누이들이 허난, 아뭇 말도 안해연
 애기덜 ㄹ란 나가서. 나간 걸 생각허민 할애비 봐지민 밥 쫄 생각날거라. 흥쫄
 독훈 사름이민. 아뭇가 글렀더라도 따신 눈 멩 봐랜 생각이 실 거 무시거꼬.
 막 그 매누리가 그 시아방을 잘 뵈사서. 잘 뵈시난, 마음 조난 바락 복을 췌
 잘 살앗젠. 그 후론 쫄이 열 성제가 이서도 양재 도랏다 혼다.

12. 양자 들이는 이야기(2)

-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조사
- 제보자: 梁松栢(여·81세, 성산읍 온평리 869-2)

양재를 주기가 아까와서 재산을 딸을 줘서. 재산을 다 물려 줘서. 두 부체가 아덜은 못나고 딸만 한 서너 개 나서 사는데, 큰딸이 그 집의 큰작사라 큰각사라.

맹질엔 저싱서 맹질 얻어 먹으래 딸집에 오랏거든. 중간에 막 재산 하영 물려주고 헨 오란. 오랑 보민 사둔덜만 오망오망 뵈아앗곡, 지네 나신 겹상을 안싱고 사둔덜 겹상만 싱경새로 세시꺼장 이녁 나신 밥상을 안출려 주거든. 구신이 오란 보난, 하영 준 딸집 집의 오랑 보난 사둔덜 죽은 귀신 맹질 먹으래 온 사름덜이 막 앓앙 종손집서 새로 세시까정 해도 이녁 상은 안싱겨주거든 안싱겨주난 구신도 미안허연 못동에 사서 들어오지 못허연 가서, 먹지 못했 돌아가서. 돌아가다네 어디 양재 돌키여 말키여 허당 안둔디 그디도 시여나서. 허난 그디 간보난, “아이고야 오늘은 그 어른들 맹질인디 우리 저 우리 먹는 밥이라도 혼 상 떠 놔사주게.” 것도 몸 좋은 얘기라, 여자(각시)가, 서방이 영 앓앗단 축나지 앓을 거난, 먹영 가불지 앓을 거난, 경허저들랑 밥 두 그릇만 하고 무시겨영 찬물이라도 떠겨냉 저리 흥썰 놔두겐. 하도 우리가 그 덕에 살아난 어른들인디. ㄱ란 보난 경허맨. 이젠 흥연 주난 동네 사람 꿈에, 우리 두 부체가 딸집의 맹질 얻어먹으래 갓단 새벽 세시 네시꺼정 우리 나시 상 안싱경 사둔덜만 바글바글 앓안, 미안한 나오단, 이젠 양재 돌쟁 해난 집엔 들어간 보난 우리 나시 찬물 떠놓고 메 혼그릇을 떠놔터라고. 경허여네 이젠 그런 말 ㄱ른따무네 그루 후젠 양재 안드는 사람이 어서. 흥썰 머리뺨 신 사름은 다 드라.

13. 처와 첩의 제사

-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조사
- 제보자: 梁松栢(여·81세, 성산읍 온평리 869-2)

옛날 이 동네에 혼 사름이 영 꿈을 보난 어떤 여자가 오란. 할망 두 개 헨

살아난 할으방네 할망이라. 할으방 제사에 족은할망 큰할망 메를 혼디 거려 놔 준다. 할으방 제삿날은 메를 두 개 혼디 거려주느네. 탁허게 족은할망이 친구집의 할망덜신디 오란, 아이고 날랑으네 우리 할으방 제삿날랑, 상에 딱로 영 밥 한 사발 거려 뒤랜 곱아주랜. 우리 아들ㄹ라 곱아주랜. 우리 아들은 큰 어멍네 아들이라. 족은할망은 아들도 못난, 우리 아들곱라 경 호셀 곱아주랜. 영허난 깨어남 보난 꿈이라. ‘언치냐 그 할으방 제사라신가. 원, 꿈도 이상도 허다.’ 경헨 가서. 간 보난 아들이 시어. “아, 조캐, 나 말 곱으래 오랏저.” “무사 마썸.” “언치냐에 느네 아방 제사 넘어시냐?” “예” “느네 족은어멍 오란, 나신디 꿈에 오란, 아주 젊을 때 이녁을 아주 박허게 곱어남 모양이지. 족은할망이 할으방 쟈상에 ㄹ찌 간 앉아시난, 너넨이 뵈허레 올라와디? 막 틀어부난 막 맞안만 가고 밥도 혼순가락 못얻어먹언 감수덴. 큰할망이 날 복복 틀어붙고 멧그릇 다 매부찌붙고, 느가 뵈이라서 이 상에 ㄹ찌 올라 오랍디, 복복 틀어붙고 막 매다쳐붙고. 경헨부난 우리 할으방 제삿날랑 나 곱은 상더래 메 거려 놓지 말앙 딱로 구석더레나 어디 딱로 노랜. 큰할망한티 복삭 맞안 밥도 못얻어먹언 가노랜.” 경 꿈에 선물을 해서. 아들ㄹ라 경 곱으난 아들이 곱짜 놀랜. 이젠, 아이고 개매 족은어멍 나시 출려 논 멧그릇이 밥상 아래 둥그릇났다는 거라. 메가 체졌다는 거라. 경허난 구신도 엇뎡 말라. 것도 호셀 시난 멧질도 제사도 햄쭈.

14. 효부 이야기

·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조사

· 제보자: 梁松栢(여·81세, 성산읍 온평리 869-2)

혼 사람네 할망이 노망을 해서. 들리 옛날에 밭에 농사를 허레 가는데 할망ㄹ라 애길 밤시랜해된 농사허레 가부난에, 큰 가마솥이, 옛날은이 저 배끄티 군 불솥이 세출도 습고 무시거 허는, 육지 ㄹ찌 막 군불, 배끄티 앉힌다제. 부억에 말앙. 그기 가그냉 막 불 와랑와랑 때영으네 물 혼 솥만 팔려그네 두어 살 난 애기를 들이켠 죽여배여서. 경허난 아들은 안들어오고 매누리만 들어오라시나네 그거 강 보난 경해시나네, “저기 뉘 숲아놔져.” 시어멍이 매누리ㄹ라. ‘어멍, 애긴엇고 뉘은 무신 뉘을 숲아놔시’, 오란 보난 애긴 꺾얀 물에 둥

가부난 죽어버렸거든. 죽으나내, 아이고, 이걸 어떻게민 좋고, 동네사람들 몰르게 이걸 어떻게젠 할망ㄴ라 아무거엔도 안죴고 메누리가 궂체 앓다봐그네 특허개 그걸 전전 궂체로 더궂 봐시난, 서방이 들어오라서. 들어오난, “나 죴는 양 당신 신경질 안내켄 허민 나 말을 허고, 신경질 내켄 허민 말 안허쿠다.” 허난, “무신 말고?”, 허나네 “아이고, 개난 노망헌텐 허는 거 아니꽈, 아니 세상에 아일 저영 행놔뵤, 난 양, 저 어른 오랑 어떻게코 궂이 나네양.” 서방만 노래서. 여자가이 아이고, 아기 영행 했수다. 허난, 아방도 각시 경허난 ㄴ찌 좋은 사람될 거 아니? 어떻게라 무시거엔 안죴안 그냥 간 좋게 물어부러서, 그 애길. 좋게 물어부난 경 잘 살더라 혼다. 그것도 하늘에서 복을 줘그내 시어멍 그 애기 죽여부러도 글후제 아들 딸 난 잘살게 맨들고 부자가 되면 잘 살앗젠.

15. 콩떡이 궂떡이(2)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조사

·제보자: 梁松栢(여·81세, 성산읍 온평리 869-2)

옛날 콩떡이가이, 콩떡이 궂떡이가 사는디, 나말 들으라. 똥은 성젠디, 아들은 엇고. 똥은 성젠디, 콩떡이 어멍이 콩떡이 난, 어멍은 그만 죽어부러서. 계난 아방 산 때 저 각시 얻어 궂떡이 하날 나서이. ㄴ짱허게 똥 두 개가 커서. 크는디, 콩떡이 어멍이 묻저 죽어부난, 아주 이빠서. 응, 아주 이빠서. 겨난 뒤칩 할망 아덜이 이제 똥허곡 옛날에이 영행 사는디, 그 콩떡이안티 탐이 나서 요새 ㄴ트민 연애할 생각이 나쁜거라이?(조사자:누개가?) 뒤칩 할망 아덜이 개. 뒤칩 할망 아덜이. 뒤칩 할망 아덜이 요새 ㄴ트민 연애할 생각이 나네, 지내 어떻게라, “이 요 앞칩의 콩떡이 막 경 곱데다. 똥물 맥이레 간 보난 빨래하는거 보난 춤 경 곱데다.” 경한난 이젠 어멍은 “계민 가이신디 느장개 갈티야? 흥나내 가이신디 장개 보내 주민 가쿠뵤 허는 거라이. 총각이 가쿠뵤 흥난 이제 개거들랑 중지 갈 거 아니가. 중질 들어서 이제 지내 어멍이 중질 들어내, (녹음상태 불량)

무사 영 햄디게? 영허지 말라게. 나 죴는 말 듣젠? (조사자:예) 콩떡이 말

듣젠? (조사자: 예) 나 곧는 말 들건 들으라이. 이젠 옛말 아니가. 옛말이?
 (조사자: 예) 콩떡이가 이젠 통엘 뿔뿔 흐레 가는디 경 고와서. 고나네 이젠 뒤
 칩 할항 아덜은 물물 맥이레 갔다네 지네 집에 오란 가이신디 장겔 들쿠멘 해
 서. 아주 장개가랜 해도 안가켄 현 아이가 이젠 가이신디 장겔 가켄 해서. 허
 나네 이젠 중지를 허나네 들어서이. 들으나네 이제 쫓떡이 어멍이, 다슴어멍
 이, 새음이 나서. 부애가 나서이. 지네 딸신디 그 좋은 사우가, 뒤칩의 총각이
 오라배시민 좋을 건디, 이제 지네 딸, 다슴 딸신디 오켄 호고 지네 딸신디 정
 리를 안흐나네 그기서 그 투(조사자: 질투가 난.) 질투가 나비어서이. 질투가 나
 나네 이젠 그 옷을이 뿔래 강 흐랜 딱루 옷을 다 벗어 놔 뿔래 흐랜. 그 옛
 날 통은이 혼 번 똑 떨어지민이 올라오지 못헐 물통이엇저. 서문통이라고 옛
 날은이 물통 지프게 팜으네이. 경흐디 강 뿔렐 해. 연못이라이. 연못에 강
 뿔렐 해서. 연못에 강 쫓렐 흐는디, 이제 어멍이 옷이랑 다 벗어 놔 뿔래 가그
 녁 무시저 현옷 입어 가그내 뿔렐 흐랜. 그 죽이젠 생각이 들언이. 경흐난 이
 제 어멍 곧는냥 다슴어멍 곧는 말 안들으민 안됨직흐난 그 옷 다 벗어 놔 뿔
 러, 지웃을 다 벗어 놔 뿔, 이젠 그 옷을 다, 우리 ㄱ트민 일하는 옷을 입어 뿔렐
 홀거 아니가. 뿔렐 햄시난. 어멍은 자락 아상 거리 밀러부난 죽어배서. 그 딸
 이 (조사자: 콩떡이가?) 응, 게 콩떡이가 죽어서. 죽여뿔 지네 딸 그디 보내젠,
 쫓떡일 보내젠. 경흐난 이제 오란, 싹 오라네 그 옷을 다 딸을 (조사자: 쫓떡이
 마썰?) 콩떡이 옷을 쫓떡일 다 입져서이. 입져 된 이젠 흐나네 이젠 뒤칩의 총
 각은 이젠 보인디난, 이딧 아덜이 연애허듯 놀래도 가곡, 배렐 저 아니가개.
 간보난 옷은 보난 기라도 암만해도 얼굴은 아니라. 아니나네 이제, “이상도 허
 다. 나가 원, 어멍헐 원, 정신이 엇어점신가? 옷은 기 ㄱ트디.” 낮
 엔 못가곡 밤에만 놀렐 멍것저든. 저게 사름덜 보카보덴. 개난 내가 잘못 보아
 저신가 해연. 경흐디, 이상흐다, 해연, 뒷날은 이젠 물물 맥이레 가서이. 총각
 이이, 물물 맥이려 가나네 고운 쫓이 나오라네 통글통글 통글통글 햄서. 그 아이
 가 죽어네, 처녀가 죽어네 쫓으로 나오란 물 가운데 통글통글 통글통글 이제
 물통에든 어떤 물통에든 고운 쫓이 신통허느냐게. 물통에 그 신통이라고, 옛
 날엔 해낫저게. 개난 통글통글 햄시나네 그 총각이 가네 하도 쫓이 이쁘나네
 영 심쟁 허민 저래 터가불곡 쫓이 원 손애 쥘히질 안해서. 어멍흐단 흐룬 가네 그
 쫓을 심어서. 심어다네 앳다다네 하도 이쁘네 요영 흐디 가네 꼭 찢러서이. 옛날

엔 초집아니라. 요영훈 집가지에 가내 꼭 찢러서. 찢르나네 갈매민 자꾸 쫓아 이녀을 자꾸 건드리, 그 쫓아. 툇 건드리고 툇 건드리꼭 허난 “아, 이상도한 다, 하필 이거 아맹해도 이 사름이 이제 질투가 나네 죽연 이제 콩떡이 쫓으로 나오라네 날 영햄신개? 이젠 이 물 강 푸젠 그 물을 간 다 퍼서. 다 편 보나네 그 처녀가 죽연 소그랭이 꼴라앗아서. 꼴라앗아시나네.

옛날엔이, 두 일곱번, 열네번 치민 살아나는이, 윤드리어 매가 셔서. 뚜드리민 살아나는 매가 셔서. 옛날은 영 막뎡이, 회초리, 사름 뚜드리민 죽은 사름, 물에 빠정 죽은 사름 뜨리민 살아나는, 그 옛날은 그런 뚜드리는 회초리 매가 이서서이. 그 매가 지네 집의 이시난 그걸 간 때려서 때리난 살아날 거 아니가. 살아나서이, 살아나도 죽엇단 경 살아난 사름은 이승 살림을 못산덴 해라게. 눈에만 우리 테레비 뵈듯 뵈주이. 알아들엄샤? 테레비 뵈듯 뵈주. 우리가 이덜 ㄱ찌 가정살일 못해여개. 경 살린 사름을 자꾸 눈에만 편식시기주이. 경헨 흥는디, 살아가는디, 이젠 못뵈이 어멍은 이젠 알아날 것 아니라개. 이제 알아나난 이제 시집을 못보낼거 아니? 그디 못가고 총각도 그디 아니올 거 아니? 경헨 이젠 살아나나네 그 총각 이름이 장서방이라.뽕뽕 장서방이라. 뽕 잡아당 자꾸 뒤에서 먹영 무시거허꼭 허난 이젠 비웃음소리로 누게 놈이 “뽕뽕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소.” 친구덜이 이진이, “뽕뽕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소” 처녀 연애 허단 죽엇젠. 건 비웃음이라이. 경 허나네 이제 따시 그 뽕뽕헌 장서방은 “뽕뽕 장서방 콩볶아 먹언 살암소.” 흥흥 대답을 영 허나네, “뽕새 볶았소”

“남신착에서 볶았소.” 남신착이엔 혼건 나무로 멘든, 옛날엔 신이 셋저개.

“남신착에서 볶았소.”면개 닳은 말이 아니가게. 윈 남신에서 콩을 볶아질 것가개. 그거 그 사름말에, 그 사름이이, 이 총각이 이추록 헨, 허멍 허다네 이젠 그 총각신디 장궤 못가네 이제 죽어서이. 총각도 그만 일성을 그만 죽어 배서. 옛날에 경훈 옛말 우리가 들어네 나가 그 말 ㄱ라궤시네개.

16. 남선비 이야기

·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조사

· 계보자 : 梁松栢(여·81세, 성산읍 온평리 869-2)

이제 또 남선비가이 아덜 일곱 성제 놜 된, 이제, 옛날 ㄱ트민, 이제 ㄱ트민

우리 저 부산이나 어디나 장사가듯 배 탄, 큰 장사사는 배 탄 장살 나가서. 아
 덜 일곱 성제 벌어당 먹이켄이 나갓다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엔 **하는**, 이제
 ㄱ트민 어디 저 춤추는 어디 저 성읍가시나 **맑은** 것에 미쳐배서, 그만, 미천.
 그 배도 다 돌아먹고 노곡 **훈배** 실러간 **신** 것도 다 들러 먹고. 이제 각시신디
 못돌아오라서, 돌아오라져개. 아무것도 어선 못돌아 오난, 그 여자과 노일제
 대귀일의 딸허고 살아가는디, 아주 험악허게 뉘배서. 무시저 아무것도 어서부
 난. 이제 누개네 방앗간에 가그네 옛날엔 물 ㄱ래가 이섯저이. 물 ㄱ래 ㄱ는디
 가그네 **론** 딱 물 ㄱ래 **콜**아난디 가그네 방앗간에 가그네 **론** 쓸어그네 **채** **맑은** 것
훈 **술** **빠** 해 오라그네 이제 그 하르방 **하**고 **지** **하**고 **죽** **썩** **먹** **곡**, **영** **하** **명** **살** **아** **서**
 이, **영** **하** **명** **사** **는** **디** 아덜 일곱 성제 **돈** **할** **망** **은** **애** **기** **다** **덜** **이** **제** **막** **장** **성** **하** **게** **다**
키 **와** **도** **하** **르** **방** **은** **아** **니** **오** **라** **배** **서**. **안** **오** **난** **아** **덜** **일** **곱** **성** **제** **가** **어** **머** **니**, **어** **머** **니**, **아**
바 **질** **춧** **아** **봄** **센**, **어** **디** **춧** **아** **봄** **센** **하** **나** **내**,

“느네 아방을 **춧** **젠** **하** **민** **나** **가** **어** **뎡** **춧** **느** **니**?”

“우리 일곱 성제가 **신** **을** **일** **곱** **뉘** **삼** **아** **놓** **건**” **신** **옛** **날** **엔** **초** **신** **신** **어** **살** **아** **서**.

“일곱뉘 **삼** **아** **놓** **건** **그** **신** **신** **어** **그** **네** **그** **신** **일** **곱** **배** **다** **그** **차** **점** **시** **민** **아** **버** **질** **춧** **아**
집 **네** **다**.” **이** **제** **ㄱ** **트** **민** **저** **어** **디** **산** **골** **맑** **은** **딜** **가** **른** **거** **주** **개**. **살** **앗** **젠** **소** **문** **을** **여** **간**
들 **은** **거** **라** **이**. **막** **암** **만** **가** **내** **신** **을** **훈** **서** **너** **네** **뉘** **다** **그** **차** **도** **못** **춧** **아**. **할** **망** **이** **하** **르**
방 **사** **는** **딜** **못** **춧** **아** **나**. **가** **노** **랜** **막** **하** **나** **내** **야** **이** **만** **인** **훈** **아** **이** **가** **지** **장** **밭** **디** **이** **제** **ㄱ** **트**
민 **논** **밭** **이** **라** **이**. **춧** **나** **룩** **밭** **이** **라** **이**. **새** **안** **드** **리** **느** **냐**. **새** **이** **제** **도** **드** **리** **느** **네** **이**. **새**
드 **리** **멍** **놀** **래** **블** **름** **을** **이** **제** **“** **요** **새** **야** **저** **새** **야** **염** **치** **도** **어** **신** **새** **야**. **”** **조** **그** **만** **이** **뜯** **어**
먹 **으** **랜**, **그** **지** **장** **이** **엔** **훈** **곡** **식** **을** **막** **뜯** **어** **먹** **어** **가** **난**, **응**. **“** **저** **저** **서** **기** **밥** **주** **리** **옥**
은 **잔** **에** **도** **아** **으** **못** **인** **그** **물** **에** **든** **다**. **”** (조사자: **아** **으** **못** **인**?) **아** **으** **가** **못** **인** **그** **물** **에**
옛 **날** **엔** **이**. **잘** **들** **으** **라**. **물** **꼴** **랑** **지** **에** **물** **총** **해** **당** **그** **거** **보** **비** **어** **그** **네** **맨** **들** **아** **그** **네** **그** **물**
맨 **들** **앙** **생** **일** **잡** **아** **났** **저**. **생** **일** **경** **허** **나** **내** **이**, **가** **이** **놀** **래** **가** **지** **장** **밭** **디** **새** **드** **리** **멍** **블**
르 **는** **놀** **래** **가** **“** **후** **어** **라**, **저** **새** **야**, **오** **나** **가** **나**, **후** **워** **라**, **저** **새** **야**, **나** **가** **라**. **”** **밥** **주** **릴**
드 **리** **멍** **응**. **옛** **날** **도** **응** **밥** **주** **리** **옥** **은** **잔** **에** **도** **아** **으** **못** **인** **그** **물** **에** **든** **다**.

그건 이제 막 **뜨** **령** **죽** **이** **켄** **현** **소** **리** **라**. **새** **ㄱ** **라** **옥** **하** **는** **소** **리** **라**. **야** **이** **만** **인** **훈**
아 **이** **가** **남** **선** **비** **옥** **은** **잔** **에** **도** **노** **일** **제** **대** **귀** **일** **의** **딸** **홀** **림** **에** **들** **은** **채** **죽** **상** **기** **ㄱ** **를** **거** **치**
고 **대** **죽** **나** **무** **로** **집** **짓** **은** **살** **암** **젠**. (조사자: **노** **일** **제** **대** **귀** **일** **의** **딸** **에** **들** **은**) **응**. **홀** **림** **에**
들 **은**, **저** **저** **서** **기** **채** **죽** **산** **채** **해** **단** **죽** **썩** **먹** **고** **남** **선** **비** **가** **배** **탄** **노** **곡** **배** **탄** **갓** **단** **론**

딱 그디 간 어디 가난, 말썬 아무것도 어서지난 저 대죽냥, 우리 마트민 사탕 대죽냥 닳은 대죽냥 해단 걸로 집을, 영 저 우리 놀 집을 놀듯, 짓엉, 경훈 디 살았던 마라이. 가가 저걸 놀래로 내놓아서.

“후에나 저 새야 혼자 나가.” 새마라 훔을, 너도 죽은다하는 소리라이. 새마라 정 뜬어 먹당은, “저 제비새 저 밥주리 옥은 깬에도 아오 못인 그물에 들 었다고. 또 이제 남선비 옥은 깬에도 노일제대 흘림에 들어내 일곱 성제 아덜 일곱 성제 나두고 오니, 노꼭배 싯경 오란 다 먹언 채동냥해단 죽 췌먹언 사노 랜” 경훈멍 가가 놀렐 부르난 가 때문에 좇아서, 그 할망이. 신 일곱배 다 그 차저도 못춷단이. “이 아기야, 마싸 느 무시거옌 꼴안디?” 그말 들언 귀가 배지 근헨이. 할망이 “이 아기야, 느 마싸 느 무시거옌 꼴안디?” “나 무시거옌 안 꼴아수다.” “마싸 꼴은 놀래 불르라. 느 마싸 꼴은 놀래 불르라.” “나 놀래 불 릿주 나 무시거옌 안꼴아수다.” “그 놀래 한번 더 불르라. 더 불르라.” “할망 알아지쿠과?” “불르라. 나 알아들으키여.” “나 경 꼴앗수게. 저 밥주리 잡쟁 허 민양 돌 꼴랑지에 총 거 그차당 보비영 이제 실에 돌아매영 코걸이 해영 그물 못앙 해노민 암만 밥주리가 옥아도 그 그물에 들네면. 그 그물에 들고 양, 남 선비가 막 옥은 어른인디 아주 어리석게 들어내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흘림에 들언양, 그 사름여에 다 먹언 아무것도 었언 어디 갈 데 올 데 었이난 채 범벅과 채동녕허멍 다 이제 죽을 췌그내 할망 하르방이 먹고 아주 홀양어서 살아내, 저 집도 어서내 저대죽냥 마루 걸천 담 어염에 간 경헨 살아부난 나 경 꼴앗수 게.” “그 하르방 어디 사느니?” 그 하르방신디 가젠 허민 요 산천 념영 저 산 천 뒤깁에 삼네면 “야, 머 흥썰 꼴아도라. 나 돈주마” “아니 췌도 가집네다 개.” 요 질로 요영 흥영 갑셴 마르쳐 췌서, 가이가. 할망이 가서. 간 보나내 그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채동냥 채 빌레 가불고 하르방만 아자서. “하르 방, 나 양 념어가는 손님이우다. 요 무똥 흥썰 빌립서. 나 흥썰 아갓당 가 쿠다.” 할망은 알아서. 하르방은 몰라서, 누겐중이. 경 채만 먹언 살아가난개, 사름이개 사름 닳을 것가개. 막 늙어내이. 막 늙어서. 아들 일곱 성제 준준헌 때 내비편 간 아덜이 이만씩 커시난개, 오죽 늙어실 것가개. 이젠 “할망 우리 집 의 아질 디가 어수다. 이거 집이 아니라내양. 이디 못아츰내다” 허나내 할망이 “아이구 요 하르방 나도 좋은 집도 싯구 좋은 밧두 싯구 큰 아덜덜도 다 싯수 다마는 객지에 나민 집을 지영 남네까? 나 콧어도 요레 흥썰 아지쿠다개.” 경

호난 하르방이 “아줍서” 혼거라이. “그래 아줍서.” 현 아즈나내

“하르방, 옛말 곱읍서. 옛말 곱읍서.” 해서 할망은 아맹해도 날만은 정광했던 거라 “하르방 옛말 곱읍서. 옛말 곱읍서.” 호난 “아이구, 옛말 곧쟁 호민 혼이 어수다” “하르방 곱읍서. 하르방 곱읍서. 곱읍서.”

“나도 양, 아이구, 영현 살아지카부텐 안했수다. 나 영혼 남선비곡, 아덜 일곱 성제가 싯곡, 우리 큰할망도 막 좋은 사름이우다. 경현 살다베양, 나가 노곡 배 실런 나오라내 오곳 놈안티 다 그냥 아주 나쁜 여자 만난 다 쓸어먹언 아무 것도 엇고 돈도 다 쓸어먹어부난, 가도 오도 못헐 영 살겐 호난, 죽지 말앙 살겐 호난, 그 사름이 가그녕 어디 강 채나 혼쫌 해오민, 옛날 이디 ㄱ트민 조개역, 개역이라이. “그런저 해여그녕 죽이나 썰 먹영 죽지 말겐 해연 살암수다.” 경호난 “하르방 경호민 나 이디 점심 좀 해영 먹영 살아갈 수 시우꽂?” 호난 그 예편은 엇고 솟이 엇수면 허는 거라. 하르방벤 무시것에 개민 행 먹음이꽂? 허나내, 저디 저 무시거 하나 셋자 채허멍 다 동녕허멍 다 죽만 썰 먹어나부난 해영 먹을 나위가 엇다 는 거라. “하르방 경해도 날 빌립시양. 나 저 빈못에 가그녕 ㄱ롤 싯어다그녕 나 밥해영양, 하르방도 혼사발 안내곡 나도 혼사발 먹곡 허쿠다.”

아, 경흠쎌. 이젠 그 솟을 간보난 불나우가 엇거든. 경호난 들런가네 이제 비에 간 물신디 간 다 싯어다녕 쓸싯져단, 쓸은 우리 ㄱ트민 혼 댓되 아산 지어나산거주. 지어 나사내 이제, 이제 그 쓸 혼사발 거러낸 밥해서. 하르방 혼사발 거러낸 안내고 지견 먹을 때도 하르방ㄱ라 이녁은 알아도 안콜아춰서. 할망이 안콜아춰서. 안콜아춰, 이제 영 먹읍서 호난, “아이고 살아남데가 영현 밥 먹어봄데가?” 호난,

“아이고 영현 밥도 먹으멍 살앗수다. 우린 막 부재로 잘 살아났수다. 막 쓸이 만해부나내 쓸 싯경오랑 풀앙 가그내 돈으로 행 강 애기덜 다 주곡허젠 오랏단 오곳 그거 못헐 가부난 이때겨정 못갓수면.” “알앗수다. 알아시난 이 밥이나 먹읍서.” 그 밥 혼사발 맥여내 옷을 행 지완 나사서. 하르방 입질 옷을 이. 해도 이제 하르방신더래. “하르방 나가 기우다. 나가 기우다. 나가 아덜 일곱 성제 다 키와내 이제 다 어른되고 아덜덜이 막 아버지만 좇아봄쎌 하도 해여내 나가 좇안 나산 소문소문 들으멍 이덜 좇아오난, 당신은 눈도 선명치 안허고 날 몰라도, 난 하르방 알아점수다.” 호나내 막 하르방이 울더라는 거라

이. 울엄시나내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이제 채 혼 줌 빌어 아전 돌아오라. 돌아오라내 “아이구 요놈의 하래비, 머칠만 혼 손님을 머치주이, 아이구, 이거 이영 혼디라네 추접혼디 저영 혼 사름을……” 옷을 끄게 입언 갖거든, 그 사름이, “옷은 어디 시난 입읍데가? “응. 저 이거 우리 할망 옛날 우리 할망 나나시 옷 해연 앓안 오란 입읍센만 해연 나가 입었주.” 옷을 혼 불 해연 지언 나사서이. 하르방 좃이래 나사내 탁 이제 할망 죽일 댜음이 나배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큰할망 죽일 댜음이 나배서. 나나넌 이제 우리 큰할망 곤는 딸이 “아이고, 영 고생허지 말앙 나영 꺾기 가민 하르방도 가꼭 꺾기 가민 우리 아덜덜 일곱 성제가 막 돈도 벌어 오꼭, 이제 남도 강 해여 오꼭, 막 이제 호강시리 살 때가 시매 가겐.” 경허난 이젠 가쿠덴.

“성님, 저 가쟁 허민양. 난 이추룩 막 추접해부난 나 가그녕, 요디 가그녕 저 연못에 가그녕, 성님도 몸굽고 나도 몸굽고 해그녕 끄게 행 읍서 가게.” 허난 할망은 날 닮은 할망 푼고정 들언 가서. 개난 “성님 옷 벗엉 이레 눅서.” 허난 옷 벗엉 노난 “요래 굽읍서. 뒤짱에 물 놓쿠다.” 헨 자락 거리밀려부난 죽어배서.(조사자:큰할망이예?) 큰할망이 죽어배서. 죽어브난 그 옷 다 좃어 입어서. 큰할망 옷을 다 좃어 입고 하르방신디 오란. “하르방 양.” 큰어멍인 추룩헨이. “하르방 양 하도 그넌 흘림에 들어내 이제 막 고생도 많이 허고 원 포시를 허지 못헨 연못에 간 거리밀려 죽여뻬수다.” 하르방은 아주 색명치 못해서, 말로만 들어서, 큰할망인 축 허난 경허넨헨. 이젠 걸 드라아전 이젠 걸음, 들음 허멍 아덜 일곱 성제신디 그 하르방돌고 해연, 남신비 하르방 돌고 해연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큰어멍을 죽여뻬 가지안해샤? 그딜 좃아가나내 다른 아덜덜은 어숙미숙허는디 말켓아덜이 하도 대양지더라는거라. 죽은 아덜이이. 성덜신더래 “성님네야 봅서. 아멩해도 우리 어멍이 아니우다.” “아야 무사 아니고? 옷 봐라 아니가?” “아니우다. 아니우다.” “아방도?” “아방은 기라도 어멍은 아니우다.” 경허민 어멩허민 아닌 중 긴 중 알아지크넨 허난 오늘랑 밥을 혼뎨 우리 일곱 성제 사발이 다 지그릇씩이난 성님그릇을 성님만 주꼭 나그릇 이랑 나만 주민 우리 어멍이고, 성님 밥그릇이 나신디 오꼭, 나 밥그릇이 성님신디 가민 우리 어멍이 아닌중 알아지쿠덴 허난, 경허켄.이건 밥이며 죽이며 해놓은 거라. 알아질겨나개. 그 큰어멍은 (조사자:놈의 아덜덜이난 몰란) 응, ㄹ, 몰란게. 몰란 허주난 알아가나내, 이놈의 예펜이 일곱 성제 애 내먹을, 간 내

먹을 생각이 나배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말이여. 남 아래 아즌 하르방이라 막 가쿠면 호는거라, 거짓말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이제 광란이 들림도, 노일제대귀일의 딸 혼정이엔 곧지 안허느냐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하르방은 “할망 어떻 아판?” “배가 아판. 아이고, 하르방 양요 뒷동산에 올로 영 돌아가민 점 잘하는 사름이 아잔 점을 햅젠 훑디다. 하르방 강 점을 햅 오쿠과? 나 어떻햅 아팜시넨.” “오, 경호주.”

하르방은 절로 두글락두글락 가는 곁에 요새로 넘어가내 지가 점장이추록 아자서 “하르방 어디래 가는 하르방이파?” “나 점하래 감수다.” “나 점 훑디다. 나신더 훑서. 나 잘하는 사름이우다.” “아이고, 곁음에도 겨우다마는 일곱 성제 간을 햅 먹어사, 엘 냉 먹서사 햅은 좃쿠먼” 호난 “아이고, 아덜 일곱 성제 간을 어떻 햅 멕입네쎄.” 경호나내 “어떡햅니까. 할망이 아까우민 햅 멕여사주. 개난 이제 우글락우글락 하르방이 절로 돌아옴썩간 그 예펜 오란 구들에 오란 또 걸러쳐서. “무시거엔 간 하르방 햅데가.” “거 들음에도 섭지근훑 말해라.” “무시거엔 곁음데가?” “아덜 일곱 성제 간을 햅어 엘 냉 먹어사 좃겐 허난 어떻햅거라.” “아이고, 요 하르방 어디 강 그런 점을 햅데가?” 영 아니라, 이진이, “어디강 그런 점을 햅데가? 어떻 애기덜 간을 햅 먹음니까?” “어떻햅개. 원, 경호관태 난 곁음데로 도시렴주.” 하르방이 날 아잡건 아덜 일곱 성제 엘 냉 멕이렌 허는거라. 지가 살아나그내 하르방 공델 호켄이. 집에 이 살림에 다 공델 잘허크매 아덜 일곱 성제 안티보단 나안티 대울 잘 받을거매 그 아덜덜 다 죽영 간을 햅 멕영 질 살리라는 거라. 하르방은 좃 올캐로 남선비가 슷되난 하르방이주이. 칼을 간 정지칼을 간 앓안 간, 무똥에 간, 아덜덜 일곱 성제 남호래 갖거든이. 옛날엔 남, 이제도 육진 촌에 남 안허느냐개(조사자: 예) 남 허래 가나내 요영 현디서 칼을 곁암시나내 아덜덜이 들어오라내. “아버지 무시거호젠 칼을 곁미파?” 호나내, 아야, 느네 어떻 아파내 어디간 저 점을 호나내 느네 간을 햅 먹여사 좃겐 해부난 훑 수엇이 칼을 곁암쎄.” 호나내 아덜덜이 기가 찰 일 아니가개이, 옛날이라도이. 어이가 어서서이, 아니허쿠먼도 못허고 허쿠먼도 못허고. 아방 경햅시나네. 남 허래 간 보나내 새끼 일곱 돌은 저 산툰이, 곧 난 산툰이 우물우물, 옛날에 산툰이 우리 거제도 가난 그때까지 산툰이셔라 개. 산도새기 말이여. 산도새기.(조사자: 예) 새끼 톤 산도새기 시나내 족은 아시가 곧는 말이 성덜이라 “성님 우리양 오널 가난 산툰이 봤수개

새끼 돈 산퐁이 봤수개.” “응. 봤져.” “우리 양 아버지 우리 나고 그자 죽을 수가 시우꽈? 오늘만 뇌줍서.” 낭 강 혼짐씩 더 해뇌똥 죽으쿠면, “경 성님 곶음씨, 아방ㄱ라.” 아버지 우리 일곱 성제가 낭을 혼 짐씩 해다뇌똥우리 그때랑 아버지가 우릴 이제 간을 뽕 맥입센 혼거라. 이제 아버진 경하라. 이제 일곱 성제가 간 막 몰아쳐내 산퐁을 일곱 꺾 잡아내 하날 뇌두꼭 으섯개 간을 빠서 이 간을 뽕 죽은 아시가 앓안 돌아오라내. “아버지, 오널 남하래 가난 기가 차내 성덜이 남을 안하연 우리가 다 일곱 성제가 다 그디서 죽어노민 아버지 어떻게 다 치웁느넌, 느 하나만 살앙 이저 간 빠준 거 으섯개 앓앙 강 죽은어멍ㄱ라 먹으랭 하곡, 이제 저 늘랑 아방ㄱ라, 날랑 아버지 나 하나쯤 이사 아버지 못허쿠와? 못치우쿠광? 날랑 아버지가 뽕 맥입센 경 곶으랜.” 경 곶앙 꺾를 부리렌. 경하난 이제 어멍신디 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막 죽는 체하난, “어머니, 성님네 으섯 성제 엘 나가 내언 오고 간을 빼언 오고 이제 난 아버지ㄱ라 날랑 빼영 어멍을 먹입센 나가 곶앗수다.” “아이고 야야, 나가 어떻게기덜 엘 먹느니 엘 먹느니 ” 하난 “제도 먹어삼주. 이거 다 죽영 잡아 온 것 안먹영 어떻게쿠와.”

경하난 이제 죽은아들이 부애가 안날거가개. 경헨 나오멍 둔고냥을, 옛날은 쌀문, 종이문 아니라시냐개. 똥라똥 나오란 영 곶안 바래나내 먹는듯 먹는듯 하멍 문딱 자리 알려래 물어. 자리 알려래 묻으난, 그젠 아니꼬와내이, 성을 불러서, 성덜 으섯 성젤 다 불러서 이제 영영 곶앙 죽이켄, 그뻐 죽일 밋음 안나크냐개. 아방이고 어멍이고 죽일 생각안나크냐 암만 옛날이라도이. 재기덜 읍센개. 다들 가 담아들언. 벤소에 간, 칩간에 간 목메어전 죽고이. (조사자 : 누개가?) 노일제대귀일의 똥개. 개난 칩간동티, 동티병으로 촛에서개, 변소에 강 무시거 문직아부난 동티낫켄 안허느냐개. 이제 개도 옛날엔 경해낫져개. 이 하르방은 아덜덜 그디 간 동안 문전에서 야개 돌아전 죽어부난 이제 문전귀신, 문전에 무시거 안걸어 노느냐? 무시거 혼 적에. 거 잘 대접 안하민 어떻게든 하멍 나 옛말 잘 곶아시매 경혼 옛말이 잇져이. 겨난 이진이 심방덜, 무당덜이 장귀치멍 이제 본풀이 흘 때민 이 말 다 푼다 이제도.

信 仰

目 次

- I. 概 觀
 - II. 部落信仰
 - III. 公認宗教 및 類似宗教
 - IV. 結 語
- 1. 儒式部落祭
 - 2. 巫式部落祭

I. 概 觀

온평리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에 속하는 해변 마을이다.

金錫翼 著 「耽羅紀年」에 보면 三姓神話를 기록하면서 三神人의 배필이 되는 碧浪國 王女가 閔雲里(溫平里)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보이고 그 증거로 이 마을의 바닷가에 '황루알'이라는 곳에 王女가 들어 올 때 찍혔다는 말발굽 자취가 남아 있다.

이 마을의 신앙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部落祭였다. 온평리에서는 儒式部落祭와 巫式部落祭가 모두 行해지고 있었으며 특히 儒式部落祭는 온평리 本鄉堂神이 돼지고기를 부정시키기 때문에 犧牲을 소로 쓰고 또한 本鄉堂에서 포제(酬祭)가 끝난 다음날 포켓굿을 하는 등 巫俗信仰이 이 마을 주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인 종교로서 불교와 기독교가 있으나 그 세력이 아주 미약해서 마을 주민들이 무속 신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 마을 신앙의 특색이라 보이는 부락제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

고자 한다.

개인신앙이나 조상숭배, 가정신앙은 다른 마을과 크게 다름이 없었다.

II. 部落信仰

마을 공동의 부락제로서는 儒式과 巫式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유식 부락제인 포제는 큰제와 별제로 나뉘어서 행해지는 것이 특이했는데 이는 本郷堂神의 영향 때문이다. 희생도 본향당신이 돼지고기를 부정시하기 때문에 쇠고기를 쓴다.

무식 부락제는 “포켓굿”이라는 당굿을 하는 것이 특이하다. 다른 마을에서는 ‘본향당에 간다’고 해서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가서 축원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마을에서는 포제 다음 날 하루 본향당에서 메인 심방을 빌어 당굿을 한다. 이 본향당신은 明五夫人과 文氏영감(하르방)으로 장적(帳籍), 호적(戶籍), 생산(生産), 물고(物故), 생업(生業) 등 온평리 주민 생활의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1. 儒式部落祭¹⁾

(1) 酬祭

① 祭名: 酬祭

② 祭神: 포제는 큰제와 별제로 나뉘는데 큰제는 “土地之神”을 별제는 “本郷之神”을 모신다. 여기에서 堂神의 영향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③ 祭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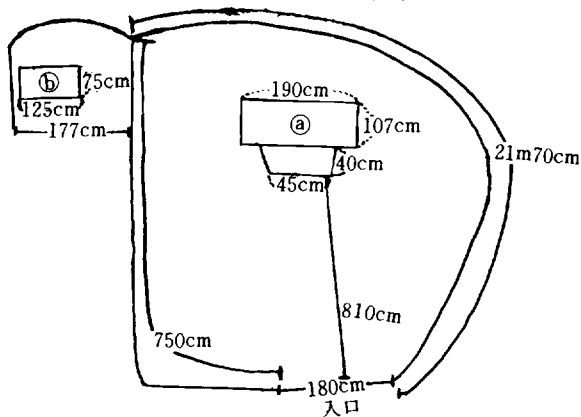
ㄱ) 명칭: 포켓단 또는 켓단

ㄴ) 위치: 전에는 현 온평국민학교 옆에 있었으나 너무 일주도로 변에 있어서 약 30~40년 전에 바닷가 쪽 진막르(長東山)로 옮겼다.

포켓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온평 본향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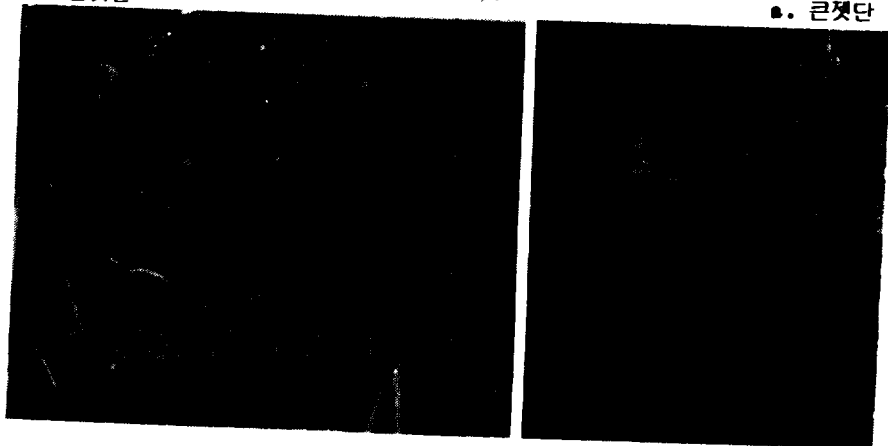
1) 儒式部落祭의 내용은 주로 李斗吉(男, 74세)·송자효(男, 52세)옹으로부터 계보받았다.

ㄷ) 형태 : ㉑는 큰제를 지내는 곳이고 ㉒는 별제를 지내는 곳이다. 주위는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풀이 우거져 있었다. 돌담을 쌓아 형태를 만들었고 ㉑와 ㉒는 넓직한 바위로 제단을 만들었다.



b. 별제단

a. 큰제단



④ 祭日 : 정시(地官)에게 날을 받아 오는데, 음력 정월이 지나지 않게 하고 시간은 子時가 지나면 새벽이 되기 전 언제든지 지내도 된다.

⑤ 祭儀管理

ㄱ) 회소집 : 이장이 반장을 통하여 마을 회의를 소집한다.

ㄴ) 명칭 : 위 회의를 “醮祭鄉會”라 한다.

ㄷ) 참가자 : 각 호당 1명씩 참가하는데 부정타지 않은 사람 (상을 당하는

등)이면 참가할 수 있고 여자는 참가할 수 없다.

ㄹ) 회의내용: 제관을 선출하고 祭享費를 결정한다. 제향비는 옛날에는 각 호마다 쌀을 모아 충당했는데 지금은 일정량의 돈으로 받는다.

⑥ 祭官

ㄱ) 자격: 일정기간 마을에 거주하고 집안에 상을 당하지 않고 연령이 많으며 德望있는 사람으로 한다.

ㄴ) 선출: 초헌관은 이장이 선출하고 나머지 헌관은 포제 향회에서 선출한다.

ㄷ) 종류: 옛적에는 18제관이었으나 지금은 6제관이 제를 지낸다. 18제관은 다음과 같다. 初獻官·亞獻官·終獻官·典祀官·執禮·大祝·謁者·贊者·贊引·奉香·奉爐·樽所·樽酌·都色·假家都色(2人)·級水軍(2人).

- 전사관: 포제 때 모든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
- 집례: 제를 지낼 때 사회자 격으로 笏記를 부르는 사람.
- 대축: 祝文을 고하는 사람.
- 알자: 일종의 안내인으로 執禮가 읽는대로 復唱을 한다.
- 찬자: 국궁배를 부르는 사람.
- 찬인: 興을 부르는 사람.
- 봉향: 향불을 받드는 사람.
- 봉로: 향불을 피우는 사람.
- 준소: 잔에 술을 따르는 사람.
- 준작: 헌관에게 잔을 드리는 사람.
- 도색: 제물 관리인(고광 관리인)
- 가가도색(2인): 전사관의 심부름으로 음식물을 관리하는 사람.
- 급수군(2인): 물을 나르는 사람.

6제관은 初獻官·亞獻官·終獻官·大祝·執例·謁者 등이다.

⑦ 祭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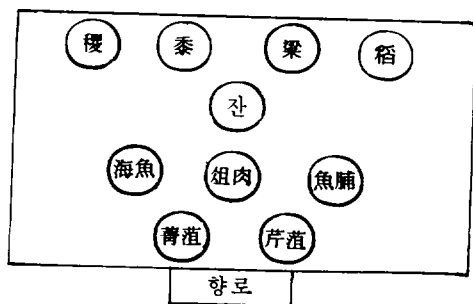
ㄱ) 穀類: 稻(벼) 粱(조) 黍(기장) 稷(피)을 진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장과 피를 구하지 못할 때는 차좁쌀로 대신한다. 그렇지만 메는 꼭 4가지를 올린다.

ㄴ) 犧牲: 소 1마리를 쓰지만, 젖상에 올라가는 부분은 俎肉(등심부분)만이고 나머지는 젖상 옆에 따로 놓는다.

- ㄷ) 幣帛 : 배, 무명, 광목, 소지(白紙) 등
- ㄹ) 果類 : 사과, 배, 귤, 감, 대추, 밤, 비자 등)를 사용하나 여의치 않을 때는 사과를 쓴다.
- ㅁ) 祭酒 : 큰제는 감주를 쓰고 별제는 소주를 사용한다.
- ㅂ) 채소류 : 미나리채, 무우채, 부추 등
- ㅅ) 魚類 : 海魚類(비늘이 있는 고기면 무엇이든 올린다) 이를 魚脯라 한다.
- ㅇ) 올해(1986년)의 祭物 單子を 구할 수 있어서 소개한다.

粕米 : 三斗, 粳米 : 三斗, 黍米 : 三斗.
 稷米 : 三斗, 幣帛 : 三張, 祝文 : 二張.
 祝板 : 一文, 洋燭 : 一封, 香 : 若干.
 香爐 : 一, 果實 : 七實, 組肉 : 一.
 酒釀 : 一, 魚脯 : 二, 魚蘇 : 五蘇.
 芹菲 : 一, 犧牲 : 五斤, 箒鹽 : 一對.
 盥洗手巾 : 一.

⑧ 제물 진설도



⑨ 齋戒 및 入祭

주독

일단 제관이 선출되면 제관이 된 사람의 집에는 금줄이 쳐지고 부정인들의 출입이 통제된다. 祭三日前에 齋壇에서 가까운 정결한 곳에 祭所를 정하고 금줄은 치고 잠인들의 출입을 금지하여 祭所에서 齋戒하게 된다. 卍제일까지는 집에 가지 못하고 담배, 음료수와 기타 식사 모두를 마을의 부인회, 청년회에서 준비한다.

⑩ 禁忌

入祭前에 마을에 상이 나면 포제를 연기하지만, 입제 후에 상을 당하면 그 지역에 금출을 쳐 어떤 일이 있어도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⑪ 祭服 및 祭器

ㄱ) 祭服 : 청금, 유건 등을 마련하여 이사무소에 보관해 있다.

ㄴ) 祭器 : 마을 공동의 것은 없고 祭所를 정한 집에서 마련해 사용한다.

⑫ 參加者 : 제관과 유지 몇 사람 그리고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월이라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많이는 참가하지 않으며 여자는 밥을 짓고 물을 나르는 사람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또한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전혀 출입할 수 없다. 이는 당신(堂神)이 돼지고기를 부정시하기 때문이다.

⑬ 行祭 : 酬祭笏記

謁者 引祝及諸執事 俱就門外位. 謁者 引祝及諸執事 入就壇南拜位 北向立. 祝以下 皆四拜 平身. 引詣盥洗位 盥洗. 各就位.

謁者 引獻官 俱就門外位 謁者 引獻官 入就位 西向立

謁者 進初獻官之左 白有司 謹具 請行司. 獻官而皆四拜 平身.

謁者 引初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搢笏 盥洗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搢笏 獻酌. 執事者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 興 小退 跪. 祝 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謁者 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搢笏 盥洗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搢笏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終獻禮는 亞獻禮와 동일한 절차이므로 생략함).

獻官而 皆四拜 平身.

執事者 以爵酌 復酌. 謁者 引初獻官 詣獻福位. 引詣神位前 西向跪 搢笏. 執事者 以爵 授獻官. 獻官而 執酌 飲 卒酌. 祝 進神位前 進坎俎肉 南向位 授獻官而執俎 出俎 東階.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祝 進 輟運筥. 獻官而四拜 平身. 祝 取祝板及幣篚 降白 西階.

謁者 引初獻 詣望燎位 毛血於坎 蓋燎. 謁者 進獻官之左 白禮畢 出. 謁者 引祝及諸執事 俱伏壇南拜位 北向立. 祝以下 皆四拜 以此出.

⑭ 祝文 : 해마다 정시(地官)에게 부탁하여 새로 짓는데, 내용은 해마다 거의 같으나 특별히 그 해에 기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가한다.

ㄱ) 큰제

維 歲次 庚申 正月 己卯 朔 初九日 丁卯 初獻官 某 敢昭告于尊靈之前 伏以 於赫明

靈 照臨里域 保護民物 黎首愛育 賴安蒼生 其所熾熾 作威作福 民賴寧謐 莫非爾極 古
往今來 時起不靖 到處復作 此將何若 歲新月正 梁拱至誠 拱手伏祝 伏願明靈 感我微
忱 危中得安 病中得列 東西南北 都防諸厄 驅逐海外 勿犯我域 俾我一洞 永掃病跡 人
人壽福 家家太平 五穀豐登 六畜蕃盛 轉禍爲福 轉災致祥 終歲安樂 永垂太平 山崩海
湯 報賽不絕 是誰之功 都是神德 謹以醴醑 敢陳牲幣 庶品式陳 明薦尚饗

ㄴ) 별제 : 초헌관과 대축만이 간단히 지낸다.

維 歲次 丙寅 正月 甲申 朔 初四日 丁亥 初獻官 某 敢昭告于別行大神前 伏以 管此
一域 保佑民物 賴安蒼生 其所熾熾 作威作福 民賴寧謐 莫非爾極 雨順風調 都由神主
海不揚波 都是神德 人神相依 何依何往 大享畢後 因以伏祝 伏願明靈 感我一文 危中
得安 病中得列 百事解冤 千罪消滅 東西時起 南北瘟瘧 驅逐海外 勿犯我域 俾我一洞
永掃病跡 人人壽福 家家太平 百穀無災 六畜有全 終歲安樂 永垂太平 伊誰之功 維神
之德 謹以醴醑 敢陳牲幣 庶品式陳 明薦尚饗

① 飲福

축기 때문에 포켓단에서 소주만 간단히 마시고 제소에 와서 다 같이 앉아 먹는다. 희생으로 쓰였던 소는 초·아·종헌관 등 제관들이 갈라서 갖는다. 소값이 비싸 그리 큰 소를 잡지 않기 때문이다.

(2) 祈雨祭

- ① 名稱 : 祈雨祭
- ② 祭神 : 天神
- ③ 祭日 : 비가 오지 않을 때 정시(地官)에게 부탁해 날을 정한다. 子時에 祭를 지낸다.
- ④ 祭場 : 묵은 열운이에 있는 제석동산에서 지낸다.
- ⑤ 祭官 : 里長과 유지 몇 사람
- ⑥ 祭物 : 간단히 차리는데 개인이 제사지내는 정도로 차린다.
- ⑦ 祭文 : 근래에는 지낸 일이 없어서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가뭄이 들면 지낼 것이라고 한다.

2. 巫式部落祭

(1) 酬祭굿

온평리에서는 특이하게도 포제를 지낸 다음날 본향당에서 “포젯굿”을 하며, 여기서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한다.

① 祭名：포젯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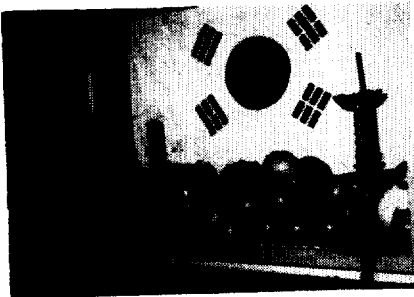
② 祭神：明五夫人柳氏之神位
可戶令監文公文神位

③ 祭場

ㄱ) 명칭：온평 본향당

ㄴ) 진마르(長東山)에 있으며 포젯단에서 바닷가로 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ㄷ) 형태：온평 본향당은 3~4평 정도의 당집으로 지어져 있으며, 지은 시기는 1937년이다. 주위는 높게 담장을 쌓았고 그 밖에는 소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었다. 당집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벽이 두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단 중앙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명오부인과 문씨 하르방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를 중앙으로 해서 좌우에는 단골들이 제물을 진설할 수 있도록 1m 내외의 널판지가 길게 놓여져 있다. 하단에는 상자가 두 개 있다. 이 상자에는 명오부인의 치마와 저고리, 문씨 하르방의 옷과 바다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다는 유리잔 유리대가 있었고 상단골인 高氏 집안에서 마련했다는 기(旗)가 보관되고 있다.



제단 상단



제단 하단

④ 祭儀執行者：首심방으로 송희금(男·56才)씨와 소무로 현금순(女·54才)씨가 있다. 이들은 부부이면서 강신무(降神巫)이다. 이번 조사에서 강신무에게서 직접 그들의 入巫過程을 들을 수 있어서 무속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송희금씨의 입무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년 이상 병을 앓았는데 알고 보니 神과의 싸움이었다. 나이 40에 아팠는데 낮 12시간 중 2시간은 살아 있었고 10시간은 죽은 목숨이었다. 이렇게 거의 죽은 목숨으로 지내게 되었다. 아무리 굶을 해도 낮지 않았는데 마흔 두살 되는 겨울부터 눈만 감으면 옥황에서 쇠 사다리가 내려오곤 했다.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큰 방처럼 된 곳이 나오고 대감같은 사람들이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서려면 나가라고 해서 되돌려 보내지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되돌아 오려면 사다리가 사라져 버린다. 그때는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한참을 헤메다가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 이 구멍으로 빠져 나왔다. 그렇게 세 번을 올라가니,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자격이 된다면서 왼손바닥을 딱 때렸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꿈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뼈마디가 두들겨 맞는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아파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때마침 집 근처에, 아파서 누워있는 강씨 할머니란 분에게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엘 가 할머니 손목을 잡았는데 첫말이 “당신 동넛 우녕에서 김 메다가 죽은 뱀을 왜 담 구멍에 쏘서 넣었느냐, 죽지 않을 것이니 빨리 굶을 하라”고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 그 딸이 할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 맞다고 해서 굶을 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 후 43살 나는 삼월 초이틀부터 巫業을 시작했는데 영험이 많았다. 맹두는 모두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자손들에게 물려주지는 않겠다고 했다.

현금순씨는 47세에 身病을 앓고 入巫하였다.

⑤ 당 본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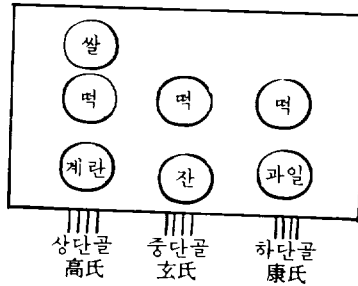
다음은 학술조사 기간에 조사자들이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하다고 해서 들을 수 없었던 본풀이를 8月 12日(음력 7月 7日) 마불림제가 있었던 날에 2차 조사를 가서 채록한 것이다. 송희금 심방이 마불림제에서 구술한 것이다.

“낳는 날은 생산 죽는 날은 물고 장적 호적 거더잡던 맹호부인 아아 삼갑즈년 갑즈월 갑즈일 갑즈시가 당하시니 금성산 명진국 대감님 딸 삼성계 솫아나 혼술 두술 혼 다섯술 되어서니 열다섯 십오세 거의 근당호니 아자 천리 사 만리 산썰(山血) 물썰(水血) 돌아보져 장적 호적 촌지호져 경호영 영나옴디다. 울축 삼월

열사출날 탐라 제주 고량부 삼신왕 도업하니 아 계수나무 조각배를 둘러타고 탐
 라 제주 도업 되어 큰 성님은 조천 정중부인 좌정하여 낡는 낡은 생산 죽는 낡
 은 물고 받읍디다. 셋 성님은 짐녕 유실부인 좌정하여 낡는 낡은 생산 죽는 낡은
 물고 장적 호적 거더잡읍디다. 죽은 아시 의심세고 성이세다 아호 봉(鳳)에 눈
 을 브릅뜨고 삼각산을 거느리고 남방 스주 봉에 대흥단에 불림체 소흥단에 불림
 체 거너리고 금당도스메에 문을 메고 법당 호칭 풀찌거리 호미그득 위연달을 거
 드라 정치동산 앞을 정취봉능(정취봉능) 놀린내영 놀광내가 탐천하네 산썰 물썰 거더잡앙
 송당에 들어사니 금썩수가 좌정하고 셋송당을 느려사니 브릅웃도 좌정하여 내
 왔당 들어서니 소천국이라 산썰 물썰 둘러잡아 중근중근 느려사되 혼쪽녁은 온
 평리에 놀광너영 놀린내영 돈경내가 당천하다 아호 봉(鳳)에 눈을 브릅뜨고 삼
 각산을 거느려 아하 산썰 물썰 돌아 보자 올썩외다. 서신산이 하나보듯 아하 호
 차한장 친분이 두 개 발이 좋다 둘러보니 범선굴 고장남반 가지가지 승에승에
 보아하니 좌성룡 우백호에 산천발양 비니듯 물바당 삼신당을 거더잡앙 천원을
 누리게가 되키어(정취봉능) 읍습니다 낡는 낡은 생산 죽는 낡은 불고 촌지 하읍데
 다. 온평 열원이 후로 너머들어 옛날 예적에 삼신같은 율한림 당동산에 올라라
 개남나무 하러오난 낯인 춤이슬 맛고 밤인 춤이슬 맛앙 오읍데다. 아아 만국 시
 월 올썩외다. 촌이렛날 달이 지나 산썰물이 당하시니 문씨영감 솟아난다. 야,
 어머니 하단말은 하다 못내호고 혼 일곱술이 되어도 구덕 베끼니 혼번 못내오란
 혼 일곱술 나는 시집 만국 시월 초이렛날 아아(정취봉능) 문씨영감 황부알로 빠
 졌구나. 요왕제국에 들어가니 아어 신관어린 왕후가 장적 호적 거더잡으라 하여
 무쇠도포 내어주고 무쇠갓을 지서주곡 혼손에는 유리잔 혼손에는 유리대 아늑
 그득 금제포를 둘러잡고 영하니 대필 소필 한 손에 거더 잡앙 두 일레 열나홀만
 에 개암 용머리 솟아나읍데다. 맹호부인 용해봉스디(정취봉능) 삼성그치 좌정호
 영. 낡는 낡은 생산 죽는 낡은 물고 장적 호적 거더 잡읍디다. 아방국 호종달
 읍습니다. 아들 삼성제가 솟아나 아호 큰 아들은 모실포 광정당 좌정호영. 낡는 낡
 은 낡 생산 죽는 낡 물고 장적 호적 촌지 하읍데다. 셋아들은 저 머물 수산에 너
 른 목도 올웨므르 좁은 목도 올웨므르 삼신같이 좌정호던 하로산 언디. 낡는 낡
 은 생산 죽는 낡은 물고 장적 호적 거더잡읍데다. 죽은 아신 저기 중문 칠복당
 을 거더잡아 낡는 낡은 생산 죽는 낡은 물고 장적 호적 거더잡아 오실 때 올습
 외다. (정취봉능) 아으 고침으로 상단골을 무어보져 고씨하르바지 올썩외다. 글
 도 장원 활도 장원 글도 활도 똑똑호되 과거보난 낙방낙방 재차보난 과거 낙방
 고씨할아바님 답답호고(정취봉능) 산수육갑이나 받아보져 가고보니 안명한 천지
 허영한 올썩외다. 아으 산수육갑 짚어보난 당신집 맑고 맑은 일월이라. 여자일
 월 남자일월이 과거낙방을 시켰읍니다. 아고 우리 먹을 맹호부인 맹오안전 문씨
 영감 통정대부 낙후대왕 삼천백메 도의분향 어진 조상이십네다. 요조상이 과거

낙방 시킵니다. 어멍하민 과거합격 하오리까. 야, 요거복서 올수외다. 아어 삼천백메기를 돌려놓서 문씨영감 홍포관대 베어놓서 아어 맹호부인님 새홍단어 활짝스내 팔도부인 지어놓저. 아으 삼척백메나 그리되영 요조상은 여즈가 거행허영 과거낙방 합격넙니다. 남즈(청취불능)하는 삼척백메기를 고비 아으 삼천백메 온평 고씨집으로 들어보니 고씨집안에서 올쑤외다. 저 조상 하로산을 거행하던 한씨 조상 불러당 아으 상두한 살려놓디다. 중두간 하도 와도 살려내고 아으 동방으로 삼천백메 한을 골라 신두어라히도 홍포관대 부채고리나 웬만큼 집에 돌려 보나(청취불능) 먼저가난 신을 불러 호는 말이 초공본 석달열흘 백일 되면 과거합격호웁니다. 현대 두대 삼대 과거에 합격호웁니다. 이런 일이 올쑤외다. 석달 열흘 백일되니 과거합격했구나. 고창영감 먹었구나 그 아들은 거제부사 뉘난사리 거아들은 올쑤외다. 정이 없이 자리되웁데다. 황천산이 도어오던 아흐아닙니까 거난드러 고씨집안에서 상단골이 되웁디다.

⑥ 제물 진설도



⑦ 禁忌: 3일 전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

(2) 군인굿

포켓굿을 지내고 얼마있어 군인, 경찰관, 운전자, 원양어업, 해녀, 공무원 등에 대한 무사안녕을 비는 굿을 한다.

(3) 영등굿

음력 2월 12日 저녁부터 시작해서 14日까지 한다. 나머지는 포켓굿과 동일하다.

(4) 마불림제

음력 7월7일에 지내는데 당집에 보관되고 있는 명오부인 문씨하르방의 옷과 상단골인 고씨 집안에서 마련했다는 삼천백메기를 꺼내 햇빛에 말리면서 곳을 한다. 이때에 마을 아낙네들은 메 한 그릇, 쌀, 바닷고기, 과일, 술 등의 제물을 차리고 와서 진설한다.

Ⅲ. 公認宗教 및 類似宗教

(1) 공인 종교

온평리의 공인 종교로서는 불교와 기독교가 있다. 그러나 공인 종교라 하더라도 이들의 세력은 아주 미약하다. 이는 마을 주민 태반이 무속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불교는 사찰이 없이 개인집에서 아미타불이 탕화를 모셔 놓고 있었다. 신도의 수는 30~40명 정도이고 승이 없다. 신도들이 이 곳을 찾을 때는 아프거나 아기가 병이 났을 때이고 기도를 하는 정도이다. 불공을 드리거나 특별히 스님을 모셔와야 할 때는 종달리에 있는 본사인 용화사에 가거나 거기에 있는 스님을 데려온다.

기독교는 감리교가 하나 있고 여기에 책임자로서 전도사 1명이 있다. 신도의 수는 17~20명 정도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거나 청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유사 종교

· 天地大安道

- ① 본산: 처음에는 충청남도 계룡산에 있었다가 논산군 엄사리로 옮겼다.
- ② 교주: 해월선님('어머니'라 부름)이고 생존해 있다.
- ③ 수양방법: 정신 수양을 위하여 약수 5그릇을 먹고 기도한다.

④ 기도방법 : 한달 3회로 음력 5日 · 15日 · 25日이다. 시간은 낮 12시에 모여서 하는데, 처음에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 수도를 하고 다음에 가정과 자신의 안녕을 비는 가정 수도로 들어간다.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며 남자는 흰 옷에 흰 관 여자는 노란색 관에 흰 옷을 입고 노란색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를 본다.

⑤ 신도 : 20~30명

⑥ 기도소 : 3명 정도의 방에 해월선님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있으며 모자와 옷은 모두 기도소에 보관되고 있다. 계운전이라는 교리책이 초상화 앞에 놓여 있으며 그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탁과 모금함이 설치되어 있었다. 방 가운데는 동그란 상이 있고 그 위에는 주전자가 놓여 있으며 그 안에는 물이 있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 모금씩 마신다고 한다. 천정에는 만국기가 달려 있었다.

⑦ 운영 : 신도이 기도하러 올 때 내는 성금으로 운영된다.

⑧ 성탄절 : 8月27日이며 이 날은 간단한 재물을 차려서 어머니(해월선님)의 탄신을 축하하며 음식을 나눠 먹는다. 특별히 제주시에 있는 본교에 와서 기도를 하고 성금을 내는 이도 있다.

⑨ 부적 : 해월선님 대법 천황법령

부적은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할 때 새로 만든다. 특별히 정성 어린 신도는 해마다 새로 바꾸기도 한다.

⑩ 가치관 : 모든 시설과 기물에는 노란색을 칠하고 있다. 이는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는 運法에 기인한 것으로 세상의 근본을 땅인 어머니로 생각하고, 땅이 黃土라는 데서 노란색을 중요시한다.

⑪ 기도소원문

합장에도 천하유아 해월선 어머니님 전에 소원이올시다. 만천하의 중생들이 역천죄를 지을지라도 해월선 어머니님의 은덕으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록하신 어머니의 새로운 광채로 앞길을 지도하여 주심이 소원이올시다.

⑫ 신앙에 대한 질서

- 해월선 어머니님을 염원할 일
- 나라에 충성할 일
- 부모님께 효성할 일
- 형제간에 화목할 일

- 예의를 마땅히 지킬 일
- 빈한한 자를 구제할 일
- 어질고 바름을 지킬 일
- 두가지 마음을 먹지 말 일
- 악은 불을 재촉하는 것이니 반드시 소멸시키고, 어짐을 행하여 우리의 근본을 찾을 일.
- 미신은 영원히 타파할 일.

⑬ 해월선님의 경계 말씀

- 남의 언권 뺏지 말 것.
- 남의 후론하지 말 것.
- 남에게 모략하지 말 것.
- 시기 투기하지 말 것.
- 자기 자칭하지 말 것.
- 내 몸에 사치하지 말 것.
- 말소리 자국소리 높이지 말 것.
- 사람의 복은 미신에 있지 않고 말과 예도에 있으니 주의할 것.

⑭ 금기 : 말고기, 개고기, 등과 술 담배를 금한다.

IV. 結 語

지금까지 부락제를 중심으로 온평리 신앙의 여러 형태를 정리해 보았다. 주위 여러 마을의 유식 부락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반면, 온평리에서 부락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아직도 굳건하며 마을 주민들은 부락제를 중심으로 뭉쳐지고 있다. 또한 부락제를 통해서 무사태평을 비는 마음은, 바다에 의존함이 많은 주민들에게는 많은 위안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식 부락제는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큰제는 土地之神, 별제는 本鄉之神을 위해 제를 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면이고 본향신이 명오부인 문씨영감이 돼지고기를 부정시하기 때문에 회생을 쇠고기로 하는 등 무속의 영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마을 당신(堂神)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유식 부락제와 무식 부락제가 서로 영향을 끼친 것과 온평리에 좌정한 명오부인이 원래는 이웃 마을인 신산리에 좌정했다가 온평리로 와서 좌정한 것은 주민들의 신앙 의식과 이웃 마을인 신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온평 본향당 본풀이에 나오는 三神人의 도업 후에 정중부인·유실부인·명오부인이 들어왔다는 것과 金錫翼 著 「耽羅紀年」에 나오는 碧浪國 王女가 들어왔다는 三姓神話의 화소에 대해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하다.

3박 4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락제의 특이한 면을 볼 수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뭉쳐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앙적 기반이 아직도 굳건한 것에 기쁘기 그지 없었다. 또한 강신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학술 조사 기간 중에 가장 큰 소득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기꺼이 제보를 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2차에 걸친 조사에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식사를 제공해 주신 송희금씨 내외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